

2018
프랑스학회·프랑스문화예술학회 추계 연합학술대회

68혁명 50주년 기념
68혁명을 돌아보다

- 일시 : 2018년 10월 27일 (토), 12:00-18:00
-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 주최 : 프랑스학회, 프랑스문화예술학회
- 주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교육과
- 후원 : 한국연구재단,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발표논문집은 2018년도 정부 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초대의 글

지난여름이 유난히 무더웠기 때문인지 올가을은 참으로 청명하고 화사한 느낌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을이 한 뼘씩 깊어지는 듯합니다.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프랑스학회와 프랑스문화예술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날짜는 10월 27일이고 장소는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올해는 68혁명이 일어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과 세계 곳곳으로 확산된 68혁명의 정신은 현대 사회를 깊숙이 변화시킨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이 운동의 의미를 짚어보고 오늘날에도 유효한 현재적 전망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문화예술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68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며 68혁명에 대한 재현을 평가하는 작업을 시도할 것입니다. 50년이 지난 오늘날, 이 혁명이 우리 한국인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는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먼 길이고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가을도 음미하시면서 학술대회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

프랑스학회 회장 윤학로
프랑스문화예술학회 회장 흥명희
배상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

■ 기조강연 및 총회

| | |
|-------------|----------------------------|
| 12:00~12:30 | 등록 및 접수 |
| 12:30~12:35 | 개회사 : 윤학로(프랑스학회 회장) |
| 12:35~12:40 | 축사 : 흥명희 (프랑스문화예술학회 회장) |
| 기조강연 (209호) | 사회 : 최희재 (한국외국어대학교) |
| 12:40~13:30 | “68혁명과 민주주의” 정병기(영남대학교) |
| 13:30~13:40 | 휴식 |
| 13:40~14:10 | 프랑스학회 총회 |
| 14:10~14:40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총회 |

■ 분과발표

| 제 1 분과 (206호) 68혁명과 문학 | | 사회 : 신정아 (한국외국어대학교) | |
|------------------------|-------------------|-------------------------------------|------------------|
| | 발표자 | 제목 | 토론자 |
| 15:00~15:50 | 변광배 (한국외국어대학교) | 68혁명과 사르트르의 지식인관 변모 | 윤정임 (연세대학교) |
| 15:50~16:40 | 강초롱 (서울대학교) | MLF와 프랑스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탄생 | 오은하 (인천대학교) |
| 16:40~17:00 | 휴식 | | |
| 17:00~17:50 | 오보배 (한국외국어대학교) | 르 클레지오의 <혁명>에 그려진 1968년의 파리와 멕시코 | 이희영 (동덕여자대학교) |

제 2 분과 (207호) 68혁명과 문화·예술 사회 : 심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 발표자 | 제목 | 토론자 |
|-------------|-------------------|---------------------------------|-------------------|
| 15:00~15:50 | 한상정 (인천대학교) | 68혁명과 만화 | 김한결 (경인교육대학교) |
| 15:50~16:40 | 이선우 (서울대학교) | 2000년대 프랑스영화에서 68혁명을 기억하는 관점 | 이수진 (인하대학교) |
| 16:40~17:00 | 휴식 | | |
| 17:00~17:50 | 장인종 (한국학중앙연구원) | 68혁명과 음악 | 최나영 (한국예술종합학교) |

제 3 분과 (311호) 68혁명과 정치·사회 사회 : 손주경 (고려대학교)

| | 발표자 | 제목 | 토론자 |
|-------------|----------------|-------------------------------------|----------------|
| 15:00~15:50 | 홍태영 (국방대학교) | 68혁명을 위한 레퀴엠 | 민유기 (경희대학교) |
| 15:50~16:40 | 김승연 (동국대학교) | 68혁명의 점거 | 김영욱 (서울대학교) |
| 16:40~17:00 | 휴식 | | |
| 17:00~17:50 | 민진영 (전남대학교) | 세네갈 68년 5월 항쟁과 프랑스 68혁명의 상관관계 연구 | 김용현 (아주대학교) |

■ 만찬

| | |
|-------------|-------------------------|
| 18:00~20:00 | 저녁 만찬 (백년관 11층 명수당홀) |
|-------------|-------------------------|

PROGRAMME

■ Session plénière

| | | | |
|---|---|---|----------------------------------|
| 12:00-12:30 | Accueil et Inscription | | |
| 12:30-12:40 | Cérémonie d'ouverture Mots d'ouverture : YOON Hak-Ro (Président de la SEFC) Mots d'accueil : HONG Myung-Hee (Président de la CFAF) | | |
| Session plénière (Salle 209) | | Modératrice CHOI Heejae (Univ. Hankuk des études étrangères) | |
| 12:40-13:30 | JUNG Byungkee (Université Yeungnam) | | Mai 1968 et la démocratie |
| 13:30-13:40 | Pause-café | | |
| 13:40-14:40 | Assemblée générale de la SEFC Assemblée générale de la CFAF | | |

■ Sessions parallèles

| | | | |
|--------------------------|---|--|---|
| Session 1 (Salle 206) | Mai 68 et le milieu littéraire | | |
| 15:00~15:50 | BYUN Kwang-Bae (Univ. Hankuk des études étrangères) | Révolution de mai 1968 et changement de notion d'intellectuel chez Sartre | Modératrice SHIN Junga (Univ. Hankuk des études étrangères) |
| 15:50~16:40 | KANG Chorong (Univ. Nationale de Séoul) | MLF et la naissance du féminisme matérialiste français | YOON Jeong-Im (Univ. Yonsei) |
| 16:40~17:00 | Pause-café | | |
| 17:00~17:50 | OH Bobae (Univ. Hankuk des études étrangères) | Deux soulèvements de 1968 dans Révolutions de J.-M.G. Le Clézio : "La nuit de Tlatelolco" et "Mai 68" | OH Eun Ha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 | | | LEE Hee Young (Univ: Dongduk) |

| | | | |
|----------------------------------|--|---|---|
| Session 2 (Salle 207) | Mai 68 et les arts / la culture | | |
| 15:00~15:50 | HAN Sang-ju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Mai 68 et la bande dessinée | Modératrice SHIM Jiyou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
| 15:50~16:40 | LEE Sun woo (Univ.Nationale de Séoul) | Les souvenirs de Mai 68 dans les films français des années 2000 | KIM Hangyul (Univ. nationale d'éducation Gyeongin) |
| 16:40~17:00 | Pause-café | | |
| 17:00~17:50 | JANG In-Jong (Académie d'études coréennes) | Mai 68 et la musique | CHOI Na-Young (Univ. nationale des arts de Corée) |

| | | | |
|----------------------------------|--|--|--|
| Session 3 (Salle 311) | Mai 68 et la politique / la société | | |
| 15:00~15:50 | HONG Taiyoung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Un requiem pour la révolution de Mai 68 | Modérateur SOHN Joo-Kyoung (Université de Corée) |
| 15:50~16:40 | KIM Seung Yeon (Univ. DongGuk) | Les occupations de locaux en mai 68 | MIN You-Ki (Univ. Kyunghee) |
| 16:40~17:00 | Pause-café | | |
| 17:00~17:50 | MIN Jinyoung (Univ. Nationale de Chonnam) | Le rapport entre Mai 1968 au Sénégal et Mai 68 en France | KIM Yong Hyun (Univ. Ajou) |

■ Dîner du Colloque

| | |
|--------------------|---|
| 18:00~20:00 | Dîner du colloque (11^e étage, Hall Myungsoodang) |
|--------------------|---|



목 차

기조강연

| | |
|------------------------|---|
| 68혁명과 민주주의 / 정병기 | 3 |
|------------------------|---|

제1분과 : 68혁명과 문학

| | |
|--|----|
| 68혁명과 사르트르의 지식인관 변모 / 변광배 | 15 |
| MLF와 프랑스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탄생 / 강초롱 | 22 |
| 르 클레지오의 <혁명>에 그려진 1968년의 파리와 멕시코 / 오보배 | 45 |

제2분과 : 68혁명과 문화·예술

| | |
|--|----|
| 68혁명과 만화 / 한상정 | 59 |
| 2000년대 프랑스영화에서 68혁명을 기억하는 관점 / 이선우 | 66 |
| 68혁명과 음악 / 장인종 | 78 |

제3분과 : 68혁명과 정치·사회

| | |
|--|-----|
| 68혁명을 위한 레퀴엠 /홍태영 | 89 |
| 68혁명의 점거 / 김승연 | 104 |
| 세네갈 68년 5월 항쟁과 프랑스 68혁명의 상관관계 연구 / 민진영 | 107 |

기조강연

68혁명과 민주주의

정병기
(영남대학교)

68 혁명 운동과 민주주의

1968
1부 '주동자가 없는 시위'

▶ 00:25 / 04:44 ◀ 알방화질(IM) []

1/19

장봉기_김자희고백곡

차례

1. 배경
2. 1968년을 전후한 사건들
3. 68 혁명 운동의 비판과 공격의 대상
4. 68 혁명 운동의 주요 구호
5. 68 혁명 운동 이후 부상한 새로운 인식과 사회 운동의 방향
6. 68 혁명 운동과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

1. 배경



- ❖ 나치 잔재
- ❖ 베트남 전쟁
- ❖ 사회 안전망 구축
- ❖ 물질주의 소비 사회

- ❖ 케인스주의적(사민주의적) 동의 구조: 버츠켈리즘 (Butskellism), 대연정 등 대타협 정치와 포괄 정당화
- ❖ 물질주의 소비 사회
- ❖ 권위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결여

✓ 노동당 정부에서 재무장관이었던 게이츠케(Hugh Gaitskell: 1950~51)과 뒤 이어 집권한 보수당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맡은 버틀러(R. A. B. Butler: 1951~55)의 경제 정책이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들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 만든 표현.

3/19

정부가_정치의 교육과

2. 1968년을 전후한 상징적 사건과 인물



베트남전 반대 시위(3월 파리 아메리칸 의 스프레스 사무실 습격)로 촉발



바리케이트의 밤: 1968년 5월 10/11일
파리 리탕 지구(Quartier Latin)

파리에서 5월과 6월 사이 노동자, 농민 및 학생의 자율적 조합을 대표하는 <중앙파업위원회>가 6일 동안 시청을 점수하고 독자적 통화까지 발행한 낭트(Nantes)에서처럼 몇몇 도시들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가 수립되기도 함(Katsiaficas 1999, 213).

4/19

정부가_정치의 교육과

2. 1968년을 전후한 상징적 사건과 인물



❖ 소르본느 대학 점거: 모든 노동자에게 24시간 개방된 자율적 대중 대학임을 선포하고, 노동자, 학생, 교사들로 구성된 ‘점거 관리 위원회’가 파리 대학을 운영하기로 학생총회가 결정(이하 Katsiaficas 1999).

❖ 이탈리아 대학 점거(23개 건물): 학생들의 요구, (1) 교과 과정에 대한 통제, (2) 신임 교수 선발에 대한 통제, (3) 모든 학점에 대한 학생들의 감독 등

5/19

정병기_경기외교학과

2. 1968년을 전후한 상징적 사건과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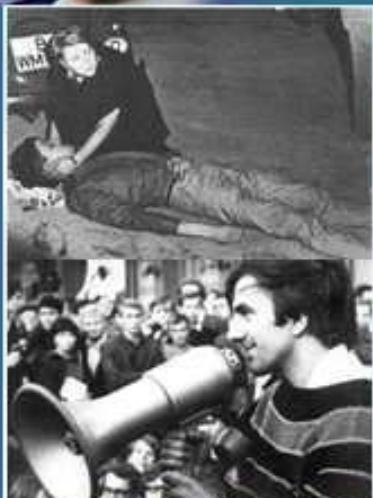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 발전: Che Guevara(1967년 사망), “우리는 자신들의 투쟁이 인간성 회복이라는 신성한 대의가 되어가는 국제적인 프롤레타리아트 군대와 더불어, 진정한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를 발전 시켜야 한다. 오늘날 무장 투쟁의 현장이 된 베트남,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라오스, 기니, 콜롬비아, 볼리비아, 브라질의 국기 아래에서 죽는다는 것은,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인과 아시아인 그리고 아프리카인에게도 영광스럽고 바람직한 일이 되어야만 한다.” (『어느 혁명가의 글』)

6/19

정병기_경기외교학과

2. 1968년을 전후한 상징적 사건과 인물



- Benno Ohnesorg: 베를린 대학생. 당시 아데나워 정부의 권위주의를 비판. 1967년 6월 이란 팔레비 국왕 방문 반대 시위 도중 경찰 총격에 의해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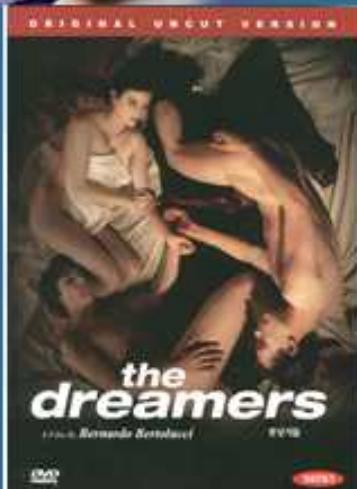
- Rudi Dutschke: 독일사회주의 학생 연맹 지도자, 1968년 4월 총격 사망. “오늘날 억압받는 자들은 무장 투쟁이라는 단 하나의 선택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 미래란 혁

혁명을 의미한다. 우리는 얼마나 더 오랫동안 우리의 이름으로 살 욕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야만 하는가?” (『자유를 위한 국제선언』)

7/19

정병기_증거의교과

2. 1968년을 전후한 상징적 사건과 인물



- 프라하의 봄 등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 사회주의 운동: 관료 사회주의적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 미국의 베트남전 반대 운동과 미스 아메리카 경연 대회 반대 운동
- 다양한 문화 예술 운동: ex) 누벨 바그(Nouvelle Vague: 1950년대 후반 ~ 60년대 초. 인간과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사실적이며 혁신적인 실존주의 감각)

<몽상가들>(The Dreamers): Bernardo Bertolucci, 2003. 1968년 파리를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열기, 사랑, 자유를 표현.

8/19

정병기_증거의교과

실패한 혁명인가?

1968
2부 실패한 혁명

00:56 05:04

일반화질(1M)

9/19

경쟁력_증거학교과

3. 68 혁명 운동의 비판과 공격의 대상

- ❖ 물질주의와 권위주의가 핵심 대상이지만, 68 혁명 운동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반권위주의” ex) 이탈리아 68운동의 공격 대상: 4P+1P - Padre(아버지), Prete(신부, 목사), Partito(정당), Padrone(주인), Professore(교수) (정병기 2007)
- ❖ 물질주의 소비 사회, 대의 민주주의, 거대 기업, 자본주의 기술, 전문가에 의한 지배, 베트남 전쟁(전쟁 일반은 아니나, 반전 반핵도 이 운동의 결과), 미디어에 의해 조종되는 사회, 교수(교사) 중심의 학교, 가부장적 가정, 남성 중심 사회
- ❖ 계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스타일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의미의 해방적 삶을 지향하는 반권위주의 의식임.

10/17

경쟁력_증거학교과



3. 68 혁명 운동의 비판과 공격의 대상

❖ 탈물질주의와 반권위주의는 일견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이는데, 이것은 자유 민주주의를 사회 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자유 시장과 능력 위주 생산 활동을 지향하기 때문임. 그러나 권위주의가 자본주의적 물질주의 사상과 결부될 때,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발전에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자본주의적 권리주의로 귀결됨. 이때 물질주의는 경제주의와 다른 바 없음. 따라서 68 혁명 운동이 제기한 권리주의 비판과 일상의 민주주의 요구는 물질주의 소비 사회에 대한 인식과 연결됨. 1960년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는 “억압에 의해 관리되었던 초기 자본주의와는 달리 조작에 의해 유지되는” (김누리 2001) 거대한 물질주의 소비 사회였음.

11/19

정봉래_증거학교학과



3. 68 혁명 운동의 비판과 공격의 대상

❖ 물질주의 소비 사회의 핵심 문제는 경제적 “착취” 라기보다 일상적 “소외”임 (Touraine 1966, 14-26). 그러므로 68 혁명 운동은 이윤 창출에 의존하는 자본주의 질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를 지양하려는 기존 사회주의 운동의 계급 환원론도 비판과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음 (강미화 1998, 66). 68 혁명 운동 참가자들은 소비 사회와 관리되는 삶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으며, 수동적 소비와 진부한 일상적 삶을 거부했음 (오제명 2006, 167). 탈물질주의 (postmaterialism)는 이러한 행동들을 근거 짓는 사고를 의미함.

12/19

정봉래_증거학교학과



4. 68 혁명 운동의 주요 구호

- ❖ “더 많이 소비하시오, 더 빨리 죽을 것이니!”
- ❖ “열정을 해방하라!” “나는 내 욕망의 현실성을 믿기 때문에 내 욕망을 현실이라 여긴다!”
- ❖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혁명한다. 더 많이 혁명 할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
- ❖ “우리는 굶어죽을 가능성이 있는 세계일지라도 권태로움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는 세계와는 바꾸고 싶지 않다!”
- ❖ “선거는 아무 것도 바꾸지 못 한다 - 투쟁은 계속된다” : 프랑스 68선거 포스터
- ❖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불가능하게 보일 뿐이다) “하나의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 *모두 Fraser 1999.

13/19

정병기_증거의교과



4. 68 혁명 운동의 주요 구호

- ❖ “상상력에 권력을!(모든 것을 상상력에게로)” : 인종 차별, 여성 차별 등의 철폐,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자유’
- ❖ 정치적 민주주의 확대 요구와 반자본주의 운동 강화에도 주의: 독일 함부르크의 한 교회의 권리에 대항해 학생들이 뿐만 주기도문

“우리의 자본이시여,
세상 세계에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투자가 임하옵시며,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월 스트리트에서도
이익을 내고 이윤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자본의 희전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채권자들에게 신용을 베푼 것처럼
우리의 신용을 늘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파산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노동조합의 위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 200년 동안 이 세계의 절반은 권세 있는 자들과
부유한 자들의 것이었사옵나이다.
아멘.” Ali & Watkins 2001, 60.

14/19

정병기_증거의교과

5. 68 혁명 운동 이후 부상한 새로운 인식과 사회 운동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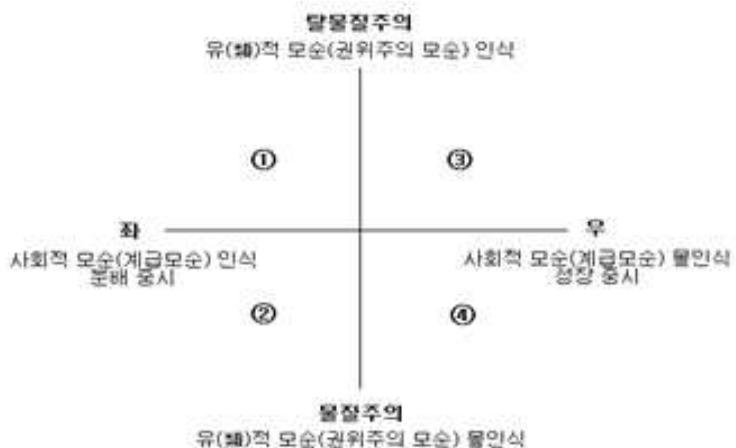
- ❖ 전후 복구 이후 물질적 풍요 속에서 성장한 젊은층들은 탈 물질주의 가치관을 보이며 새로운 갈등축을 형성
- ❖ 이들은 제국주의 모순(전쟁 모순), 가부장주의 모순, 문명 모순, 관료주의 모순 및 진화론 모순(인종차별, 장애인 차별)과 같은 인간적 모순을 주목.
- ❖ 노자모순이 자본주의적 계급 사회에 고유한 사회적 모순이 라면, 탈물질주의 세대가 주목하는 모순은 인간이라는 유(類)의 사회에 항상적으로 내재하는 유(類)적 모순.
- ❖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은 좌파 및 우파 진영에 공히 영향을 미쳐 좌우라는 물질주의 축을 가로지르는 탈물질주의 축을 형성. 좌파 진영이 고전적 좌파와 새로운 좌파로 분리되듯이 우파 진영도 탈물질주의 우파와 물질주의 우파로 나뉨.

15/19

정병기_증거의교과과

5. 68 혁명 운동 이후 부상한 새로운 인식과 사회 운동의 방향

68혁명운동 이후 새로운 갈등 구도



정병기, 2007.

16/19

정병기_증거의교과과

5. 68 혁명 운동 이후 부상한 새로운 인식과 사회 운동의 방향

68 혁명 운동 이후 새로운 갈등 구도와 사고 체계

| 사회적 모순 | | 계급 모순 | |
|----------|-------|------------------------|------------------------|
| 유(類)적 모순 | | 사회 경제 주의 | 시장 경제 주의 |
| 권위주의 모순 | 탈물질주의 | ① 새로운 좌파 (탈물질주의 좌파) | ③ 새로운 우파 (탈물질주의 우파) |
| | 물질주의 | ② 전통적 좌파 (물질주의 좌파) | ④ 전통적 우파 (물질주의 우파) |

↳ 자본주의 사회적 모순: 노자 계급 모순

↳ 유적 모순으로서 권위주의 모순: 가부장주의 모순, 문명 모순, 관료주의 모순, 제국주의 모순(전쟁 모순), 진화론 모순

정병기, 2007.

정병기_김자희교과

6. 68 혁명 운동과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



➤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생산 현장의 민주주의 (손호철 2006, 71-75)

- ❖ 68 혁명 운동은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생산자 민주주의에 대한 전통적 요구에서 멈추지 않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요구.
- ❖ 한국의 촛불 집회와 비교 가능: 한국에서는 사회 복지 결여와 권력 부패로 인해 사회 복지 확대라는 물질주의 주장, 곧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주장이 강하고, 탈물질주의 요구 중에서는 관료적 권위주의 비판에 집중.

18/19

정병기_김자희교과



참고문헌

- 강미화, 1998, “독일 68 운동의 의미와 유산,” 『경제와 사회』 등권 제37호(비판사회학회).
- 김누리, 2001, “68 혁명과 현대 독일 문학 - 70년대 문학의 경향 전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독어교육』 제21집(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 손호철, 2006, 『해방 60년의 한국 정치: 1945-2005』, 서울: 이매진.
- 오제명 외, 2006, 『68, 세계를 바꾼 문화 혁명: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울: 길.
- 정병기, 2007,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혁명과 반혁명: 68 혁명 운동의 의미와 교훈,” 『21세기 자본주의와 대안적 세계화』, 서울: 문화과학사.
- Ali, Tariq and Susan Watkins, 2001, 『1968: 희망의 시절, 분노의 날』, 안창수·강정석 역, 서울: 삼인.
- Fraser, Ronald, 1999, 『1968년의 목소리』, 안효상 역, 서울: 박중철 출판사.
- Katsiaficas, George, 1999, 『신좌파의 상상력: 세계적 차원에서 본 1968』, 이재원·이종태 역, 서울: 이후.
- Touraine, Alain, 1966, *La Conscience Ouvrière*, Paris: Editions de Seuil.

제1분과 : 68혁명과 문학

- 68혁명과 사르트르의 지식인관 변모 / 변광배
- MLF와 프랑스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탄생 / 강초롱
- 르 클레지오의 <혁명>에 그려진 1968년의 파리와 멕시코 / 오보배

68혁명과 사르트르의 지식인관 변모*

변광배 (한국외대)

I. 시작하며

사르트르와 프랑스 68혁명(이하 68혁명) 사이의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어느 정도나 하면 68혁명이 “사르트르의” 혁명(révolution ‘sartrienne’)¹⁾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참여지식인(l'intellectuel engagé)²⁾이라는 칭호에 걸맞게도 그는 혁명 발발부터 이 혁명에 깊이 관여했으며, 특히 혁명 주축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을 계속 지지했습니다. 그가 이 혁명의 주역 중의 한 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는 듯합니다.³⁾

또한 사르트르는 그의 후기 사상이 집대성된 『변증법적 이성비판(Critique de la raison dialectique)』(1960)을 통해 68혁명을 ‘예언했다(prophétiser)’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⁴⁾ 이런 평가는 특히 ‘60년대 중후반 맹위를 떨쳤던 ‘구조주의(structuralisme)’와의 논쟁에서 그가 일시적으로나마 승리를 거두었다는 평가로도 이어집니다. 68혁명 밑에는 “구조주의 사망진단서(l'acte de décès du structuralisme)”⁵⁾가 놓여 있고, 1964년에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부한 후 파리 인텔리겐차의 무대에서 “‘한물간’ 사람(un has-been)”⁶⁾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그가 이 진단서를 들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일대 ‘반격(revanche)’⁷⁾을 개시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가 68혁명을 계기로

* 이 발표문은 2018년 5월 18-19일 연세대에서 프랑스철학학회 주최로 ‘철학, 혁명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68혁명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 뒷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Epistémon, *Ces idées qui ont ébranlé la France*, Fayard, 1968, p. 76. (Michel Contat & Michel Rybalka, *Les Ecrits de Sartre*, Gallimard, 1970, p. 461에서 재인용. 이하 이 책은 LES로 약기.); 영어권에서는 “Sartrian rebellion”이라고 표현한다.(Ronald Hayman, *Sartre. A Life*, Simon and Suster, 1987, p. 415.)

2) 가령, 시인 오디베르티(J. Audiberti)는 ‘참여지식인’으로서의 사르트르의 모습을 “지성의 전 방위에 있었던 밤의 감시자이자 거대한 일꾼(Tâcheron énorme, veilleur de nuit présent sur tous les fronts de l'intelligence)”으로 규정하고 있다.(LES, p. 11.)

3) 프랑스의 한 잡지가 이 혁명 주역들의 서열을 매긴 적이 있다. 혁명 찬동자들은 물론 반대자들의 서열도 매겼다. 찬동자들 중 사르트르는 네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그의 앞에는 다니엘 콘 벤디트(Daniel Cohn-Bendit), 알랭 제스마르(Alain Geismar), 자크 소바조(Jacques Sauvageot)가 있을 뿐이다. 반대자들 중에서는 모리스 그리모(Maurice Grimaud) 파리 경찰서장,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 조르주 풍피두(Georges Pompidou) 총리, 국가보안대(CRS) 순으로 서열이 매겨졌다는 점을 지적하자.(Cf. “Les acteurs de Mai 1968”, *Le Nouvel Observateur*, publié le 27 mars 2008 à 13h 09m.

<http://tempsreel.nouvelobs.com/societe/le-quotidien-de-1968/20080306.OBS3786/les-acteurs-d-e-mai-68.html>)

4) Epistémon, *op. cit.*, p. 76. (LES, p. 462에서 재인용.)

5) *Ibid.* (LES, p. 461에서 재인용.)

6) Annie Cohen-Solal, *Sartre 1905-1980*, Gallimard, coll. Folio/Essais, 1985, p. 745.

7) Cf. François Dosse, “Mai 1968 ou la revanche de Sartre”, in *Philosophie magazine*, mise en page le 27/03/2008.

마치 ‘산소호흡기’라도 찬 듯이 과거의 위상과 영광 –그도 한때 “건드릴 수 없는 사람(L'intouchable)”⁸⁾이었습니다! – 을 일시적으로 되찾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 우리가 표명하는 관심은 68혁명에서 사르트르가 보여주었던 구체적인 참여 양상, 과정, 방식 등에 있지 않습니다.⁹⁾ 그보다는 오히려 그가 이 혁명으로부터 받은 영향, 그 중에서도 그의 ‘지식인관’의 변모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사르트르는 1965년 일본 방문 중에 했던 세 차례의 강연을 모아 놓은 그 유명한 『지식인을 위한 변명(Plaidoyer pour les intellectuels)』(이하 『지식인』)에서 ‘지식인’에 대해 그 나름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지식인’은 프티 부르주아계급 출신으로 부르주아계급과 프롤레타리아계급 사이에 끼여 “자기에게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는 자(quelqu'un qui se mêle de ce qui ne le concerne pas)”¹⁰⁾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이와 같은 정의를 68혁명 이전에 활동한 이른바 ‘고전적 지식인(l'intellectuel classique)’에 적용시키고 있고, 혁명 이후에는 ‘새로운 지식인(le nouvel intellectuel)’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올해로 빌발 50주년을 맞는 68혁명에서 ‘참여지식인’으로 활발하게 참여한 사르트르의 ‘지식인관’이 이 혁명을 전후해서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끝에서 그가 결국 ‘지식인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II. 68혁명 이전: ‘고전적 지식인’

사르트르의 화려한 이력서의 한 자리에는 항상 ‘지식인’이라는 직함이 짹혀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평생 ‘지식인’으로 꼭넓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에 대해 그 자신의 견해를 소상히 밝힌 것은 비교적 늦은 1965년의 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식인에 대해 간헐적으로 언급하기 했습니다. 하지만 지식인에 대한 견해를 본격적으로 밝힌 것은 1965년에 일본을 방문해 가진 세 차례의 강연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강연문 전체는 『상황(Situations, VIII)』 제8권(1972)에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제목은 ‘지식인이란 무엇인가(Qu'est-ce qu'un intellectuel?)’이고, 두 번째 강연 제목은 ‘지식인의 기능(Fonction de l'intellectuel)’이고, 세 번째 강연 제목은 ‘작가는 지식인인가(L'écrivain est-il un intellectuel?)’입니다. 세 번째 강연은 작가와 지식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논거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앞의 두 강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르트르가 일본을 방문해서 했던 강연의 전체 내용을 『상황』 제8권에 수록하면서 일종의 ‘서문’을 썼는데, 그가 이 서문에서 ‘68혁명’이 자신의 지식인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¹⁾는 사실입니다.¹²⁾ 그의 지적에 의하면 일본에서 했던 강연에

http://www.philomag.com/les-ides-grands-auteurs-mai-68-ou-la-revanche-de-sartre-4423

8) 안니 코엔 솔랄이 사용한 표현이다. 이 표현은 그녀가 쓴 *Sartre, 1905-1980*이라는 제목이 붙은 평전의 한 장(章)의 제목이기도 하다.

9) 앞서 언급한 프랑스철학학회에서의 발표 내용의 앞부분은 『프랑스학연구』 제85호(2018, 여름)에 「사르트르와 68혁명 (I): 두 가지 형태의 참여」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또한 전체 발표 내용은 『철학, 혁명을 말하다』(이학사, 2018. 10)에 출간되었다.

10) Jean-Paul Sartre, “Plaidoyer pour les intellectuels”, in *Situations, VIII*, Gallimard, p. 1972, p. 377. (이하 SVIII로 약기.)

11) *Ibid.*, pp. 373-374.

12) 일본에서 했던 강연 내용과 『상황』 제8권에 수록된 내용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한 것이어서 여기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서 피력된 지식인관은 ‘고전적 지식인’에게 적용되며, 68혁명 이후에는 이런 지식인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상황』 제8권에 실려 있는 강연 내용을 토대로 그의 ‘고전적 지식인’에 대한 견해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변화된 지식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르트르는 1965년 일본 방문 중에 했던 첫 번째 강연에서 ‘지식인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작업, 곧 지식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 작업에서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지식인이 지배계급(부르주아지/유산계급)과 피지배계급(프롤레타리아트/무산계급)의 중간계급(프티부르주아지)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출신계급의 문제로 인해 지식인은 두 계급으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못한 채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예비적 지적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지식인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지식인’과 ‘실천적 지식 기술자(technicien du savoir pratique)’(이하 TSP)를 구별합니다. TSP는 자기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실용 지식을 쌓은 자입니다. 과학자, 의사, 교수, 언론인, 법조인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물론 모든 TSP가 ‘지식인’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지식인이 이들 TSP에서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TSP는 일종의 “잠재적 지식인(intellectuel en puissance)”¹³⁾인 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프티부르주아 출신인 TSP들은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익히는 과정, 또 그것을 이용하고 응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속한 사회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 사르트르의 주장입니다. 대체 어떤 모순일까요?

문제가 되는 모순은 ‘보편성(universalité)’과 ‘특수성(particularité)’ 사이의 모순입니다. 사르트르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TSP들은 자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전문 지식과 기술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인류 전체와 그들이 소속된 사회 전체를 위해 유용하다는 생각, 곧 휴머니즘적 사유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의사가 전문 의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경우, 이 지식과 기술을 누구에게나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 의료 지식과 기술 자체가 사람의 귀천을 가리지는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무기 전문기술자가 위험한 무기를 개발해낸 경우에도, 이 무기가 애초에는 인류 전체의 평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금 예로 든 의사나 무기 전문기술자는 자신들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각자 습득하고 개발해낸 의료 기술과 지식, 무기가 그들을 키워주고 교육시켜준 계급, 곧 그들이 속한 사회의 지배계급의 개별적 이익과 특권에 주로 봉사를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 사르트르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각으로 인해 이들은 다음과 같은 ‘모순’에 부딪치게 됩니다. 이들은 ‘보편성’을 띤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들 각자가 속해 있는 지배계급의 이익, 곧 ‘특수성’에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모순이 그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순은 그들 각자의 존재는 물론, 지배계급(또는 출신계급)과 피지배계급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불편한 의식(conscience malheureuse)’으로 이어지게 됩니다.¹⁴⁾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위한 보편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의 특수한 이익과 특권을 위해 일을 하게 된 TSP가 느끼게 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고민이 그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느끼고 불편한 의식을 갖게 된 TSP는 이른바 ‘탈(脫)계급(déclassement)’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 사르트르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탈계급은 다음의 두 가지 양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

13) *Ibid.*, p. 397.

14) Cf. “L'ami du peuple”, Interview publié par *L'Idiot International*, no 10, septembre 1970, in Jean-Paul Sartre, Bernard Pingaud, Dionys Mascolo, *Du Rôle de l'intellectuel dans le mouvement révolutionnaire*, Le Terrain vague, 1971, p. 10.

다. ‘상향 탈계급(déclassement par en haut)’과 ‘하향 탈계급(déclassement par en bas)’이 그 것입니다. 상향 탈계급은 중간계급(프티부르주아) 출신 TSP가 위에서 맡한 모순을 자각하고 불편한 의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¹⁵⁾ 그것으로 괴로워하는 대신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계속 이 계급의 ‘특수성’을 위해 동원하고 봉사하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사르트르의 절친 중 한 명이었던 니장(P. Nizan)의 표현대로 이런 TSP는 스스로 “집 지키는 개(chien de garde)”¹⁶⁾가 되고자 결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TSP가 참다운 의미의 지식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가짜 지식인(faux intellectuel)”¹⁷⁾인 것입니다.

하향 탈계급은 모든 면에서 상향 탈계급과 반대됩니다. 하향 탈계급을 시도하는 TSP는 위에서 맡한 모순과 불편한 의식을 온몸으로 끌어안고서 자기를 키워주고 교육시켜준 지배계급이 자행하는 억압과 폭력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또한 그 자신도 그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편성에 맞게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다시 말해 지배계급만이 아니라 피지배계급을 위해서도 그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향 탈계급의 경우에만 비로소 TSP는 참다운 의미에서 ‘지식인’으로 변모한다는 것이 사르트르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사르트르가 이렇게 규정한 지식인이 ‘고전적 지식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1965년 일본 방문 중에 했던 강연을 통해 사르트르는 지식인을 하향 탈계급을 시도하는 TSP, 곧 자기 내부에 있는 부르주아 근성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계급 없는 사회를 위한 투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TSP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사르트르는 TSP가 지식인으로 변모할 수 있는 요건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 아니 ‘고전적 지식인’은 그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가지고 동일한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피지배계급에 속한 자들을 돋거나 또는 어느 정도 그들을 ‘리드’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입니다.¹⁸⁾ 다시 말해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자들에 대한 ‘고전적 지식인’의 우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68혁명을 거치면서 사르트르의 이와 같은 ‘고전적 지식인’관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III. 68혁명 이후: ‘새로운 지식인’

68혁명이 진행되는 과정과 관련된 한 노동자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사르트르의 ‘새로운 지식인’상을 살펴보는데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언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우리와 그들[=학생들]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었지만 그들의 주장은 명료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이 처음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낯선 세계에서 온 이상한 동물 같았다.¹⁹⁾

15) 모든 TSP가 이와 같은 모순과 불편한 의식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이런 상태에서 이 TSP는 결코 지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16) SVIII, p. 408. (Cf. 그람시에 따르면 이런 TSP는 ‘상부구조의 하급 기능인(fonctionnaires subalternes des suprastructures)’ 또는 ‘헤게모니의 봉사자(serviteur de l'hégémonie)’로 여겨진다.)

17) *Ibid.*

18) 사르트르의 이런 생각과 그람시에 의해 규정된 이른바 ‘유기적 지식인(l'intellectuel organique)’ 양성의 어려움 내지 불가능성이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피지배계급은 자기 계급을 대변하는 지식인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이 어렵고 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9) Lucien Rioux & René Backmann, *L'Explosion de Mai*, 1968, p. 281.(크리스 허먼, 『세계를 뒤

위의 인용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68혁명 당시 학생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목표, 관심사, 이해 관계가 현저하게 달랐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이 ‘학생들’, 그것도 자신들을 ‘엘리트’로 여기면서 스스로 지식인임을 자처하는 학생들이 시도한 이른바 하향 탈계급에 대한 ‘불신’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프티부르주아계급 출신 ‘학생-지식인들’이 마치 신발끈을 매면서 허리를 굽혀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행동을 결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배계급에 속하는 자들이 지식인들에 대해 자신들을 배반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과 대조됩니다. 어쨌든 학생들, 학생-지식인들, 지식인들이 노동자들과 연대를 도모하면서 68혁명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특히 노동자들 측에서 발견되는 불신이 늘 존재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학생-지식인들’의 ‘자기기만(mauvaise foi)’이라는 것이 사르트르의 주장입니다. TSP에서 지식인으로 변모한 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TSP인 ‘나’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에서 불편한 의식을 느낀다. 2) 이런 면에서 ‘나’는 불편한 의식을 느끼지 못한 다른 TSP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3) ‘나’는 불편한 의식을 느낀 후에 상향 탈계급이 아니라 하향 탈계급을 한다. 4) 피지배계급에 속한 자들로부터 ‘나’를 불신하는 시선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집지키는 개들’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따라서 떳떳하다. 5) 게다가 ‘나’는 전문 지식과 기술, 그리고 명철한 정신으로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자들을 도울 수도 있고, 또 그들을 리드할 수 있다.

지식인들의 머릿속에 끌리를 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생각이 그들의 자기기만의 소산이라는 것, 사르트르는 68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전적 지식인’은 그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갖는 보편성과 이 지식과 기술이 봉사하는 지배계급의 ‘특수성’ 사이에서 모순과 불편한 의식을 느끼는데 만족하는 반면, 이제 68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이 나타난 지식인(‘새로운 지식인’입니다)은 이런 모순과 불편한 의식을 넘어서서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자들(‘민중(peuple)’입니다)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그들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르트르가 이런 사실을 깨우치게 된 것은 68혁명을 거치면서 주로 만났던 ‘마오주의자들(maoïstes)’의 영향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²⁰⁾ 그러니까 이들 마오주의자들에 의하면 사르트르가 규정하고 있는 ‘고전적 지식인’은 민중과 ‘함께(avec)’ 있기는 하지만, 참다운 의미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기는커녕, 그들 위에 군림하고, 또 그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주면서 리드하는 엘리트인데 반해, ‘새로운 지식인’은 모든 전문 지식과 기술을 부르주아적 특수성으로 규정하고, 문자 그대로 민중 ‘속에(dans)’ 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 생활하고 활동하는 자로 규정됩니다.²¹⁾

흔든 1968』, 책갈피, 이수현 옮김, 2004, p. 155에서 재인용.)

20) 사르트르의 지식인관의 변모에서 68혁명 이후의 마오주의자들과의 교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오늘 발표에서는 이런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 그 긴밀성만을 지적하고, 그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들의 관계는 그 양상, 범위, 복잡함, 의의 등의 면에서 독립된 주제로 손색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만간 이 문제도 다룰 것이다.

21) 여기서 우리는 ‘함께(avec)’와 ‘속에서(dans)’라는 단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사르트르와 68혁명 사이의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곧 그의 참여의 의의와 한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연구자의 주장에 따르면 68혁명 당시 63세였던 사르트르는 학생들의 열렬한 “지지자(supporter)”(Denis Berthlot, *Sartre, Perrin, coll. Tempus*, 2000, p. 500.)이자 그들의 “영웅(héros)”(Michel Winock, *Les Siècles des intellectuels*, Seuil, coll. Points, 1999, p. 704.)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였지만, 결코 그가 그들 ‘속으로’ 녹아들지는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Ibid.*, pp. 702-703.) 그런데 이와 같은 평가는 그대로 68혁명 이후에 볼 수 있는 사르트르의 지식인관의 변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학생이 공장에 들어가 노동자들과 함께 몇 년씩 노동을 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익히고,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과 완전히 동등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68혁명에 참가했던 한 노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의 눈에 비친 학생들이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 “낯선 세계에서 온 이상한 동물”처럼 보였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정확히 68혁명 이후에 이와 같은 ‘고전적 지식인’상을 완전히 일소하면서 ‘새로운 지식인’상을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르트르는 68혁명에 관여하면서 ‘행동가’, ‘투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르트르가 이 혁명에 참여한 방식은 ‘말(mots)’이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주로 신문, 방송, 잡지 등과의 인터뷰, 또 소르본 강당에서 학생들 앞에서 했던 강연 등을 통해 68혁명에 참여했던 것입니다.²²⁾ 물론 그가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그 당시 그가 63세로 학생들과 같이 혁명에 직접 참여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던 탓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68혁명의 영향으로 새로이 정립된 지식인상에서 보면, 그의 이런 참여는 전형적인 ‘고전적 지식인’의 참여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8혁명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사르트르는 그저 자신의 “명성의 무게(le poids de sa notoriété)”²³⁾만을 학생들에게 실어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만큼 “프롤레타리아에게 ‘말하는’(‘parler’ au prolétariat)”²⁴⁾ 사람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68혁명 이후의 ‘새로운 지식인’관에서 보면 ‘말’, 즉 ‘고전적 지식인’의 전문 지식과 기술의 표현을 가능케 해주는 수단으로서의 ‘말’을 지배계급에게서 배우고 익히는 행위 및 방식 자체가 이미 ‘특수적’입니다. “1950년의 고전적 지식인은 수학이 완전히 보편적 지식이라고 믿었던 사람이다. 그는 수학을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이 보편적일 수 있지만, 그것을 배우는 방식 자체가 이미 특수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²⁵⁾

이처럼 사르트르는 68혁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전적 지식인’은 자신의 ‘말’을 통해 불편한 의식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불편한 의식을 떨쳐내고 “편안한 의식(bonne conscience)”²⁶⁾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렇듯 68혁명을 거치면서 ‘고전적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위선성, 곧 ‘자기기만’을 일소하고 ‘새로운 지식인’상을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지식인이 민중을 선택한다면, 그는 서명, 시위, 저항을 위한 조용한 모임, ‘개혁적’ 신문에 게재되는 기사들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²⁷⁾

IV. 마치며

사르트르의 사유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아마 ‘실존(existence)’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그 동시형인 ‘실존하다(exister)’는 ‘-로부터(eks-)’와 ‘있다(sistere)’의 합성어입니다. 그런 만큼 ‘실존’에는 항상 운동, 움직임, 변화 등이 수반됩니다. 사르트르 역시 인간의 삶은 ‘죽음’에 의해 멈추게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삶의 여정은 비극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창조(se créer), 자기 기투(se projeter), 자기 만들기(se faire) 등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삶이란 낙관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역동적이고 능동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22) Cf. 졸고, 「사르트르와 68혁명(I) : 참여의 두 가지 양식」, 『프랑스학연구』, 제85호, 2018.

23) LES, p. 465.

24) “L’ami du peuple”, in *op. cit.*, p. 19.

25) *Ibid.*, pp. 15-16.

26) *Ibid.*, p. 15.

27) Jean-Paul Sartre, “Justice et Etat”, in *Situations, X*, Gallimard, 1976, p. 55.

이에 걸맞게도 사르트르의 평생의 반려자였던 보부아르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자기 자신을 의문에 부치는(se remettre en question)”²⁸⁾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노력은 68혁명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이 혁명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 그 자신의 사유와 행동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개입했고 또 깊은 영향을 받기도 했던 68사건은 그에게 또 다른 궤도 수정의 기회였다.”²⁹⁾

보부아르의 이런 증언은 그대로 사르트르의 지식인 개념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8혁명 이전에 ‘행동’, ‘실천’보다는 ‘말’을 중심으로 한 참여를 택했던 ‘고전적 지식인’관에서 민중, 노동자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그들 ‘속에’ 완전히 용해되어 그들과 ‘하나’가 되는 ‘새로운 지식인’관으로의 변화가 그 것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사르트르의 이와 같은 지식인관의 변모에는 ‘지식인’ 개념의 ‘소멸’이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민중과 노동자계급과의 관계에서 ‘고전적 지식인’이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자기기만’의 위선성을 분쇄하기 위해,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 투쟁,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고전적 지식인’의 ‘위에서 아래로의 리드’가 아니라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낮은 태도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그것입니다.

사르트르는 68혁명 이후에 이와 같은 태도로 마오주의자들과 활발한 사회 투쟁을 전개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르트르가 ‘젊음’을 연장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천적 과정에 심취해 그 당시 아른바 ‘68세대(les soixante-huitards)’로 지칭되는 프랑스 철학의 황금 세대의 사유³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뒷전으로 물러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마 그로 인해 사르트르는 1945년 해방을 전후해 들뢰즈를 포함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신선한 바람(le courant d'air)”³¹⁾의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초기의 신선함을 잃어버린 결과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에게서 ‘죽음’은 ‘더 이상 자신을 변화시킬 수(se métamorphoser)’ 없는 상태로 규정됩니다. 정확히 이런 의미에서 사르트르는 비록 68혁명 후에 새로운 지식인상을 제시하는데 성공했다고 해도, 그 대가로 그의 사유의 ‘혁신적 변화(changement innovateur)’라는 측면에서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르트르가 마오주의자들과 행동했지만 플로베르론을 집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의 플로베르론이 68혁명 이후 새로운 사유의 동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³²⁾

28) Simone de Beauvoir, *La Cérémonie des adieux* suivi de *Entretiens avec Jean-Paul Sartre, Août-Septembre 1974*, Gallimard, 1981, p. 15.

29) *Ibid.*

30) Cf. Luc Ferry & Alain Renault, *La Pensée 68 : Essai sur l'anti-humanisme contemporain*, Gallimard, coll. Le monde actuel, 1985 등을 볼 것.

31) Gilles Deleuze & Claire Parnet, *Dialogues*, Flammarion, 1977, pp. 18-19.

32) 68혁명 이후, 사르트르가 마오주의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플로베르론 『집안의 천치(L'diot de la famille)』를 집필하는데 노력을 집중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사르트르가 이를 저서를 집필하면서 다양한 인문적 사유, 연구 방법 등을 실험 적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의 노력 속에 그 당시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68혁명 이후 세대 철학자들의 사유에 대한 성찰, 비판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이 저서에 나타난 사르트르의 여러 사유와 새로운 세대 철학자들의 사유 사이의 관련성은 향후 흥미 있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LF와 프랑스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탄생 :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접근 방식에 대한 크리스틴 델피의 비판을 중심으로

강초롱 (서울대학교)

서론

68혁명 전후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어 1970년대 후반까지 프랑스 사회를 휩쓴 《여성해방운동 Le Mouvement de Libération des Femmes》은¹⁾ 현대 프랑스 사회의 모습을 바꿔놓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가부장제의 근본적 해체 및 성평등의 가치를 내걸고 이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혁명적인 요구는 가부장제의 권위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던 프랑스 사회의 전반적인 풍경을 단시간 만에 뒤흔들어 놓았다. 비록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급격한 쇠퇴기에 접어들기는 하지만,²⁾ MLF가 일으킨 여성주의적 지각변동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의 국가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프랑스인들의 일상 곳곳에서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부장제의 철폐와 관련하여 MLF는 무엇을 주장했는가? 이는 크게, 사회 구조의 변혁과 사유 체계의 변혁,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되며, 둘 중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었는가에 따라 MLF 내부는 두 가지 진영으로 나뉜다. 우선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외친 진영에 속한 이들은 기본적으로 성을 구분짓는 모든 특징, 그리고 그러한 구분에 입각한 성적 조건 및 성적 경험과 관련된 모든 담론이, 가부장제가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constituer’ 허구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하여 이들은 진정한 여성해방 및 성평등은 이러한 허구의 담론을 양산해 온 가부장제의 해체를 통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가부장제를 실질적으로 지탱해 온 현실 세계의 물적 토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여성해방운동 참가자들의 절대 다수가 이 진영의 입장을 표방했을 만큼, 가부장제 속에서 겪어 온 억압적 현실이야말로 당시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분쇄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유 체계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진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진영은 전자의 진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를 이룬, 《정신분석과 정치 la Psych et Politique》라는 계열에 속한 운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성 억압의 근본적 원인이 개개인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남성중심적 사유 구조에 있다고 보았던 이들은 상

-
- 1) 196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프랑스 내에서 벌어졌던 여성해방운동과 같은 시기에 서구권 전체에서 전개되었던 여성해방운동을 구분하여 지칭하기 위해, 프랑스의 여성해방운동은 MLF, 그리고 후자는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용어로 표기하기로 한다.
 - 2) MLF가 7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쇠퇴하게 된 원인은 크게 MLF의 개량주의화 및 페미니즘의 학문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징체계의 변혁을 투쟁의 근본적인 대상으로 설정했다. 그에 따라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현실 세계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변혁시키는 것이 아닌, 개개인이 내재화하고 있는 남성중심주의적 사유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문화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낙태 합법화 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열의 여성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동참 속에 본격화되었던 MLF 초반, 즉 1971년부터 1973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 이 두 진영은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다가 1974년을 기점으로 하여 투쟁 대상 및 노선에 있어서의 입장차로 인해 두 진영 간에는 대립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후 MLF의 주도권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분쟁을 벌인 결과, 197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둘은 서로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만다.³⁾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현대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미국 여성학자들 및 이들의 관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한국 여성학자들 사이에서, MLF에 참여했던 이들의 절대 다수가 속해 있던 전자에 대한 관심이 후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이다. 국내 학계만을 놓고 보자면, 이들에 대한 관심은 빈약의 수준을 넘어서 무관심의 수준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실제로 페미니즘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199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을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거나, 이를 방법론으로 하여 문화 현상 또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국내 연구물 대부분은, 후자의 진영을 대표하는 이론가 삼인방인 젤리아 크리스테바 Julia Kristeva, 엘렌 식수 Hélène Cixous, 그리고 릴스 이리가레 Luce Irigaray의 사상을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 전체를 대변하는 담론으로 소개해 왔다. 그리고 이는 전자의 진영이 발전시켜 온 페미니즘 담론이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의 커다란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야기하고 만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된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부터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의 한 축을 이루어 온, 사회 구조의 실질적 변혁을 요구하는 진영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MLF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이 진영을 대표하는 운동가이자 페미니즘 이론가로 잘 알려진 크리스틴 델피 Christine Delphy(1941-)가 제시한 “유물론적 페미니즘 le féminisme matérialiste”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보고자 한다. MLF 당시 『혁명적 페미니스트 les Féministes Révolutionnaires』라 불리던 계열을⁴⁾ 대표하던 운동가인 델피는, 『제2의 성 Le Deuxième sexe』(1949)의 저자인 시몬

3) 본 논문의 목적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는 만큼 여기에서는 이들 사이에 왜 분쟁을 벌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Christine Delphy, "The invention of French Feminism : An Essential Move", in *Yale French Studies - Another Look, Another Woman : Retranslations of French Feminism*, n° 87, Yale University Press, 1995, pp. 190-221; Claire Moses, "Made in America : 'French Feminism' in United States Academic Discourse", dans *Australian Feminist Studies*, vol. 11, n° 23, 1996, pp. 17-31; 강초롱,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이 직면한 현실 (1) - 미국산 프랑스 페미니즘의 탄생과 확산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77호, 2015, pp. 311-355 참조.

4) MLF에 참여했던 이들이 투쟁의 기반으로 삼았던 방법론 및 투쟁 노선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이들의 경향은 크게, 『계급투쟁 la Lutte de classe』, 『혁명적 페미니스트』, 그리고 『정신분석과 정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계급투쟁』은 막스주의의 틀 안에서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사회적·정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갔던 이들로 이루어진 계열이다. 이 계열에 속한 운동가들은 여성 억압의 근본적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다고 보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여성해방을 이루고자 했다. 이 계열에 속한 단체들은 막스주의 성향의 전통적인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에 따라 다른 계열을 표방한 단체들에 비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좀 더 조직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좀 더 경직된 체제하에 투쟁을 벌여나가는 경향을 보이곤 했다. 『혁명적 페미니스트』는 가부장제 내에서는 모든 여성이 같은 사

드 보부아르 Simone de Beauvoir가 가장 흥미로운 프랑스 페미니즘 이론가라고 평했을 만큼,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의 발전사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들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델피의 유물론적 페미니즘이 지난 중요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페미니즘 담론의 형성에 있어서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 le féminisme marxiste classique’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여성해방운동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의 한계와 위험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몇 안 되는 시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이 추상적인 사유 체계로서만 회자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이 지난 실천적 담론으로의 측면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델피의 유물론적 페미니즘이 지난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번 연구가 지난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목적하에 진행된 이번 연구의 첫 번째 결과물에 해당하는 본 논문에서는 델피가 70년대에 걸쳐 발표한 주요 논문들을 중심으로,⁵⁾ MLF 당시 그녀가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틀에 입각하여, 사회 구조의 변혁을 함께 외치던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한계를 어떻게 비판했는지, 그리고 여성 억압과 관련된 문제설정을 어떻게 새롭게 제시하고자 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프랑스의 유물론적 페미니즘에 대해 미국 및 국내 학계가 무관심을 보이게 된 이유에 대해 고찰해보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델피가 여성 억압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유물론적 페미니즘이라는 틀에 입각해 여성 억압의 원인에 대한 차별화된 고찰을 어떻게 선보이고 있는지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본론

1. 유물론적 페미니즘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

1970년대 프랑스 MLF의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사회 변혁 운동 진영에 대한 미국 및 국내 학계의 빈약한 관심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우선

회적 계급에 속한다고 보는 관점하에 가부장제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급진적인 투쟁을 전개했던 운동 가들이 속한 계열이었다. 이들은 《계급투쟁》계열에 속한 운동가들과 달리 조합 또는 단체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투쟁 방식을 거부했으며, 투쟁 방식과 노선의 선택을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곤 했다. 그리고 이러한 유연성은 MLF에 참여했던 이들의 절대 다수가 이 계열에 대한 지지를 보내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혁명적 페미니스트》에 속한 이들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여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 먼저다 D'abord pour les femmes”라는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마지막 계열로는 앞서 설명한 바 있는 《정신분석과 정치》을 들 수 있다. 《계급투쟁》과 《혁명적 페미니스트》가 사회 구조의 변혁을 추구한 진영에 속했다면, 《정신분석과 정치》는 사유 구조의 변혁을 주장한 진영의 주축을 담당했다. Françoise Picq, *Libération des femmes: Les années-Mouvement*, Seuil, 1993, pp. 190-198 참조.

5)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델피가 발표했던 주요 글들을 모아 놓은 책 두 권이 실렙스 Syllepse 출판사에서 1998년과 2001년에 각기 출간되었는데, 『주적 1 : 가부장제의 정치경제 L'ennemi principal 1 : Économie politique du patriarcat』와 『주적 2 : 젠더를 생각하다 L'ennemi principal 2 : Penser le genre』가 그것이다. 1권에는 70년대에 걸쳐 발표된, 여성 억압을 야기해 온 가부장제의 정치경제적 구조에 대한 분석을 담은 글들이 실려 있으며, 2권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고찰을 담은 80년대에 쓰인 글들이 실려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1권에 실린 글들을 중심으로 델피의 고찰을 살펴보자 하며, 2권에 실린 글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첫 번째 원인은 이론 구축에 대한 사회 변혁 운동 진영의 경계심에서 찾을 수 있다. MLF의 열성적인 참가자이자 역사학자인 프랑수아즈 피크 Françoise Picq의 증언에 따르면, 이 진영의 운동가들 사이에는 자신들의 투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이론에 대한 무관심보다는 이론 중심의 투쟁이 내포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었다. 이 진영에서 활동했던 이들 가운데 MLF가 본격화되기 전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할 이론적 틀을 정립하기 위한 작업에 참여했던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내에서 1960년대는 문학 및 사회학 분야에서 “여성의 상황 la condition féminine”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이 활성화되었던 시기에 해당했다.⁶⁾ 마리 조제 송바르 드 로브 Marie-José Chombart de Lauwe, 안느 마리 로슈블라브 스펜레 Anne-Marie Rocheblave-Spenlé, 프랑수아즈 그로드 르리동 Françoise Guelaud-Leridon, 에블린 쉴로로 Évelyne Sullerot, 쥬느비에브 텍시에 Genenièvre Texier, 앙드레 미셸 Andrée Michel, 마들렌 길베르 Madeleine Guilbert 등 수많은 이들이 여성의 상황이란 것이 역사적 산물, 즉 사회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한 결과물을 쏟아냈다. 그랬던 이들이 MLF의 시작과 더불어 더 이상 이론적 분석이 아닌, 행동을 통한 사회 변혁 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이들이 이러한 선택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MLF를 “개인적인 것의 정치 la politique du personnel”로 구현하고자 했던 바람이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개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꾸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살하는 주된 요인으로 가부장제를 지목하고 그것의 완전한 해체를 추구했던 MLF 운동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개개인이 성 역할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성적 정체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한 명의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간주되었다.⁷⁾ 그에 따라 이들은 “개인적인 것의 정치”를 MLF의 주요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개개인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살하는 모든 추상적인 관념이나 이론을 거부하고자 했다. 이러한 바람은 이들로 하여금 “거리두기와 객관성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근거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당당히 내세우도록 했다. 나아가 이들을, 이론적 분석을 통해 여성 상황의 “점진적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가부장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여성의 상황의 “해체”를 추구하는 것을 MLF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설정하도록 이끌었다.⁸⁾ 그 결과, 사회 변혁을 위한 실천 투쟁을 중시하던 진영 내부에서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거대 담론을 생산해내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들 사이에는 여성의 상황이 가부장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의 산물이라는 점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만 존재했을 뿐이었다.⁹⁾

이러한 경향이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의 이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에서 이 진영의 목소리를 주변화시키는 데 일조했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진영의 운동가 모두가 여성의 상황에 대한 이론적 탐구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델피를 비롯한 몇몇 운동가들은 여성 문제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이론적 결과물을 생산하는 동시에, 그 결과물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특히 미국에서의 연구 경력을 쌓은 바 있는 델피의 경우, 영미권 페미니즘 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 및 논쟁을

6) Picq, *op.cit.*, p. 26 참조.

7) *Ibid.*, pp. 183-186 참조.

8) *Ibid.*, p. 175.

9) *Ibid.*, p. 27 참조.

통해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문제설정을 국제 여성학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유럽 페미니즘 학계를 비롯해 미국 맑스주의 여성학계 내에서 델피의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다. 나아가 비록 그녀의 이론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적은 없을지언정 국내 학계에서도, 여성 억압의 원인을 가부장제 체계와 자본주의 체계가 이중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이중체계론자”를 대표하는 이로 델피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첫 번째 이 요인만으로 이 진영에 대한 무관심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리는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이라는 무대에서 이 진영의 역할을 조연으로 격하하고자 했던 미국 여성학자들의 ‘의도’에서 이 진영에 대한 무관심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실제로《정신분석과 정치》가 만들어낸 페미니즘 이론을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의 전부인 것처럼 소개할 필요가 있었던 미국 여성학자들에 의해, MLF는 1980년을 기점으로 내용상에서 왜곡된 상태로 국제 사회에 소개되기 시작한다.¹⁰⁾ 즉 MLF가《정신분석과 정치》와는 다른 진영에 속해있던 여성운동가들의 주장과 투쟁 내용이 삭제된 버전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이 진영이 발전시킨 페미니즘 담론 역시 자연스럽게 국제 여성학계의 관심사에서 밀려나고 만다.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 미국 및 한국 여성학계에서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은 거의 대부분《정신분석과 정치》의 입장에 한정되어 논의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 계열의 이론가들이 첫째, 사유 구조의 변혁을 목적으로 한 문화 이론의 정립을 시도했다는 점, 둘째, 여성과 남성 간에는 부정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는 점, 셋째, 그리고 이러한 전제 하에 남성중심적 사유 구조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지닌 본질적 특성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은 이론을 꾸준히 양산해 왔다는 점, 이 세 가지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은 주로 ‘상징체계의 변혁을 목적으로 한 언어 혁명’ 이자 ‘성적 차이의 존중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는 차이의 페미니즘 le féminisme différentialiste’으로 회자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은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를 쇄신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우리는 델피의 유물론적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보는 작업이 이러한 쇄신에 이르는 한 가지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2. 여성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2-1. 페미니즘 지형도 내에서의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위치

페미니즘 지형도상에서 볼 때 델피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등장해 70년대를 전후로 하여 유럽으로 확산된 ‘급진적 페미니즘 le féminisme radical’ 진영을 대표하는 이론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델피의 유물론적 페미니즘은 여성 문제에 대한 60년대까지의 접근 방식 전반에

10) 미국 여성학계가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을 왜곡한 데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에 따른 무지함,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제 간 interdisciplinaire’ 연구 풍토의 부재에 따른 80년대 미국 여성학 연구에 있어서의 문학계의 패권주의, 외국 학문에 대한 미국 학계의 제국주의적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여성학계의 자기방어의 필요, 이렇게 4가지가 그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초롱, *op.cit.*, pp. 25-39 참조.

대한 급진적 페미니즘 진영의 문제의식을 기본적으로 공유한다.

앨리슨 제거 Alison M. Jaggar의 설명에 입각해 보자면,¹¹⁾ 미국에서 여성해방운동의 흐름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1960년대 당시, 여성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던 이들이 취했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보수주의자의 입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한 사회적 지위를 지니게 된 것이 남성과 여성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징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양성 간의 심리적 차이 및 불평등한 위계관계 모두가 그들이 지닌 생물학적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기에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이들의 주장은, 좁게는 ‘생물학결정주의 le biologiste’, 그리고 보다 넓게는 사회적 구성의 결과를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자연발생주의 le naturalisme’를 옹호하는 낡은 사상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받곤 한다.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을 거부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한 페미니즘적 접근을 시도한 최초의 흐름이자 우리의 논의상에서 두 번째 입장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주의 페미니즘 le féminisme libéral’이다. 17세기의 사회계약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19세기의 여성해방론자들 대다수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발전하여 20세기 중반까지 페미니즘 흐름을 주도한 경향에 해당한다. 이 입장을 표방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이성적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전제를 공유하고, 교육, 노동, 정치 영역에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남녀의 불평등한 위계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자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여성 문제에 대한 보수주의 진영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은 현대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남녀 사이에 선천적인 불평등이 있을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남녀 간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가부장제의 근본적인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까지 논의를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오늘날 이 진영의 결정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이러한 주장은 MLF 당시 차이의 페미니즘 진영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성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 진영을, 가부장제 내에서 남성들이 누리는 특권을 공유하려 하는 반페미니즘 집단이라 비난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보수주의의 논리를 거부하는 동시에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여성 억압의 근본적인 구조를 파악하고자 했던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맑스주의의 입장에 기반을 두고, 인간을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 구성체이자 사회를 비롯해 자기 자신까지도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구성자로 규정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억압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모든 억압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계급 간의 착취 구조로부터 기인한 결과로 본다는 점에서도 전통적인 맑스주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보수주의 진영의 생물학결정주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소수의 자본가가 사회적 부를 독점하고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없이 기회의 균등을 논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앵겔스의 분석에 입각하여 여성 억압이 사유 재산 제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았으며,¹²⁾ 그에 따라 공산주의 혁명의

11) 앨리슨 제거, 폴라 로덴버그 스트럴,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신인령 역, 풀빛, 1983 참조.

12) 주지하다시피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앵겔스는 사유재산 제도의 발생과 더불어 노동생 산 수단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즉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이 생겨났고, 이것이 계급 간의 착취와 억압의 근간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계급 관계는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운영 원리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산업사회는 이러한 착취 관

완수가 여성해방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델피가 속한 급진적 페미니즘은 여성 문제에 대한 이상의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지닌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본격화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여성 억압과 관련하여 급진적 페미니즘은 첫째, 여성 억압을 비롯한 모든 억압을 사회적 구성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둘째, 모든 피지배자 집단들 가운데에서도 최초의 피지배자 집단을 이루는 존재를 바로 여성으로 간주 하며, 셋째, 모든 억압들 가운데 여성 억압이야말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기 때문에 가부장제는 계급사회의 폐지와 같은 부차적 요인의 제거를 통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한다. 앞서 이야기한 한계점으로 인해 지지 기반의 대부분을 상실했던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대신하여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이 대세를 이루고 있던 1960년대의 상황에서, 급진적 페미니즘의 이러한 입장은 필연적으로 전통 맑스주의 진영과 이 진영이 첨예한 대립 관계를 형성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들은 자본주의 적 착취 구조야 말로 여성 억압의 근원에 해당하므로 여성해방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만이 완수될 수 있다고 보는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기본 전제를 거부하고,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은 계급투쟁과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 진영과 대립각을 이루었다.¹³⁾

델피의 유물론적 페미니즘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전제로 한다. 그녀는 특히 여성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현상에 대한 “몰역사적 a-historique” 접근 방식, “총체성 la globalité”에 대한 탐구가 지닌 이중의 위험을 간과한 태도, 사회 현상을 자연적인 산물인 것처럼 설명하려는 “자연발생주의”적 태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그녀의 비판 지점과 연결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지점에 대한 델피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그녀가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과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2-2.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과의 거리두기

MLF 초반에 해당하는 1970년대 초까지 프랑스 페미니즘 담론 형성을 주도한 것은 단연코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 진영이었다. 피크에 따르면 맑스주의는, 여성들로 하여금 “집단 투쟁”的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다는 점, 생산양식에 근거한 착취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 지점에서 페미니즘 담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다.¹⁴⁾ 우선 첫 번째 지점과 관련하여 맑스주의의 기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현

계가 가장 심화된 사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유재산 제도에 입각한 계급 간의 착취 관계의 탄생 및 발전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엥겔스는 남녀 간의 불평등한 위계 관계의 정립이 사유재산 제도의 출현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했다. 비단 맑스주의자 뿐만 아니라 『제2의 성』의 저자 보부아르를 비롯한 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엥겔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하여 여성 억압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했다.

13) 여성 억압의 원인에 대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이러한 통찰은 여성해방운동시기를 거치면서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 맑스주의적 접근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를 낳기도 했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사회주의 페미니즘 le féminisme socialiste’이라 불리는 진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진영은 전통 맑스주의가 정립한 사적 유물론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취하되 여성 억압의 또 다른 중추적 요인에 해당하는 가부장제적인 문화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도 주력함으로써,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핵심적 통찰을 맑스주의 방법론과 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맑스주의 적 계급론에 입각해 가부장제적 문화 제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진영과 급진적 페미니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하겠다. 앤리슨 제거, 폴라 로덴버그 스트럴, *op.cit.*, pp. 161-162 참조.

대 페미니즘의 시작을 알린 이론서로 MLF에 참여한 여성 모두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성의 집단 투쟁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¹⁵⁾ 『제2의 성』의 결정적인 한계로 지적하곤 했던 MLF 운동가들에게 맑스가 제시한 민중을 기반으로 한 혁명 투쟁론이, MLF를 집단 운동의 형태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방법론적 토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였다.¹⁶⁾

반면 여성 억압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서의 맑스주의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컸다.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축을 이룬 『계급투쟁』 계열의 여성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MLF 운동가들은 여성 억압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맑스주의가 지닌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가부장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여성해방을 노동해방의 틀 안에서만 논의했던 전통 맑스주의적 접근 방식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표출했다.¹⁷⁾ 『제2의 성』에서 여성해방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던 보부아르까지도 MLF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하고, 여성해방을 사회주의 혁명과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관점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했다. 나아가 훗날 그녀는 MLF야말로 자기 자신을 비롯한 다수의 여성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페미니스트로 거듭나게 된 역사적 계기에 해당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¹⁸⁾

델피는 MLF에 확산되어 있던 전통 맑스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가장 논리적이고도 명확하게 이론화한 이였다. 앞서 언급한 여성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이 지닌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델피의 비판은, 그녀가 왜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과 거리를 두려 했는지를 이

14) Picq, *op.cit.*, p. 29 참조.

15) 실제로 『제2의 성』에서 보부아르는 여성의 집단 투쟁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드러낸 바 있다 : “Les prolétaires disent 《nous》. Les Noirs aussi. Se posant comme sujets ils changent en 《autres》 les bourgeois, les Blancs. Les femmes - sauf en certains congrès qui resent des manifestations abstraites - ne disent pas 《nous》 (...) C'est qu'elles n'ont pas les moyens concrets de se rassembler en une unité qui se poserait en s'opposant. Elles n'ont pas de passé, d'histoire, de religion qui leur soit propre; et elles n'ont pas comme les prolétaires une solidarité de travail et d'intérêt”, Simone de Beauvoir, *Le Deuxième sexe I : Les faits et les mythes*, Gallimard, coll. 『Folio Essais』, 1993(1949), p. 21.

16) 이와 관련하여 피크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 “Au lendemain de Mai 68, le cadre théorique, l'univers intellectuel dans lequel baignent les militantes, c'est celui du marxisme. Elles émaillent leurs textes de références puisées dans le bagage culturel qui est commun aux militants de l'après-Mai : Engels, Bebel, Franz Fanon ou les leaders du 『Black power』 sont appelés à la rescoufle pour légitimer la lutte des femmes. Ils sevrent d'arguments dans les polémiques avec les militants. (...) Elles [les militantes du MLF] ne connaissent guère l'histoire du féminisme, mais elles s'inscrivent dans les luttes du peuple, par l'inmédiaire des femmes. (...) Le marxisme offre en effet une place légitime à la lutte des femmes.”, Picq, *op.cit.*, p. 28.

17) MLF의 원년이라 알려진 1970년, 뱅센느 Vincennes 대학에서 열린 공개집회 당시 배포된 다음의 전단지는 여성 억압 문제에 대한 전통 맑스주의적 접근 방식이 지닌 한계에 대한 MLF 운동가들의 비판의식을 함축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다 : “Qui fait la cuisine pendant qu'ils parlent de la révolution? Qui garde les enfants pendant qu'ils vont à des réunions politiques? Qui tape les stens pendant qu'ils rédigent et qu'ils organisent l'avenir? Qui prend des notes pendant qu'ils ont le micro? C'est nous, toujours nous!”, Tract d'appel à la réunion publique de Vincennes, mai 1970; Picq, *ibid.*, p. 31에서 재인용

18) Simone de Beauvoir, *Tout compte fait*, Gallimard, coll. 『Folio Essais』, 1978(1972), pp. 613-628 참조.

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만한 가치가 있다. 우선 첫 번째 태도에 대한 그녀의 비판 지점은 다음과 같다. 그녀에 따르면 가부장제는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모든 양상과 맞닿아 있는 하나의 총체”이기도 하다.¹⁹⁾ 이는 곧 가부장제가 시대에 따라 변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석기 시대의 가부장제와 오늘날의 가부장제가 다른 방식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따라서 델피는 지금, 여기에 혼존하고 있는 여성 해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세기를 건너 온 하나의 몰역사적인 a-historique 총체”로서의 가부장제가 아니라, 오늘날, 즉 현대 산업사회의 가부장적 시스템이 유지되는 특수한 원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델피가 가부장제를 애초에 작동케 한 과거의 원리를 무시해도 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 속에서 현재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몰역사적인 태도에 대한 경계의 차원에서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¹⁾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델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1만년 전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오늘날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억압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전통 맑스주의자들의 확신을 몰역사적인 것으로 비판하게 한다. 델피가 여성 억압이 시작된 역사적 근원을 찾는 작업에 힘을 쓴지는 않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경시가 아니라 몰역사적 태도와의 거리두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성 억압을 작동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원리를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과 다름없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델피는 총체성에 대한 탐구가 지난 이중의 위험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이러한 태도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그녀에 따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세우는 작업은 우선, 겉으로는 서로 달라 보이는 여러 현상들의 이면에 숨어 있는, 그것들을 초래한 공통의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한 이론이 만들어낸 개념이나 가설은 그 현상을 넘어 그 이면에 같은 메커니즘을 내포하고 있는 다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해서 생산된 이론으로 “총체적 설명”을 이끌어내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 이론을 가지고 모든 현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이론은 현상의 이면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설명 능력 le pouvoir explicatif”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평면적인 서술만을 가능케 하는 “서술 능력 le pouvoir descriptif”만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²²⁾ 즉 여성 억압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들 사이의 보편적 연결고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적 현상들이 지난 특수성을 제대로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노력 역시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델피는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당시의 대부분의 이론들이 이러한 이중의

19) Christine Delphy, “Préface”, dans *L'ennemi principal 1 : Économie politique du patriarcat*, Syllepse, 2013, p. 18.

20) *Ibid.*

21) 이는 델피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Beaucoup de gens croient que quand on a retrouvé dans le passé la naissance d'une institution, on possède la clé de son existence actuelle. En réalité on n'a expliqué ni son existence actuelle, ni même son apparition passée. (...) Certaines explications qui se veulent «historiciennes» ne sont pas vraiment historiques : elles ne tiennent pas compte des conditions de fonctionnement de chaque période, et elles sont donc, paradoxalement, a-historiques.”, *ibid.*

22) *Ibid.*, p. 20.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²³⁾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 억압에 대한 전통 맑스주의적 접근 방식을 문제 삼는다. 그녀는 특히 계급이나 생산양식 등과 같은 맑스주의에 등장하는 개념을 여성 억압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차용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비난에 응수하는 동시에,²⁴⁾ 여성 억압을 작동케 하는 착취의 메커니즘이 아닌 특수성을 간과한 채 여성 억압을 자본주의적 착취 구조의 틀 안에서만 바라보고자 했던 맑스주의자들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는, 이중의 차원에서 이 두 번째 문제점을 언급했다. “유물론적”이라는 용어 사용이 아닌 맥락에 대한 델피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n effet je refuse le dogme de la prééminence absolue du mode de production capitaliste sur les autres, et plus encore celui de sa «solitude»: j'ai fait l'hypothèse et la théorie de l'existence d'un autre mode de production. L'emploi du terme «matérialiste» (et non «marxiste») a donc aussi pour objet d'indiquer que, si je garde les grands principes généraux de l'analyse marxiste, j'en récuse les applications particulières, y compris celles de Marx.²⁵⁾

사실상 나는 다른 생산양식에 대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압도적 우위, 더 나아가서는 그 생산양식의 고고(孤高)함을 주장하는 독단을 거부한다. 그에 따라 나는 다른 생산양식이 존재한다는 가설과 이론을 만들어 냈다. 즉 맑스주의적 분석의 일반적인 대원칙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보편성을 증명하는 데에만] 적용해 온 특정 방식 - 여기에는 맑스 자신의 분석 방식 역시 포함된다 - 을 거부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맑스주의적》이 아니라)《유물론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델피는 유물론적 페미니즘이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여성 억압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유물론적 페미니즘과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녀에 따르면 맑스주의자들은 개별적인 모든 생산양식이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귀속된다고 보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 결과 맑스주의적 유물론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야기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대립적인 계급관계에 다른 모든 대립 관계가 귀속되며, 그렇기에 자본주의적 구조의 철폐는 노동자 계급뿐만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다른 모든 예속된 존재들의 해방을 가능케 할 것이라 보는 입장을 고수한다. 델피는 이를 개별적 현상들이 지닌 특수성을 간과하는 독단적 태도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독단에 빠진 맑스주의 진영이 여성 억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 진영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그녀에 따르면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첫째, 여성 억압은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억압이 야기한 계급투쟁으로부터 파생된 “부차적 결과”에 해당하며, 둘째, 따라서 자본주의가 철폐되는 그날, 여성 억압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제거되고, 여성 억압은 실체가 없는 “순수하게 관념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반복적으로 제시해 왔다.²⁶⁾ 델피는 이러한 결론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첫

23) *Ibid.*, pp. 20-21.

24) 델피가 이러한 개념들을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틀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이용하고 있는지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5) *Ibid.*, p. 23.

26) Christine Delphy, “L’ennemi principal”, dans *L’ennemi principal 1 : Économie politique du patriarcat*, *op.cit.*, p. 31. (1970년 당시, 델피는 이 글을 뒤풀 Dupont이란 가명을 사용해 발

째,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는 다른, 여성의 노동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제 특유의 생산양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둘째, 오히려 자본주의적 착취 구조는 자본주의 출현 이전부터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적 억압을 가중시킨 부차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셋째, 따라서 여성의 위치하고 있는 착취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친다.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여성 억압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가부장제이며, 따라서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의 주된 대상을 가부장제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즉 델피의 유물론적 페미니즘은 우선, 모든 현상을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로 간주하는 동시에 여성 억압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토대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맑스주의적 분석의 일반적인 대원칙”을 따르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모든 대립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은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과는 다른 페미니즘 담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델피의 비판은 사회적 현상을 자연발생주의에 입각해 설명하려는 태도를 향한다. 유물론적 페미니스트로서 델피는 모든 사회적 현상,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억압이라는 현상을 사회가 만들어낸 인위적 산물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그녀는 비단 ‘젠더 le genre’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생물학적으로 구분하는 개념인 ‘섹스 le sexe’까지도 가공의 산물로 간주하기에 이른다.²⁷⁾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하여 델피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억압도, 백인에 의한 흑인의 억압도 더 이상 자연발생적 산물로 간주하지 않는 오늘날, 왜 여전히 여성 억압만은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구분짓는 본질적 차이가 빚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물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자연발생주의적 관점에 입각해서 여성 억압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진영의 입장에 반대하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다. 나아가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 억압에 대한 자연발생주의적 접근 방식은, 사회적 현상을 “비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인류의 사회적 본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관념론 l'idéalisme”적 접근 방식에 다름 아니라고 단언한다.²⁸⁾

여성 억압에 대한 자연발생주의적 접근 방식에 대한 델피의 비판은 기본적으로 맑스주의보다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게 될, 《정신분석과 정치》 진영이 내세운 차이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델피가 맑스주의 진영이 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본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델피의 발언은 그녀가 자연발생주의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이 진영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La participation des femmes à la création de marchandises et de production vitales est attestée par toute la littérature ethnologique et constitue une pierre dans le jardin des idéologues qui tentent d'expliquer le statut inférieur des femmes par leur rôle secondaire (...) dans la survie de l'espèce. Ce n'est pas ici le lieu de discuter du

표했다. Christine Dupont, “L'ennemi principal”, *Partisan : Libération des femmes. Année zéro*, n° spécial, novembre 1970, pp. 112-139.)

27) 심지어 그녀는 섹스가 젠더에 의해 결정된 인위적인 산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le genre précède le sexe ; dans cette hypothèse, le sexe est simplement un marqueur de la division sociale; il sert à reconnaître et identifier les dominants des dominés, il est un signe (...) il acquiert dans l'histoire valeur de symbole.”, Christine Delphy, “Penser le genre : Problèmes et Résistances”, dans *L'ennemi principal 2 : Penser le genre*, Syllepse, 2013, p. 230.

28) Christine Delphy, “Préface”, *op.cit.*, p. 23.

phénomène de la construction de l'idéologie «naturaliste» qui sous-tend le système en mythe des origines (...) dont Engels lui-même a été victime.²⁹⁾

시장 및 생명창조와 관련된 생산활동에 여성이 참여해 왔다는 점은 모든 에트노그라피³⁰⁾ 문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여성에게 부여된 열등한 위상을, 여성의 종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부차적 역할만을 수행해 온 결과로 설명하려는 관념론자들의 옥토를 지탱하는 토대로 작용해 왔다. 물론 이 글이, 엥겔스마저도 희생자로 만든 신화 (...) 즉 기원에 대한 신화의 형태로 존재하는 체제의 기초를 제공해 온《자연발생주의적》관념이 야기한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 쓰인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어떠한 맥락에서 델피는 엥겔스를 자연발생론이 만들어낸 신화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는가? 델피는 두 가지 지점에서 엥겔스를 문제 삼는다. 그가 성별에 따른 노동분업의 기원을 남녀 간의 사회적 위치의 차이가 아닌 생물학적 특징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는 점.³¹⁾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에 비해 우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있다는 점이³²⁾ 그것이다. 델피에 따르면 우선 성별에 따른 노동분업의 기원을 생물학적 특징에서 찾고 있는 엥겔스의 설명은, 인류의 역사를 사회적 구성의 결과로 보는 유물론적 입장을 스스로 부정하고 사회적인 현상을 비사회적인 요인에 기대에 설명하고자 하는 자연발생론적 접근 방식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문제다. 나아가 델피는, 만약 엥겔스의 말처럼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이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에 비해 우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맞다면, 성별에 따른 최초의 노동분업을 생물학적 특성에 의한 결과로 간주하는 엥겔스의 관점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우월하기에 보다 가치 있는 노동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논리로 귀결될 위험을 내포하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더욱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물론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이 더 우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엥겔스의 관점 역시 문제가 된다. 노동이라는 것 역시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이 그 종류에 따라 본질적으로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보는 것 역시 유물론적 관점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엥겔스를 자연발생론이 만들어낸 신화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엥겔스의 이러한 설명에 기대어 여성의 노동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 진영 역시 자연스럽게 델피의 비판을 받게 된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 내용은 3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그렇다면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과의 이러한 관계 설정을 기반으로 하여 MLF 기간 동안 델피가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틀 안에서 특히 전면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주된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29) Christine Delphy, "L'ennemi principal", *op.cit.*, p. 35.

30) 에트노그라피는 '민족지', '민족지학', 또는 '문화기술지학'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번역어들이 오늘날 이 학문이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광범위한 분야를 잘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이번에는 일단 원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표기하기로 한다.

31) 주지하다시피 실제로 엥겔스는 종족 번식을 위해 생물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분업을 최초의 노동분업로 보았으며, 그 결과 남성은 가외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여성은 가내 노동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32) 특히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음의 구절은 많은 이들이 엥겔스가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과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에 위계적 가치를 매기고 있다고 비판하게 한 근거로 작용했다 : “여성의 해방, 남녀의 평등은 여자가 사회적 노동에서 배제되어 사적인 가사노동에만 종사하고 있는 한 불가능하며, 또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여기서 명백해 진다. 여성의 해방은 그들이 사회적 규모의 생산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또 그들이 돌보아야 할 가사가 아주 적을 때에라야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김대웅 역, 아침, 1987, pp. 220-221.

3.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찰

3-1. 가사노동에 대한 재정의

여성 억압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델피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기울인 문제는 여성의 ‘가사 노동 le travail domestique’이었다. 비단 델피만이 아니라 70년대 여성해방운동가들 대다수에게 있어서 가사노동 문제는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이기도 했다. 이 논쟁은 1960년대 말 영미권의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 진영에서 촉발되었으며, 70년대를 거치면서는 사회 변혁 투쟁을 전개했던 서구권 페미니즘 진영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학두로 자리 잡게 된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맞이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직종에서뿐만 아니라 임금상에서 여성은 여전히 차별을 받았고, 이러한 차별이 여성의 본질적 임무를 가사노동으로 규정하는 가부장제의 논리로 인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진 결과 촉발된 것이 바로 가사노동논쟁이었다. 여성해방운동가들은 특히 임신과 출산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고 소유하는 방식을 통해 그것이 오직 재생산의 수단으로서만 기능하도록 강제해 온 가부장제 및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여성 억압의 가장 핵심적 원인으로 간주했다.³³⁾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사노동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착취의 구조라고 보았다. 1970년대의 여성주의 담론상에서 가사노동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설정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에 따라 당시의 가사노동논쟁은 자연스럽게 맑스주의와 페미니즘이라는 이중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어떠한 이론적 배경과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사노동논쟁에 참여한 이들의 입장은 보다 다양하게 구분된다. 김원태의 설명을 참고해 설명해 보자면,³⁴⁾ 이들의 입장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갈린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가사노동은 어떠한 가치를 생산하는가? 둘째, 가사노동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생산 productif’ 노동에 해당하는가? 셋째, 가사노동에서의 착취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자본주의 메커니즘인가 가부장제 메커니즘인가?

델피는 MLF 내에서 이 논쟁을 촉발시킨 이었으며, 그녀가 제시한 가사노동론은 MLF 내에서 가장 많은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특히 델피가 1970년에 발표한 「주적 L'ennemi principal」이라는 글은, 영미권 여성학자인 마가렛 벤斯顿 Margaret Benston이 1969년에 발표한 「여성해방의 정치경제학 The Political Economy of Women's Liberation」과³⁵⁾ 더불어 가사노동논쟁의 서막을 연 글로 회자된다. 하지만 영미권 페미니즘 이론을 중심으로 여성학 연구가 이루지고 있는 국내 학계에서 가사노동논쟁과 관련된 연구물들 대부분 델피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맑스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

33) 자본주의가 어떻게 여성의 신체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고 소유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가부장제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역작, 『캘리번과 마녀 : 여성, 신체, 그리고 시초축적』의 저자, 실비아 폐데리치는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여성의 신체는 국가와 남성에 의해 전유되고, 재상산과 노동의 측적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강제된다는 점에서 착취와 저항의 주요한 장인 것이다 따라서 임신, 출산, 섹슈얼리티 등 모든 측면에서 신체가 여성주의 이론 및 여성의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비아 폐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 여성, 신체, 그리고 시초축적』, 황성원, 김민철 역, 갈무리, 2011, pp. 37-38.

34) 김원태, 「가사노동(논쟁) 비판」, 『진보평론』, Issue 55, march 2013, p. 230 참조.

35) Margaret Benston, “The Political Economy of Women's Liberation”, *Monthly Review*, Vol. 21, n° 4, 1969, pp. 1-15.

던 가사노동논쟁의 장에서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입장을 취했던 델피의 가사노동에 대한 분석이 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연구물 역시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³⁶⁾ 지금부터 델피가 가사노동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내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유물론적 페미니즘을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으로부터 분리해내고자 했던 그녀의 시도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이해해보도록 하자.

우선 가사노동 문제에 있어서 델피의 유물론적 페미니즘과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모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첫째, 여성이 가정 내에서 수행하는 일은 ‘생산 노동 le travail productif’이며, 둘째, 가사노동상에서의 여성에 대한 착취 문제는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유물론적 페미니즘과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모두 여성 억압과 가사노동 문제가 지닌 상관성에 대한 논의를 한 층 더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가사노동에 대한 규정 및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착취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델피의 유물론적 페미니즘은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과 구분된다 하겠다.

델피는 우선 가사노동에 대한 기존의 규정이 “경험에 입각한 empirique” 애매모호한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가사노동이 지닌 구조 및 경제적 특성에 입각해 그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1970년대 당시만 해도 가사노동은 요리, 빨래, 설거지, 청소, 바느질, 장보기 등과 같이, “살림살이 le travail ménager”的 차원에서 여성이 집 안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델피는 이렇게 모호한 규정으로는 가사노동의 착취 구조의 본질을 드러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착취의 메커니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핵심은 “시장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이자 “부불노동 le travail non-rémunéré”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³⁷⁾ 델피는 이러한 특징이야 말로 가사노동의 착취 구조의 본질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주장한다.

델피에 따르면 가내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일은 지금껏 한 개인이 노동력을 투입해 유무형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노동에 해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직접 교환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대신 여성의 가사노동은 오직 그것이 재생산해내는 데 기여하는 남편의 노동력을 매개로 해서만 교환되어 왔을 뿐이다. 그에 따라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는 역시, 심지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남편이 노동력을 판 대가로 받는 급여 속에 포함된 채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노동의 주체가 노동의 대가와 분리된 상황 속에 처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의 가사노동의 대가를 자신의 임금이 책정된 근거에 입각해 지불해 왔는가? 그렇지 않다. 물론 아내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로 남편은 아내의 요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는 한다. 그러나 델피는 이것이 노동자의 급여가 책정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과정을 따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급여는 노동 시간과 노동의 질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이 책정한 “일반적 가

36) 예를 들어 70년대의 가사노동논쟁에 대한 재고찰을 시도하고 있는 정성진과 김원태의 글은, 가사노동논쟁에 참여했던 이들의 지형도를 잘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유물론적 페미니즘과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차이에 대한 고찰 없이 델피를 맑스주의 진영에 속한 이론가들 중 한 명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정성진, 「가사노동 논쟁의 재발견: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페미니즘의 결합 발전을 위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0, n° 1, February 2013, pp.12-48; 김원태, *op.cit.*, pp.226-281 참조.

37) Christine Delphy, “L’ennemi principal”, *op.cit.*, p. 47.

치”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고용자를 비롯한 피고용인의 인격”은 결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여성이 가내에서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는 어떻게 책정되는가? 델피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Les prestations de la femme mariée ne sont pas précises : elles dépendent de la volonté de l'employeur, le mari. Les prestations ne sont pas non plus rémunérées par un barème fixe : l'entretien fourni ne dépend pas du travail effectué par la femme, mais de la richesse et de la bonne volonté de son mari.³⁸⁾

기혼 여성이 어떠한 노역에 임하는지는 정확히 명시되지 않으며, 그 내용은 그녀의 고용주, 즉 남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심지어 이에 대한 굽여 역시 고정 계산표에 근거해 지불되지 않는다. 기혼 여성이 받는 생계비를 결정하는 것은 그녀가 수행한 노동이 아니라 남편의 재산과 선의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 보면, 여성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다 부유하고, 보다 많은 선의를 지닌 남성과 결혼하여 그에게 봉사하는 것뿐이다. 델피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아내의 계급이 남편의 계급과 동등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왜냐하면 결국 아내의 삶의 질이 “남편의 노예로서 임하는 생산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³⁹⁾ 그리고 그렇기에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⁴⁰⁾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델피는, 가부장제 내에서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의 “유일한 의무”는 “아내의 욕구에 대한 비용을 대는 것, 달리 말해 아내가 노동력을 같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성의 가사노동을 가내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기부 un don” 행위와 다름없는 부불노동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놓여 있다고 단언한다.⁴¹⁾

가사노동에 대한 델피의 이러한 분석은 가사노동을 생산 노동, 그것도 교환가치를 지닌 생산 노동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전통 맑스주의 폐미니즘 진영의 입장과 구분된다. 이와 관련하여 델피는 가사노동에 대한 초기의 이론적 논의를 주도했던 전통 맑스주의 폐미니즘 진영의 벤스톤의 가사노동에 대한 분석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면서, 가사노동에 대한 이 진영의 접근 방식이 지닌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델피가 문제 삼은 것은, 독일의 맑스주의 경제학자 에르네스트 만델 Ernest Mandel의 이론에 기대어 벤스톤이 제시한 가사노동에 대한 규정이다. 벤스톤은 가사노동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재생산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재생산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상품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소비되는, 즉 사용가치만을 지닌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⁴²⁾ 그에 따라

38) *Ibid.*, p. 46.

39) *Ibid.*, p. 47.

40) *Ibid.*, p. 49.

41) *Ibid.*, p. 34.

42) 만델은 자본주에서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품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녀야 하며, 이를 통해 잉여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만델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직도 사용가치를 지닌 것으로만 남아 있는 것은, 자급자족적 형태의 농산물과 가사노동의 생산품뿐이라고 주장했다. 가사노동이 오직 가족 내에서의 즉각적인 소비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가치를 창출할 뿐 시장에서 상품으로 교환되기 위해 필요한 교환가치는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만델의 이러한 주장을 기반으로 하여 벤스톤은 가사노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As he [Mandell] points out, most household labour in capitalist society (and in the existing socialist societies, for the matter) remains in the pre-market stage. This is the work which is reserved for women and it is in this fact that we can find the basis for a definition of women. In sheer quantity, household labour, including child care, constitutes

벤스톤은, 교환가치의 결여로 인해 그러한 가치에 입각해 돌아가는 시장 경제로부터 배제된 결과 노동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는, 특수한 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사노동을 규정했다. 이에 반해 델피는 가정 내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은 교환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만 교환가치를 지닐 가능성으로부터 배제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그녀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동은 가정을 벗어나는 순간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점을 든다.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사 먹고, 돈을 주고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세탁소에 빨랫감을 맡기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말이다. 그리고 가사노동의 교환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 진영의 논리가 결국에는 “남편이 벌어오는 급여만이 살림과 관련된 모든 소비를 책임지며, 반면 가정 내에 머무는 여성은 생활비를 벌지 못 한다”라는, 여성의 가사노동이 지닌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제적 논리를 정당화하는 위험을 내포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⁴³⁾

나아가 델피는 벤스톤으로 대표되는 이 진영의 가사노동에 대한 분석이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에 대한 공적 영역에서 수행되는 노동의 우월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는 앵겔스의 사상에 대한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노동 = 우월한 노동’, ‘가사노동 = 열등한 가치를 지닌 노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⁴⁴⁾ 델피는 바로 이러한 전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여성의 가사노동이 “[교환]가치가 없는 것”이자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고, 교환의 영역에서 배제된 것”은, “가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닌 본성 그 자체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 여성이 생산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단언한다.⁴⁵⁾

이상의 분석에 입각해 델피는 살림살이와 가사노동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전자는 후자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가사노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ès lors, le travail ménager ne peut plus être défini comme l'une ou l'autre ou même l'ensemble des tâches qui le comportent, mais comme une certaine relation de travail, un certain rapport de production : comme tout travail effectué pour autrui dans le cadre du ménage ou de la famille et non payé. (...) C'est pourquoi les rapports de production caractéristiques du travail ménager (...) nous proposons que l'on substitue désormais le concept de travail domestique à celui de travail ménager.⁴⁶⁾

따라서 살림살이는, 더 이상 그것을 구성하는 일의 이런 저런 부분, 혹은 그것의 종합이 아니라, 어떠한 노동관계, 혹은 어떠한 생산관계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살림살이는 부부 혹은 자녀로 이루어진 타인을 위해, 부불의 상태로 이루어지는 모든 노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a huge amount of socially necessary production. Nevertheless, in a society based on commodity production, it is not usually considered “real work” since it is outside of trade and the market place. (...) Their work is not worth money, is therefore valueless, is therefore not even real work.”, Margaret Benston, *op.cit.*, pp. 3-4.

43) Christine Delphy, “L’ennemi principal”, *op.cit.*, pp. 41-42.

44) 김원태 역시 전통 맑스주의가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취업노동-임금노동, 특히 잉여가치(이윤)를 생산하는 노동에 대한 강조에서, 주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자본주의적 비가시화와 노동의 성적 분할을 비판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1970년대의 가사노동논쟁이 이러한 한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평가했다. 김원태, *op.cit.*, pp. 229-230 참조.

45) Christine Delphy, “L’ennemi principal”, *op.cit.*, p. 34.

46) Christine Delphy, “Travail ménager et travail domestique”, dans *L’ennemi principal 1 : Économie politique du patriarcat*, *op.cit.*, pp. 66-67.

(...) 살림살이의 이러한 특징적인 생산관계는 (...) 이제부터 살림살이 대신에 가사노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가사노동상에서의 여성에 대한 착취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그녀에 따르면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는 구분되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관계를 의미하는 가부장제에 토대를 둔 ‘가부장제적 생산양식’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 진영과 달리, 여성억압의 근본적 원인을 자본주의가 아닌 가부장제로 간주하는 그녀의 입장이 구체화되는 지점에 해당한다. 물론 그녀가 산업사회의 출현 이후 한층 더 심화된 여성 억압의 원인들 중 하나로 자본주의를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그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공모 하에 이루어지는 이중의 착취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노동력 착취의 일차적 원인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찾았던 것과 달리, 자본주의는 산업사회의 출현 이후 추가된 여성 억압의 부차적 원인에 해당할 뿐, 가부장제적 생산양식에 근거한 착취 구조야말로 여성 억압의 근본적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델피의 입장은 전자와 다르다고 하겠다.

3-2. 여성의 단일 계급 형성 가능성에 대한 고찰

가사노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델피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En conclusion, l'exploitation patriarcale constitue l'oppression commune, spécifique et principale des femmes : commune parce qu'elle touche toutes les femmes mariées (80% des femmes à tout moment); spécifique parce que l'obligation de fournir des services domestiques gratuits n'est subie que par les femmes; principale parce que même quand les femmes travaillent «au dehors», l'appartenance de classe qu'elles en dérivent est conditionnée par leur exploitation en tant que femmes.⁴⁷⁾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가부장제적 착취는 여성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그녀만이 특별하게, 나아가 그녀가 주로 겪게 되는 억압을 만들어 낸다.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착취가 모든 기혼 여성들에게(1960년대 말 당시로 보자면 80%에 해당하는 기혼 여성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며, 그녀만이 특별하게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상으로 가사업무에 임해야 하는 상황을 오직 여성만이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여성이 겪게 되는 주된 억압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밖에서》일을 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애초에 속해있던 [남성의 노예라는] 계급에의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녀가 여성으로서 [가내에서] 겪고 있는 착취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델피로 하여금 다음을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내세우게 한다. 가부장제적 생산관계 속에서 착취를 당해 온 그리고 착취를 당하게 될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가부장제 내의 모든 여성은 “하나의 계급 une classe”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급투쟁의 역사를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투쟁의 역사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규정해온 맑스주의 진영의 입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델피는 지금까지의 유물론이 맑스주의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서 발전해 온 결과, 여성이 가부장제의 특별한 착

47) Christine Delphy, “L'ennemi principal”, *op.cit.*, p. 50.

취의 구조가 만들어 낸, 단일한 피착취 계급에 속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동시에,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역사로부터 지워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⁴⁸⁾ 이어서 그녀는 “성적 경험이야 말로 계급투쟁의 장, 즉 두 집단이 대립하는 장에 해당하지만, 여기서 대립하는 집단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아니라 사회적 여성과 사회적 남성이다”라고 단언하면서 가부장제하에서 모든 여성은 단일한 사회적 피착취 계급에 속하게 된다고 주장했다.⁴⁹⁾

이러한 입장에서 델피는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맑스주의에 따른 계급적 구분을 넘어서 모든 여성은 연대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1977년에 발표된 「우리의 친구 그리고 우리 : 몇몇 의사(擬似) 페미니즘 담론의 은밀한 근거 Nos amis et nous : Fondements cachés de quelques discours pseudo-féministes」라는 글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글은,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남성 지지자들의 협력 없이는 여성해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MLF 진영의 “분리주의 la non-mixité” 노선을 비판하던,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남성들의 발언에 응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였다. 여기서 델피는 지금까지 맑스주의 틀 안에서 서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부르주아 여성과 노동자 여성의 실제로는 하나의 단일한 피착취 계급에 속하는 이들에 해당하며, 따라서 진정한 여성해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연대해야 하는 이들은 모든 여성이다, 착취 계급에 속한 남성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MLF 진영의 분리주의 노선을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반박해 나가고 있다. 그중 델피가 부르주아 여성과 노동자 여성의 같은 계급에 속한다고 보아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우선 델피는, 지금까지 남성들은 - 그들이 여성에게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간에 - 여성이 스스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발언권을 독점해 왔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MLF의 분리주의 노선은 스스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성이 택해야만 했던 필수적인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여성이 이미 내재화하고 있는 가부장제적 권력관계와 거리를 두고, 피억압자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의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분리주의의 선택은 필수불가결한 결정에 다름 아니었다고 단언한다.⁵⁰⁾ “분리주의는 자기에 대한 증오에 맞서는 투쟁을 위한 필연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조건이었다”라고 강조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였다.⁵¹⁾

델피에 따르면 그렇기에 MLF 진영이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남성 개인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모두와 연대하는 것이다. MLF의 문제설정에 당장 동의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가부장제하에서 모든 여성은 피억압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델피는 여성이 반페미니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남성이 그러한 입장을 지닌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에 속한다고 말한다. “남성의 반페미니즘이 억압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는 반면 여성의 반페미니즘은 억압당한 경험에 속하는 것 l'anitiféminisme des hommes fait partie de l'oppression exercée, l'aniféminisme des femmes fait-il partie de l'oppression subie”이기 때문이다.⁵²⁾ 심지어 그녀는 가부장제에서 살아가는 여성이 반페미니

48) Christine Delphy, “Pour un féminisme matérialiste”, dans *L'ennemi principal 1 : Économie politique du patriarcat*, op.cit., p. 249.

49) *Ibid.*, p. 251.

50) Christine Delphy, “Nos amis et nous : Fondements cachés de quelques discours pseudo-féministes”, dans *L'ennemi principal 1 : Économie politique du patriarcat*, op.cit., pp. 159-163.

51) *Ibid.*, p. 163.

스트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것은 피억압자인 여성의 내면에 자기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내재화되도록 강요해 온, 가부장제의 남성중심적 전략이 빚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³⁾ 그에 따라 델피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Les féministes ne peuvent en aucun cas considérer sur le même pied les hommes antiféministes et les femmes antiféministes, ni appeler ces dernières des ennemis. Elles ne sont pas séparées de nous par des intérêts objectifs mais par une fausse conscience, et encore celle-ci ne nous sépare-t-elle vraiment: car nous l'avons eue, l'avons encore en partie; c'est notre ennemie commune. Quand nous luttons contre leur "opinions", nous ne luttons pas contre elles, mais contre cette ennemie commune, donc pour elle et pour nous.⁵⁴⁾

페미니스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페미니스트 남성과 반페미니스트 여성의 행보를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반페미니스트 여성은 적으로 명명할 수도 없다. 이 여성들이 우리와 갈라서게 된 것은 객관적인 이득을 쫓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의식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역시 예전에 부분적으로 잘못된 의식을 지닌 바 있으며, 지금도 지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여성들과 우리가 진짜 갈라섰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잘못된 의식이야말로 우리 공동의 적이다. 우리가 그들의 의견에 맞서 투쟁할 때,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대상은 반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아니라, 이 여성들과 우리 모두의 공동의 적에 해당하는 이 의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하에 델피는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 진영이 MLF의 방향을, 실재하는 피억압자 집단 즉 여성의, 실재하는 억압자 집단 즉 남성에 대항하는 투쟁이 아니라,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 혹은 맑스주의와 반맑스주의와 같은 “사상의 대립 des conflits d'idées”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⁵⁵⁾ 델피에 따르면, 이들이 너무나도 자주 여성 내부에서 여성의 주적을 찾곤 해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MLF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통 맑스주의 진영에 의해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의 주적으로 설정된 여성은 누구인가? 바로 부르주아 여성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부르주아 여성이라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가? 델피는 전통 맑스주의 진영이 이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이들을 주적으로 설정해왔다고 비판한다. 그녀에 따르면 맑스주의 진영이 문제 삼고 있는 부르주아 여성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유롭지 않은” “특권층 여성”을 지칭한다.⁵⁶⁾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유롭지 않다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인가? 라고 델피는 반문하면서, 부르주아 여성에 대한 이러한 규정이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실재하는 그 어떤 집단과도 연결시킬 수 없는 모호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⁵⁷⁾

그렇다면 맑스주의 진영은 왜 이러한 모호한 규정을 앞세워 부르주아 여성은 주적으로 설정하고 그들을 비난했을까? 델피는 정치적 무력함에 따른 우회 전략과 성차별적 관점,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⁵⁸⁾ 첫 번째 지점과 관련하여 델피는

52) *Ibid.*, p. 172.

53) *Ibid.*

54) *Ibid.*

55) *Ibid.*, p. 161.

56) *Ibid.*, p. 173.

57) *Ibid.*, p. 174.

58) *Ibid.*, pp. 175-176.

맑스주의 진영이, 부르주아 권력의 강력함을 실감한 결과 그것을 직접 공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그 권력의 성질을 띠는 듯 보이나 덜 위험해 보이는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부르주아 권력을 우회적으로 겨냥하는 전략을 자주 취해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정된 공격 대상이 바로 부르주아 여성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지점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전제하에 여성과 권력의 조합을 “부당한 것 illégitime”으로 간주하는 맑스주의 진영의 성차별적 관점을 문제로 삼는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델피는 맑스주의 진영의 부르주아 여성에 대한 비판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여성해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것이, “부르주아 계급에 의한 여성의 사적 소유를 계급간의 불평등함과 노동자 억압”의 결과로 보는 관점을 전제로 하여, 노동자 계급 역시 부르주아 계급과 마찬가지로 남성으로서 “여성을 소유할 동등한 권리 l'accès égal aux femmes”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 비판한다.⁵⁹⁾ 이어서 델피는 좌파 여성들 가운데 스스로를 부르주아 계층으로 간주하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부르주아 여성에 대해 더 큰 증오심을 표출하곤 하는 현상 역시, 여성과 권력의 조합을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차별적 관점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다만, 그녀에 따르면, 좌파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의 증오심에는, 권력을 부당하게 차지했다는 “죄책감”이 추가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겠다.⁶⁰⁾

결론적으로 델피는 계급의 논리를 앞세운 부르주아 여성에 대한 비판이, 맑스주의 진영의 계급 논리가 성차별적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렇기에 진정한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젠더의 논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줄 뿐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젠더의 논리에 입각해 보았을 때, 어떠한 물질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든지 간에 가부장제 사회의 모든 여성은, 남성에 의해 착취당하는 피지배 계급에 속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의 타당성 역시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고 결론짓는다.

결론

델피의 유물론적 폐미니즘은 MLF 기간 내내 상당히 중요한 이론적 토대로 작용했다. 피크에 따르면, 특히 가부장제의 착동 원리 및 여성의 단일한 계급 형성 가능성에 대한 델피의 분석은 이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동의를 이끌어냈으며,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이론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⁶¹⁾ MLF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가정의 노예, 성적, 감정적 노예”의 노동력에 대한 남성의 착취를 기반으로 한 가부장제를 존속시키는 대표적인 제도로 결혼을 규정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운동에 동참했다는 점,⁶²⁾ 그리고 “여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 먼저다”를 MLF의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델피의 사상이 발휘했던 영향력의 크기를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 구축보다는 실천 투쟁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MLF 진영의 전반적 분위기와 미국 여성학계에 의해 국제적으로 유포된 이 운동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인해 MLF에 끼친 델피의 영향력은 지금까지 침묵 속에 묻혀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

59) *Ibid.*, p. 176.

60) *Ibid.*, p. 188.

61) Picq, *op.cit.*, p. 199 참조.

62) *Ibid.*, p. 81.

구가 이러한 침묵을 깨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동시에 우리는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국내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우선 서론에서 이미 밝혔듯이, 전통 맑스주의 페미니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델피의 유물론적 페미니즘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이번 연구는, 델피가 비판의 또 다른 주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차이의 페미니즘과의 관계 속에서 그녀의 사상을 이해해 보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MLF에 참여했던 절대 다수가 그토록 비판해 마지않던 차이의 페미니즘이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 전체를 대변하는 사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내 학계의 현실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더불어 앞서 이야기한 후속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80년대를 기점으로 델피가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틀 안에서 발전시켜 온 성정체성에 대한 담론을 이해해 보는 작업 역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⁶³⁾ 특히 유물론적 페미니스트로서 젠더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생물학적으로 구분하는 개념인 섹스까지도 가부장제가 만들어 낸 인위적 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델피의 입장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을 계기로 이성애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성장한 ‘퀴어 이론 Queer theory’ 진영과의 상관성 속에서 그녀의 유물론적 페미니즘이 지닌 현대적 유효성을 살펴보는 작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는 후속 연구를 통해 특히 프랑스의 대표적인 퀴어 이론가인 모니크 위티그 Monique Wittig의 입장과 델피의 입장을 비교해 살펴봄으로써,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이 발전시켜 온 성정체성과 관련된 담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70년대 이후로 현대 페미니즘 담론에서 한동안 잊혀져왔던 여성의 가사노동 관련 주제가 오늘날 다시금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연구는 가사노동에 대한 델피의 이론이 지닌 유효성을 21세기의 맥락에서 다시 한 번 검증해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김원태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지구화,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등의 당면한 문제 때문에 맑스주의자들이 이 주제에서 멀어져가고, 가사노동 문제가 여성 억압 전체를 논하기에는 다소 협소한 주제라는 판단하에 페미니스트들이 성정체성 등과 같은 다른 주제로 관심사를 옮겨감에 따라, 70년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가사노동 문제는 오늘날, 페미니즘 담론상에서 더 이상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⁶⁴⁾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최근 들어 이 문제에 주목한 연구물이나 저서의 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참으로 흥

63) 실제로 델피는, 80년대에 발표한 주요 글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낸 결과물인 『주적 2 : 젠더를 생각 하다』의 서문에서 80년대는 성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한 시기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 “La mise à jour du mode production domestique, dans lequel et par lequel les femmes sont exploitées, et que je poursuis ici, est fondée sur une prémissse antinaturaliste : que les femmes fassent le travail domestique et qu'elles le fassent gratuitement ne doit rien à une nature quelconque, et tout à une organisation sociale qui leur dicte de le faire. L'oppression est une construction sociale : c'est de là que je suis partie. Progressivement, au cours des années, et en suivant les implications de mon propre travail (tout en bénéficiant des apports d'autre oeuvres dans le même sens), j'en suis arrivée à l'hypothèse, puis à la thèse, que ce diktat ne s'appliquait pas à des personnes toutes faites : à des femmes préexistantes à leur oppressions. Mais que ce diktat les construisait en même temps qu'ils les contraignait. Et finalement, que «les femmes» et «les hommes» sont eux-mêmes des constructions sociales. Ceci est cohérent avec mes prémisses de départ; mais réciproquement le travail m'a permis d'approfondir celles-ci et de les préciser.”, Christine Delphy, “Préface”, dans *L'ennemi principal 2 : Penser le genre*, op.cit., p. 7.

64) 김원태, op.cit., p. 226 참조.

미롭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참고문헌으로 언급했던 정성진이나 김원태의 논문을 비롯해, 최근 번역되어 출간된 이탈리아의 여성주의자 실비아 페데리치 Silvia Federic의 『혁명의 영점 :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Revolution at Point Zero : Housework, Reproduction, and Feminist Struggle』나⁶⁵⁾ 호주의 정치평론가 출신의 작가인 애너벨 크랩 Annabel Crabb의 『아내 가뭄 The Wife Drought』와⁶⁶⁾ 같은 저서의 출간은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델피 역시 이러한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70년대에 정립되었던 자신의 가사노동론에다가 최근의 통계를 기반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발전시킨 내용을 추가하여 그녀가 발표한 『착취에 대한 일반 이론을 위하여 : 오늘 노동 착취의 다른 형태들 Pour une théorie générale de l'exploitation : Des différentes formes d'extorsion de travail aujourd'hui』이라는 저서는,⁶⁷⁾ 델피가 가사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고 있지 않음을,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70년대 당시에는 가사노동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고찰하는 데 그친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저서의 중요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델피를 비롯해 가사노동 문제의 이론화에 앞장섰던 이들의 입장을 심도 있게 이해해보는 작업은, 오늘날 여성의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가사노동 문제가 왜 다시금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이번 연구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상의 과제들은 델피에 대한 연구가 비단 그녀가 정립한 유물론적 폐미니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못해왔던 현대 프랑스 폐미니즘의 한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임을 시사한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이번 연구의 본질적 의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Allwood, Gill, *French Feminism : Gender and violence in contemporary theory*, UCL Press, 1998.
- Beauvoir, Simone de, *Le Deuxième sexe I : Les faits et les mythes*, Gallimard, coll. 『Folio Essais』, 1993(1949)
- _____, *Le Deuxième sexe II : L'expérience vécue*, Gallimard, coll. 『Folio Essais』, 1994(1949).
- _____, *Tout compte fait*, Gallimard, coll. 『Folio Essais』, 1978(1972).
- Benston, Margaret, "The Political Economy of Women's Liberation", *Monthly Review*, Vol. 21, n° 4, 1969, pp. 1-15.
- Delphy, Christine, "The invention of French Feminism : An Essential Move", in *Yale French Studies - Another Look, Another Woman* :

65) 실비아 페데리치, 『혁명의 영점 :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황성원 역, 갈무리, 2013.

66) 애너벨 크랩, 『아내 가뭄』, 황금진 역, 동양북스, 2016.

67) Christine Delphy, *Pour une théorie générale de l'exploitation : Des différentes formes d'extorsion de travail aujourd'hui*, Syllepse, 2015.

- Retranslations of French Feminism*, n° 87, Yale University Press, 1995, pp. 190-221.
- _____, *L'ennemi principal 1 : Économie politique du patriarcat*, Syllepse, 2013(1998).
- _____, *L'ennemi principal 2 : Penser le genre*, Syllepse, 2013(2001).
- _____, *Pour une théorie générale de l'exploitation : Des différentes formes d'extorsion de travail aujourd'hui*, Syllepse, 2015.
- Françoise, Picq, *Libération des femmes: Les années-Mouvement*, Seuil, 1993.
- Guadilla, Naty García, *Libération des femmes : le M.L.F. : Mouvement de Libération des Femme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coll.«Le Sociologue», 1981.
- Moses, Claire, "Made in America : 'French Feminism' in United States Academic Discourse", dans Australian Feminist Studies, vol. 11, n° 23, 1996, pp. 17-31.
- Remy, Monique, *Histoire des mouvements de femmes : de l'utopie à l'intégration*, l'Harmattan, coll. «Logiques sociales», 1990.
- Rodgers, Catherine, Le Deuxième sexe de Simone de Beauvoir : un héritage admiré et contesté, l'Harmattan, coll. «Bibliothèque du féminisme», 1998.
- Sex in Question : French materialist feminism*, édité par Diana Leonard and Lisa Adkins, Taylor & Francis, 1996.

- 강초롱,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이 직면한 현실 (1) - 미국산 프랑스 페미니즘의 탄생과 확산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77호, 2015, pp. 311-355.
- 김원태, 「가사노동(논쟁) 비판」, 『진보평론』, Issue 55, march 2013, pp.226-281.
- 앨리슨 제거, 폴라 로덴버그 스트럴,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신인령 역, 풀빛, 1983.
- 정성진, 「가사노동 논쟁의 재발견: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페미니즘의 결합 발전을 위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0, n° 1, February 2013, pp.12-48.
- 애너벨 크랩, 『아내 가뭄』, 황금진 역, 동양북스, 2016.
- 실비아 페데리치,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 여성, 신체, 그리고 시초축적』, 황성원, 김민철 역, 갈무리, 2011.
- _____, 『혁명의 영점 :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황성원 역, 갈무리, 2013.
- 프리드리히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김대웅 역, 아침, 1987.

로 클레지오의 『혁명』 속 1968년 멕시코시티와 파리 : ‘틀라텔룰코의 밤’과 ‘68년 5월’

오보배 (한국외국어대학교)

1. 들어가며

1968년. 역사상 아주 드물게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저항의 움직임이 터져 나왔던 이 특별한 해를 우리는 얼마나 온전하게 기억하고 있을까?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퍼져 나간 베트남전 반대의 물결, 히피문화, 여성해방운동, 2월의 베를린 시내를 가로지르며 “호! 호! 호찌민!”을 외쳤던 1만5천명의 시위대, 라탱가의 보도블럭을 파헤쳐 만든 바리케이트를 두고 경찰과 대치했던 파리의 대학생들,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Mai 68’의 대표적인 구호들, «상상력에 권력을 L’imagination au pouvoir », «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Il est interdit d’interdire », « 보도블럭 밑에는 모래해변이 있다 Sous les pavés, la plage »…….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68운동’을 이야기할 때 흔히 떠올리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1968년, 보다 길게는 1960년대 신좌파 운동의 중심지였다고 할만하다. 각각 뉴레프트(New Left), 노이에 링케(Neue Linke), 누벨 고슈(Nouvelle Gauche)라 불리던 신좌파 네트워크는 그 시기 다국적 저항운동의 공통된 동력이었던 베트남전 반대 운동을 이끌었고 민권운동과 블랙팬서를 지지했으며 빈부격차, 인종차별, 성차별이 없는 세상을 함께 꿈꾸었다¹⁾. 1968년 5월 파리에서 시작되어 프랑스 전역으로 퍼진 ‘혁명’의 열기에 관해서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길혀홀타이가 쓴 것처럼 “프랑스에서 저항은 국제적 저항운동의 정점에 뒤늦게 솟아오르지만 1968년 5월 3일에서 10일까지 단 일주일 만에 다른 나라의 저항을 따라잡고 넘어선다²⁾”. 처음의 시위대는 열악한 학습 환경과 시대착오적인 성 엄숙주의에 반기를 들었던 소수의 대학생 집단일 뿐이었으나 이들을 향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논란이 되며 저항의 목소리는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5월 말에는 약 950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던 그 때의 프랑스는 기존의 사회규범을 뿌리부터 바꿔놓겠다는 급진적인 열망으로 가득했다. 서구에서 있었던 전복의 시도들, 일체의 권위를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이곳 청년들의 “직접 행동³⁾”이 다른 나라의 청년들에게 미친 영향력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1968년의 세계사가 - 그 때나 지금이나 명실공히 강대국인 - 이들의 역사를

1) 조지 카치아피카스는 신좌파의 기본적인 특징들 중 첫 번째로 “경제적 착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인종적, 정치적, 가부장적 지배에 반대하기”를 꼽는다. (『신좌파의 상상력, 세계적 차원에서 본 1968』, 이재원, 이종태 공역, 이후, 1999, p. 88).

2) 잉글리트 길혀홀타이, 『68혁명, 세계를 뒤흔든 상상력』, 정대성 역, 창비, 2009, p. 6.

3) ‘직접 행동’ 또는 ‘행동주의’는 카치아피카스가 제시한 신좌파의 특징 중 하나로 이들은 “행동 - 대결의 개시 - 만이 새로운 지지자들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믿었으며, (...) 직접 행동이라는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운동이 양적으로 더 확대되고, 질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저자는 “신좌파가 감행했던 연좌 농성과 점거, 그리고 심지어 토론 집회 같은 사례들도, 이론을 ‘행동화’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지 카치아피카스, 같은 책, p. 96).

중심에 두고 쓰여지는 경향에 대해 얼마간의 문제의식을 느낀다. 68세대가 지향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들 중 하나가 반권위주의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68과 신좌파 운동을 진지하게 다룬 몇몇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바와 같이 그 해의 사회불안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이 현상이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런 동요가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파급’되는 식이었다기보다 거의 동시적으로 ‘폭발’하는 형태였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영국의 역사가인 에릭 휙스롭은 다음과 같이 쓴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역사 자체를 깔끔한 시기들로 분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편의에 딱 들어 맞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가]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다. 1968년은 마치 그와 같은 너그러움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된 해인 것처럼 보인다. [이 해에 일어난] 스펙타클하고 극적인 사건들은, 전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이 발생한 해당 나라의 역사에 심대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 사건들이 그냥 지나쳐 간 지역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⁴⁾

1968년의 역사는 아주 예외적으로 전세계적인 동질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으로 이는 옥타비오 파스가 “자발적 보편성 spontaneous universality⁵⁾”이라 부른 것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카치아피카스는 이 시기의 여러 나라들에서 목격된 동질성과 예외성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역사상, 위기와 혼란이 전세계적 규모로 발생했던 시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 이후에도, 전세계적 폭발의 시기라고 규정 내릴 수 있는 시기는 한 줌 정도에 불과하다. 1848~1849년, 1905~1907년, 1917~1919년, 그리고 1967~1970년이 그런 시기들이다. 전세계적 봉기들이 이와 같은 시기들에 자율적으로 발생했다. 기존 질서를 거부한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폭동과 저항의 연쇄 반응 속에서 나타났으며, 수백만 명의 행동 속에서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전망이 공식화됐다.⁶⁾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자율적’이라는 말과 ‘연쇄 반응’이라는 표현이다. 언뜻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단어는 1968년이 왜 몇몇 ‘대표적인’ 나라들로만 기억되어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각 나라에서 일어난 저항 운동들이 ‘자율적’이었다 함은 그 사회 속에, 그 시민들 안에 폭발의 힘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이 폭동과 저항들이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에야 비로소 1968년이 제 온전한 모습을 우리 앞에 드러내리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시인 한스 마그누스 엔제스베르거가 “‘1968년’과 씨름하려면 꼴라주 기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⁷⁾”고 말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들에 동조하며 ‘68운동’을 둘러싼 담론이 몇몇 국가의 사례에 다소 편중된 현 상황

4) Eric Hobsbawm, “1968—A Retrospect,” in *Marxism Today* (May 1978), p. 130 (조지 카치아피카스, 같은 책, p. 52에서 재인용).

5) Octavio Paz, « Olympics and Tlatelolco » in *The Labyrinth of solitude and other writings*, New York, Groove Press, 1994, p. 221.

6) 조지 카치아피카스, 같은 책, p. 56.

7) Hans Magnus Enzensberger, “Erinnerungen an einen Tumult. Zueinem Tagebuch aus dem Jahre 1968”, in *1968. Eine Enzyklopädie*, hg. von Rudolf Sievers, Frankfurt am Main, 2004, p. 23 (잉그리트 길혀흘라이, 같은 책, p. 11에서 재인용).

을 보완할 필요를 느껴 오늘의 발표를 준비하게 됐다. 물론 우리 발표가 이 담론의 모든 공백을 채울 수는 없겠으나 ‘꼴라주’에 덧붙일 작은 조각 하나는 되기를 바라며 1968년이 5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도 지극히 제한된 텍스트에서 아주 드물게만 논의되어 온 사건, 멕시코시티에서 벌어진 대학살(일명 ‘틀라텔룰코의 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003년 출간된 르 클레지오의 장편소설 『혁명』이 우리 연구의 대상작품이 될 것이다⁸⁾. 한국어판에서는 아마도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위해 단수로 번역되었을 이 소설의 원제는 사실 ‘Révolutions’, 즉 ‘혁명들’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복수성pluralité은 작품에 접근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원서 기준 560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텍스트는 실제로 여러 시대, 여러 공간의 혁명사 혹은 혁명가들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 계급에 의해 태려나 반란, 소요, 폭동 등으로 명명되었던 ‘전복의 시도들’을 포함한다. 많은 경우 실패했고 – 또는 그렇게 평가되고 – 그랬기에 여전히 혁명으로 불리지 못하며 심지어는 거의 잊혀진 채로 있는 시도들이 있다. 그와는 반대로, 즉 주류 세계사가 ‘성공했다’고 평가하거나 비록 실패했지만 ‘괄목할만한 성취였다’고 칭송하는 시도들에 관해서도 르 클레지오는 이 소설을 통해 새롭게 물음을 던진다. 요컨대 『혁명』은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알제리, 모리셔스, 멕시코에서 터져 나온 술한 전복의 시도들과 이를 얹누르려던 힘의 대립을 그야말로 전복적 시선으로, 즉 혁명적 필치로 그려낸 작품이다. ‘역사Histoire’의 대립항으로서의 ‘문학histoires’을 창작활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작가는 이 소설에서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특히 소설 후반부에서 거의 대조적으로 제시되는 두 도시의 풍경, 멕시코시티와 파리의 1968년은 불공정하게 작동하는 세계사의 ‘핀조명’을 잠시나마 다른 쪽으로 옮겨보려는 작가의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Mai 68’ 혹은 프랑스의 ‘68세대soixante-huitards’에 대한 그의 비판적 시선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르 클레지오가 파리의 68을 재조명하거나 반성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멕시코의 학생운동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보겠지만 두 저항운동에 관해 언급한 페이지의 분량에 있어서나 그 사건들을 요약 혹은 묘사하기 위해 작가가 사용한 표현과 작법에 있어서나 1968년을 다루는 파트에서 『혁명』의 관심은 명백하게 멕시코에 가 있다. 그렇기에 이 소설은 마리나 살이 정확히 짚은 것처럼 “우리의 역사적 시선을 프랑스 본토 밖으로 벗어나게 해주는⁹⁾” 작품이다.

우리는 먼저 이 소설의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한 뒤, 다음의 세 가지 물음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가고자 한다. 첫째, 장 마로는 멕시코시티와 파리의 학생운동을 어떻게 경험하고 기록하는가? 둘째, 각 저항운동에 참여한 두 도시의 인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셋째, 작가는 왜 『혁명』이라는 책의 후반부에 멕시코시티를 조명했는가? 이 질문들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68년 저항운동’,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혁명’에 대한 르 클레지오의 입장을 얼마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 J.-M.G. Le Clézio, *Révolutions*, Paris, Gallimard, 2003 (이하 RI).

9) “(...) le récit très circonstancié de la révolte des étudiants mexicains de juillet à octobre 1968 décentre notre regard historique hors de l'Hexagone.” Marina Salles, *Le Clézio. Notre contemporain*, Rennes, PUR, 2006, p. 110.

2. 『혁명』의 줄거리

『혁명』은 두 개의 시간, 두 사람의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보여준다. 하나는 1788년 열여덟 살의 나이로 브르타뉴의 고향집을 떠나 혁명군에 자원한 장 외드 마로Jean Eudes Marro의 일대기이며 다른 하나는 그의 6대손으로 알제리 전쟁이 한창인 때 남불의 어느 도시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맞은 장 마로Jean Marro의 청년기 - 1957년에서 1969년까지 - 이다. 두 인물이 속한 시대가 약 2세기 가량 떨어져있고 이들의 공간적 여정 또한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 외드 마로와 장 마로의 삶은 전혀 다르게 전개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르 클레지오는 역사적 사건들의 한복판 혹은 언저리에서, 격렬히 요동치거나 불안하게 흔들리는 두 사람의 인생을 모세혈관처럼 가느다란 은유의 선들로 섬세하고 촘촘하게 이어놓는다. 왕이 없는 ‘평등한’ 세계를 제 손으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에 가슴이 벅찼던 장 외드 마로는 2년여의 군생활 끝에 이 전쟁의 실체가 허기와 추위, 죽음의 공포, 저항할 수 없는 졸음과 방향을 잃은 폭력, 인간성의 훼손일 뿐임을 깨닫는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연인이던 마리 안느Marie Anne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세 가족은 모리셔스 섬으로 이주한다 (1798년). 마로 가문은 그 후 4대에 걸쳐 ‘로질리Rozilis’라는 이름의 가족 저택에서 천국과도 같은 시절을 보내지만 한 형제의 불화로 가산이 바닥나고 가족들은 유럽 각지로 뿔뿔이 흩어진다 (1910년). 이 평화로운 시대의 마지막 목격자이자 일종의 유배자인 카트린Catherine은 장 마로의 고모 할머니로, 주인공은 이 이야기꾼의 옛 시절 기억을 몇 번이고 반복해 듣는다. “전쟁이 어슬렁 거리는 [I]l a guerre rôde”(RV, 132) 이 도시에서 며잖아 징집 영장을 받게 될 그에게 ‘로질리 이야기’는 암울한 현실을 잊고 잠시나마 꿈의 세계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다¹⁰⁾. 졸업 후 장 마로는 다른 동기나 목적이 없이 오직 징집을 피하기 위해 런던의 한 의과대학에 등록한다. 그로부터 약 6년 뒤 알제리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온 그는 10대의 자신을 그토록 불안하게 했던 전쟁의 흔적들이 말끔히 사라져버린 이 지중해 도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징집 통지서를 보내오는 국가에게 일종의 복수를 하듯 아메리카로 떠나버린다¹¹⁾. 이 때, 작가는 하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지명으로 이어진 이동경로를 나열

10) “[...] enfin il pouvait s'échapper, entrer dans le monde de Rozilis. Jean aurait tout donné pour vivre ne fût-ce qu'une heure au temps de Rozilis. Ne plus avoir devant lui l'avenir pareil à un trou qui aspire, devoir grandir, être quelqu'un, réussir, être un homme” (RV, p. 31) ([...] 마침내 장은 도망쳐서 로질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 로질리 시절을 단 한 시간이라도 살아볼 수 있다면 그는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든 걸 빨아들이는 구멍과도 같은 미래도 사라지고, 성장할 의무도, 누군가가 되고, 성공하고, 한 사람의 남자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어진다면).

11) 장 마로를 다른 곳^{l'ailleurs}으로 떠나게 만든 이 분노 혹은 복수심은 작가 자신이 경험한 감정과 무관하지 않다. 지명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주인공의 고향은 르 클레지오의 출생지이기도 한 니스로 추정된다. 1950년대 니스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그는 이 도시를 “거대한 사회적 불의(不義)이자 거대한 잔혹함”으로 기억하며 자신이 평생토록 세계 어디에서든 느끼고 있는 분노가 여기에서 비롯했다고 설명한다. “C'est que Nice, dans les années 1950, était d'une grande injustice sociale et d'une grande cruauté. Cela me faisait mal. Sous le ciel, la pauvreté et le malheur deviennent monstrueux. J'y ai vu mourir de faim des personnes âgées, de vieux Russes en exil, à une époque où il n'y avait pas de retraites, ni de Sécurité sociale. Et en même temps, ce monde-là secrétait de la philosophie, de même que les présocratiques [...] côtoyaient la misère et l'esclavage. Toutes les indignations que, dans ma vie et dans tous les coins du monde, je n'ai cessé de ressentir viennent très exactement de mon adolescence à Nice, en un temps où les Anglais faisaient la guerre et Malaisie et où les Français exploitaient les Sénégalaïs pour produire de l'arachide…”, (J.-M.G. Le Clézio, 『Les révolutions de Le Clézio』, Jérôme Garcin과의 인터뷰, *Le Nouvel Observateur*, 2003년

하며 당시 장 마로에게 중요한 문제는 어딘가에 ‘도달’하는 것보다 ‘떠난다’는 사실 그 자체였음을 강조한다. 그의 출발은 국방부와 헌병으로 대표되는 식민주의colonialisme로부터의 도주 이자, 마무리를 해야 하는 탐색enquête이었다.

Jean pense à la Suède, au Canada, au Mexique. Tout est prêt pour ce nouveau départ. Il faut aller très loin avant que la gendarmerie ne vienne le chercher. Il faut aller plus loin dans cette enquête, en finir. (RV, p. 383-384.)

장은 스웨덴과 캐나다, 멕시코를 생각한다. 새 출발을 위한 모든 게 준비되었다. 헌병이 그를 잡으려 오기 전에 아주 멀리 가야 한다. 이 탐색을 더 멀리 밀고 나가, 끝을 내야 한다.

Le train, le bateau pour l'Angleterre, le temps de prendre le vol charter pour Toronto, où l'attendait Bryan et Poubelle. Ils avaient trouvé du travail là-bas. Après la route vers le sud, le Greyhound à travers les Etats-Unis, Dakota, Wyoming, Oklahoma, Texas, jusqu'à McAllen. Et puis encore la route vers le sud, jusqu'à Mexico. Par moments, Jean était si impatient qu'il en tremblait. (RV, p. 405)

기차, 영국행 배, 브라이언과 푸벨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토론토행 전세기를 타야 할 시간. 두 사람은 그곳에서 직업을 얻었다. 그 후엔 남쪽으로 향하는 여정, 장거리버스를 타고 미국을 관통하여 다코타, 와이오밍, 오클라호마, 텍사스, 매캘런까지. 그리고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 멕시코까지. 이따금 장은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에 전율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소설은 토론토에서부터 아메리카 대륙을 가로질러 멕시코에 이르는 장 마로의 여정을 위와 같이 단 몇 줄로 요약하는 것에 그치고, 고향 도시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낸 주인공은 ‘국경’을 넘자마자 곧장 멕시코시티의 게레로 지역에 도착해있다¹²⁾. 1968년 이른 봄부터 11월 말까지 이곳에서 장 마로가 겪게 될 일련의 사건들은 그를 동시대의 프랑스 대학생들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경험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국경 넘기’를 비단 지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존적인 차원의 경계 넘기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틀라텔룰코의 밤’이다.

3. 멕시코 저항운동의 복판 또는 언저리에서

멕시코시티에 도착한 장 마로는 여전히 특별한 목적도,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 빈민가 게레로의 허름한 호텔방에 장기투숙하며 잡무를 보거나 어학원 보조강사로 일하며 적은 월급을 받는다. 남는 시간에는 길거리를 배회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싼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이런 식으로 살면 몇 달을 더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알게 된 멕시코 여자 파멜라와 - 그전의 연애관계들에서 그가 보였던 태도와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 연애를 시작한다. 그녀가 끔찍이 아끼는 남동생 호아킨은 기술중학교 학생으로, 처음에는 장을 경계하지만 세 사람은 이내 가까워진다. 인디언의 후손인 이남매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장은 멕시코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발견한다. “피하기 힘

1월 30일).

12) ‘국경Une frontière’은 멕시코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혁명』의 여섯 번째 장의 제목이기도 하다. 즉 ‘국경’이라고 적힌 페이지를 넘김과 동시에 독자들은 니스에서 멕시코시티로 이동하게 되는 셈이다.

든 뒷”과도 같은 이 도시는 “당신을 밖으로 밀어내고, 서서히 갑아먹고, 다시 토해놓는” 곳으로, 여기에서는 “애써봤자 소용이 없고, 어디에나 자유로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장은 단언하고, 이어 “우리는 사라져야만 했다”고 쓰면서 두 남매의 운명을 예견한다¹³⁾. 이것은 몇몇 차별주의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깊숙이 뿐리박힌 인식이라는 듯 작가는 악인을 등장시켜 구체적인 사건을 만들기보다 도시 전체에 펴진 적의와 음침한 분위기를 묘사하는 쪽을 선택한다.

Joaquín et Pamela s'adoraient. Ils ne pouvaient pas rester une demi-journée sans se voir. Ils formaient une cellule à part, en marge de la société. C'était leur moyen de survivre dans cette urbs brutale qui dévorait ceux qui, comme eux, s'y aventuraient, fils des paysans des villages, Otomis mendiant dans la colonia Cuauhtémoc, filles de Naucalpan ou d'Azcapotzalco qui se prostituaient dans les bars de la zone rose, gosses drogués au ciment-colle. (*RV*, p. 444)

호아킨과 패멜라는 서로를 끔찍이 좋아했다. 반나절도 떨어져있지 못했다. 두 사람은 도시 외곽에 따로 작은 방을 얻어 지냈다. 그것이 이 난폭한 도시로부터 살아남는 그들의 방법이었다. 도시는 그들처럼 위태롭게 살아가는 자들, 시골 농부의 아들들, 쿠아우테모크 식민지에서 구걸을 하는 오토미스 인디언들, 장미촌 술집에서 몸을 파는 나우칼판이나 아즈카포찰코의 딸들, 본드에 취한 아이들을 집어 삼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업사회로 진입하던 시기의 멕시코에서 인디언의 후손들은 빈민으로 전락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버려져 있다. 1910년 혁명 이후 50여년이 지난 시점, 세계의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 개발도상국의 도약에 감탄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 심지어 당시 멕시코는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었다¹⁴⁾. 옥타비오 파스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68년 멕시코 학생운동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불평등, 산업사회 시스템이 조장하는 공동체 분열에 대한 인식과 분노가 있었다¹⁵⁾. 장이 한 달 간 과외를 했던 부잣집의 주인 남자 롤레랄란의 말은 인디언들을 향한 이 도시의 폭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3) “De toute façon cette ville était un piège auquel il devenait difficile de résister. Elle vous expulsait vers la périphérie, elle vous rongeait lentement, puis elle vous recrachait. Naucalpan, Azcapotzalco, Nonoalco, Ciudad Satelite, Indios Verdes, Iztacalco, Iztapalapa. On avait beau essayer, on ne pouvait pas être partout. On devait disparaître […].” (*RV*, p. 469).

14) “For the last forty years, and especially for the last two decades the nation's economy has made such strides that economists and sociologists point to Mexico as an example for other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statistics are indeed impressive, especially if one keeps in mind the condition of the nation when the Revolution broke out in 1910, as well as the material and human destruction it suffered during more than ten years of civil strife.” (Octavio Paz, 같은 책, p. 230).

15) “They discover that men are fragmented and separated by modern society: the system, by its very nature, cannot create a true community.” (Octavio Paz, 같은 책, p. 223). 학교에서 배운 혁명적 가치들과 실제 디아스 정부가 보여준 현실 사이의 괴리에 고민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멕시코 청년들의 모습은 카를로스 푸엔特斯의 역작 『로라 디아즈와 함께 한 시대』에서도 볼 수 있다. 1898년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20세기 멕시코 역사의 중요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는 여성 로라 디아즈를 주인공으로 한 이 소설에서 작가는 1968년의 틀라텔룰코에 한 장을 할애한다. 할머니가 된 주인공은 젊은 손자와 그 친구들이 자신의 집에 모여 토론을 하는 장면을 지켜보는데 이때 나오는 대사들은 당시 청년들의 문제의식과 이상주의, 변화에의 열망을 잘 드러낸다. (Carlos Fuentes, *The years with Laura Díaz*, Translated by Alfred Mac Adam, New York, A Harvest Book, 1999, p. 471-479).

« Des clochards, des vagabonds, a-t-il dit. Tant que ce pays ne se sera pas débarrassé des Indiens, il traînera le poids du sous-développement. » [...] « Les Indiens ? Tous à la chicotte, mon vieux ! Tous à la chicotte ! » (RV, p. 473)

“거지고 부랑자들이지. 이 나라는 인디언들 내쫓지 않는 한 후진국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을 거요.” [...] “인디언들이요? 개들은 채찍이나 맞아야지, 이 친구야! 개들한테는 채찍이 딱 맞지요!”

흐릿한 복선들 속에서 사건은 갑작스레 닥친다. “틀라텔룰코의 일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말하기는 어렵다¹⁶⁾”라고 운을 뗀 주인공-학자는 독자를 7월 말 벌어진 중학생들의 시위 현장으로 이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본 도시는 혼란스럽고 모든 게 가로막혀 마비된 상태이다. 어학원도 도서관도, 파멜라가 일하는 공증 사무소도 폐쇄되었으며 호아킨은 정부가 봉쇄명령을 내린 산 일데폰소 중학교 안에 며칠째 감금되어 있다. 소년들의 저항은 7월 30일 새벽 바주카포를 밀고 교실로 쳐들어간 군대의 무력진압으로 끝이 난다¹⁷⁾. 길혀흘타이가 쓴 대로 프랑스에서처럼 “멕시코에서도 치안경찰 투입은 지식인과 학생의 연대에 불을 지폈다. 지식인이 대거 학생과 경찰의 충돌에 개입하고 나섰다. 하지만 멕시코 국가는 대결 전략을 밀고 나갔다¹⁸⁾”. 장 마로의 증언은 극히 주관적인 시선에서 쓰였지만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들을 충실히 옮겨놓는다.

« Une main est tendue », tirait l’Universal du 1er août. En attendant, Joaquín était toujours absent. En prison avec les élèves de la Vocacional, les polytechniques, les étudiants de l’Unam. Díaz Ordaz, l’homme à la main tendue, a lancé les granaderos sur l’université, puis sur les prépartorias 2 et 5. Les tanks et les autos blindées, contre des gosses armés seulement de cailloux. Le 27 août, Jean était sur Reforma lors de la grande marche depuis Chapultepec jusqu’au Zócalo. La foule était énorme, silencieuse. Jean a retrouvé Pamela, ils ont marché la main dans la main jusqu’à la place. (RV, p. 482)

“화해를 요청하다”, 8월 1일자 유니버설 신문의 표제였다. 호아킨은 계속 보이지 않았다. 직업 학교, 기술학교 학생들, 우남대 대학생들과 함께 구속된 상태였다. 화해를 요청한 남자, 디아스 오르다스 대통령은 대학교와 2고교, 5 고교에 데모진압 기동대를 투입했다. 무기라곤 돌멩이뿐인 아이들을 상대로 나타난 탱크와 장갑차 부대. 8월 27일 차풀테펙부터 조칼로까지의 긴 행진이 있던 날, 장은 레포르마에 있었다. 군중의 수는 엄청났지만 고요했다. 장은 파멜라를 다시 만나 두 사람은 광장까지 손을 잡고 걸었다.

실제 1967년과 68년 멕시코에 있었던 작가는 자신의 “쌍둥이 형제¹⁹⁾”와도 같은 인물 장 마

16) “Difficile de dire comment Tlatelolco a commencé.” (RV, p. 475).

17) 이 장면에서 르 클레지오의 문장은 학생들의 나약함faiblesse 또는 부드러움douceur과 정부의 폭력성brutalité를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시적인 어휘들로 구성된다. 이를테면 학생들은 추위와 출음과 싸우며 이야기를 하고 콧노래를 흥얼대는 모습이다. “Certains, malgré la peur, s'étaient assoupis dans le couloir, enveloppés dans leurs blousons pour lutter contre le froid. D'autres avaient veillé en discutant à voix basse, en jouant aux cartes. L'un d'eux avaient chantonné en gratant une petite guitare jarocho.” (RV, p. 479). 반면 무장한 군대의 공격은 난데없고 폭력적이다. “D'un seul coup les vitres ont volé en éclats et les grenades, lancées au fusil, ont explosé dans les salles de cours, suffoquant ceux qui s'y trouvaient. A la même seconde, un granadero a pressé sur la détente et la fusée du bazooka a défoncé la porte, faisant bouler les bureaux et les chaises de la barricade sur les enfants. Le sang a éclaboussé les murs.” (*Ibid.*).

18) 잉그리트 길혀흘타이, 같은 책, p. 198.

로를 이처럼 시위대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청년 연대를 그린다. 그는 “이 부패한 세상과 더러운 거래와 약탈 행위를 더 이상은 원치 않았던 젊은이들의 느리고도 무거운 분노²⁰⁾”에 함께 한 것이다.

반면 주인공은 10월 2일 밤 틀라텔룰코 학살이 벌어졌을 때에는 현장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그 소식을 뒤늦게 접한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미리암에게 쓴 10월 4일자 편지에 상세히 기록되는데 그 첫 머리에는 물론 중간부분에서도 “몰랐어.”라는 말이 거듭해서 나온다²¹⁾. 이 ‘몰랐다’는 말을 대해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 말은 약 32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도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는 이 사건을 논하는 일에 대한 작가의 조심스러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²²⁾. 이날 오후 트레 쿨투라스 광장에 모인 것으로 추정되는 1~2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을 향해 군대는 사전 경고도 없이 무차별 총격을 시작해 이를 30분 이상 지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적으로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듯한 ‘푸른 신호탄’ 하나가 광장의 상공에 쏘아 올려진 것은 대다수의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사실이다. 이튿날 주요 일간지들은 20~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학생과 군대 양측의 총격전이었다고 보도한다²³⁾. 시인 로사리오 카스텔라노스가 「틀라텔룰코를 기억하며」에서 쓴 것처럼 이 사건은 정부와 언론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었다²⁴⁾. 이어진 며칠 동안도 광장에 접근하거나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은 금지되었다.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당시 정부에서 내려왔을 군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상상해서 쓰기도 한다.

“No one has the right to identify a body. No one has the right to remove a body. We will not tolerate five hundred funeral processions in this city tomorrow. Throw them all in a common grave. Allow no one to identify them.”

Make them disappear.²⁵⁾

“아무도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시신을 옮겨서는 안 된다. 내일 이 도시에서 우리는 500명의 장례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모두 하나의 무덤에 던져 넣어라. 아

19) “Ici, j'ai inventé Jean Marro pour ne pas avoir à écrire je. Il me ressemble beaucoup mais ce n'est pas moi. Disons que Jean est un frère jumeau dont je ne peux pas me détacher mais dont je peux à tout moment m'éloigner...” (J.-M.G. Le Clézio, «Les révolutions de Le Clézio», *op. cit.*).

20) “la colère lente et lourde de la jeunesse qui ne voulait plus de ce monde corrompu, de ses trafics, de ses pillages” (*RV*, p. 482).

21) “Je ne savais pas. Je n'ai rien entendu, rien vu. Pourtant j'étais à deux pas, de Luna à Letran, et tout de suite, là, Tlatelolco. J'ai dormi cette nuit-là.” (*RV*, p. 487); “Personne ne savait ce qui s'était en train d'arriver là-bas, à quelques rues à peine, sur la place des Trois-Cultures. On avait entendu parler d'une manifestation, il y en avait tous les jours, des étudiants, des collégiens, des autobus qui parcouraient Insurgentes avec leurs drapeaux et leurs banderoles.” (*RV*, p. 488).

22) 325명이라는 사망자 수 역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옥타비오 파스는 영국의 가디언지가 “면밀한 조사careful investigation”을 벌인 끝에 제시한 이 수치를 “가장 개연성 있다 the most probable”고 쓰고 있으며 (Octavio Paz, 같은 책, p. 235), 르 클레지오 역시 자신의 소설에서 이 숫자를 택한다.

23) Elena Poniatowska, *Massacre in Mexico*, Translated by Helen R. Lan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5, p. 200-201.

24) 포니토우스카의 저서에 수록된 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고문서를 뒤적이지 마라, 아무 기록도 남지 않았으니 No hurgues en los archivos pues nada consta en actas.” (Rosario Castellanos, « Memorial de Tlatelolco » in Elena Poniatowska, *La Noche de Tlatelolco*, Mexico, Ediciones Era, 1971, p. 163).

25) Carlos Fuentes, 같은 책, p. 471.

무도 그들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사라지게 하라.

이처럼 틀라텔룰코 사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은폐됨’이다. 르 클레지오는 이 ‘역사적’ 사건의 불분명함과 애매함을 전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장 마로를 그 시각에 잠들게 했던 것이 아닐까. 다음으로 우리는 ‘몰랐다’는 말을 ‘알아야 할 이야기’의 역설적 표현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잠들어있었다는 주인공이지만 미리암에게 쓰는 편지에서 만큼은 이날의 사건을 세세히 묘사한다. 자신도 몰랐던, 그러나 알았어야 할 그 사건을, 여전히 상상조차 못하고 있을 프랑스의 여자 친구에게 글로 전하는 장 마로를 통해, 르 클레지오는 독자들, 즉 아직 잠들어있을 사람들을 깨워 소식을 알리는 것이다. 게다가 편지의 중간에 세 차례 이탈릭체로 삽입된 몬테수마 황제의 이야기는 16세기의 침략자 코르테스의 야만과 1968년 디아즈 정부의 폭력을 나란히 이어보게까지 한다. 지배계급에 의해 목숨을 잃고 그 죽음마저 은폐되었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사라진’ 이들을 위해 투쟁하는 르 클레지오의 방식은 이처럼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그의 문학이 이루고자 하는 혁명 혹은 혁명적 글쓰기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4. 프랑스의 68을 기록하기, 혹은 기록하지 않기

반대로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들은 『혁명』 안에서 아주 짧게 언급되고, 그 등장방식도 상당히 가볍다. 시내에서 중학생들의 시위가 있던 7월 말, 장은 어느 상인으로부터 « 학생 편이냐 반대편이냐 »하는 질문을 받는데 이때 주인공이 대화의 주제를 ‘멕시코의 학생운동’이 아닌 ‘프랑스의 학생운동’으로 잠시 착각하면서 소설은 ‘Mai 68’를 거의 스치듯 언급하고 지나가게 된다.

Mais quand Jean est allé acheter ses tamales pour le dîner, le vendeur lui a demandé : « Vous êtes pour ou contre les étudiants ? » Jean avait téléphoné à sa mère, il savait ce qui s'était passé en France, les manifs contre de Gaulle, la grève générale, les étudiants qui avaient occupé la Sorbonne, les ordures qui s'entassaient jusqu'au premier étage des immeubles. Il a cru que le vendeur avait entendu parler de cela aux nouvelles, il a dit : « Je suis pour les étudiants, bien sûr. » Ensuite il a compris que c'était de Mexico qu'il était question. (RV, p. 476-477)

장이 저녁으로 멕시코의 학생운동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상인이 물었다. « 맥은 학생편이요 반대편이요? » 장은 어머니와 통화를 했던 터라 프랑스에서 벌어진 일들을 알고 있었다. 드골 반대 집회, 총파업, 소르본을 점거한 대학생들, 건물의 2층까지 쌓인 쓰레기들. 상인이 뉴스에서 그 얘길 들었나 보다고 생각한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 당연히 학생들 편이죠. » 그리고는 그게 멕시코 얘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프랑스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이며 그 폭발력과 불가사의함을 놓고 셀 수 없이 많은 토론이 펼쳐지고 저서가 쏟아졌던 –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 ‘Mai 68’를 이와 같이 단 한 줄로 요약해버리는 작가에게서 우리는 거의 ‘고의적인 무관심’을 보게 된다. 그의 속내는 『혁명』 출간 직후 있었던 제롬 가르생과의 인터뷰에서 더 잘 드러난다.

Je découvrais au Mexique un champ de bataille perpétuel où plus rien ne séparait la

vie de la mort. A côté, le Mai-68 parisien me semblait, de loin, dérisoire. Et plus dérisoire encore l'affolement de la population niçoise, soudain incommodée parce qu'on ne ramassait plus ses ordures et que des rats circulaient dans les rues. Je ne méprisais pas le mouvement étudiant, disons que je le relativisais.²⁶⁾

멕시코에서 저는 더 이상 그 무엇도 삶과 죽음을 갈라놓지 못하는 영속적인 전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에 비해 파리의 68은 제가 멀리서 봤을 때는 가볍게 보였지요. 니스에서 쓰레기 수거를 안 해가서 길에 쥐들이 들끓게 된 것에 주민들이 갑자기 불평하며 난리를 한 것은 더 우스웠고요. 학생운동을 폄하했던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보게 됐다는 겁니다.

장 마로가 파리로 돌아온 뒤에 발견하게 되는 풍경도 전체적으로 대수롭지 않고, 시시한 분위기를 이룬다. 그런가 하면 주인공이 팡테옹 광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고교동창 말라테스타와의 대화 장면은 68세대의 자아도취적인 면모를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Devant un crème, il avait demandé : « Où étais-tu en mai ? » Jean a répondu, juste pour se moquer : « Moi ? A la plage, quelque part au Mexique, pourquoi ? » Malatesta avait des projets, le monde lui semblait meilleur, plus libre, plus chargé de sens. « Tu ne peux pas savoir ce qui s'était passé ici, un vrai psychodrame, on a tous déchargé, c'était jouissif. » Il parlait un langage mystérieux. Il a même confié son secret, comme cela, quasiment au premier venu, [...]. « Je suis inscrit au Parti, maintenant on me confie des missions. Par exemple, je dois écrire le prochain discours d'un homme important, un futur ministre. » Jean a feint l'étonnement : « Ah bon ? Un futur ministre ? Il n'a écrit pas ses discours lui-même ? » Malatesta fumait cigarette sur cigarette, son haleine empestait. « Enfin, tu ne te rends pas compte ! Quand tu es dans la politique, tu n'as pas le temps. Et puis, c'est une œuvre commune, ce n'est plus l'individu qui compte, c'est le mouvement général, le courant. » La formule avait l'air de lui plaire, il hochait la tête et répétait : « C'est le courant, tu comprends ? » (RV, p. 523)

밀크커피를 앞에 두고 그가 물었다. “5월에 어디 있었어?” 장은 그저 그를 놀려주려 이렇게 대답했다. “나? 멕시코 어느 해변에 있었는데, 왜?” 말라테스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그에게 세상은 더 나은 곳, 더 자유롭고, 의미가 가득한 곳으로 보였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진정한 사이코드라마였지. 사람들은 있는 대로 다 쏟아냈어. 진짜 즐거웠는데.” 그는 알아듣기 힘든 말을 했다. 심지어는 거의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는 듯 자신의 비밀을 털어 놓기까지 했다. [...] “난 정당에 가입했어. 이제 그쪽에서 나한테 임무도 맡겨. 이를테면 미래의 장관이 될 중요한 인물의 다음 번 연설문을 내가 쓰는 거지.” 장은 놀란 척을 했다. “정말? 미래의 장관? 그 사람은 자기 연설문을 직접 안 쓰나 보지?” 말라테스타는 연신 담배를 피워 입에서는 악취가 났다. “넌 이해 못해! 정치를 하면 시간이 없잖냐. 그리고 이건 공동 작업이야. 중요한 건 이제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움직임, 흐름이지.”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복했다. “흐름이라고, 알겠냐?”

ENS 2학년 생인 말라테스타가 회상하는 파리의 68은 멕시코의 68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비극이나 저항보다는 일종의 축제에 가까워 보인다. 드골의 퇴진을 요구하고, 노동자가 공장을 직접 경영하는 세상을 꿈꿨던 시민들은 둘 중 하나도 얻지 못한 채 운동을 접었으나 말라테스타에게서는 아쉬움이나 분노가 읽히지 않는다. 도리어 그는 승리한 자가 느낄 법

26) J.-M.G. Le Clézio, 『Les révolutions de Le Clézio』, *op. cit.*.

한 자신감에 차있다. 미래에 대해 낙관하며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도 ‘임무’를 맡았다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이 역시 개인적인 출세욕이 충족되고 있을 때 느낄 법한 만족감과 분명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5. 파멜라와 호아킨의 ‘사라짐’

멕시코의 저항운동에 참여했던 두 청년 파멜라와 호아킨의 ‘그 후 이야기’는 말라테스타의 미래 계획보다 훨씬 조용히 일어나지만, 고통 속에 끈질기게 투쟁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혁명의 연장’에 한층 더 가까워 보인다. 두 사람은 10월 말, 집을 나서서 길고 복잡한 여정 끝에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간다.

Il s'en vont tous les deux vers le nord, vers leur destin, le car roule de plus en plus vite sur l'autoroute qui pénètre dans l'hiver. Ils disparaissent. (RV, p. 498)

두 사람은 함께 북쪽으로, 그들의 운명을 향해 간다. 버스는 겨울을 파고드는 고속도로를 따라 점점 빠르게 달린다. 그들은 사라진다.

이들의 도주, 자발적 사라짐disparition을 우리는 전복적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시는 이들을 밀어내고 군대는 이들을 살해하려 하고 심지어 그 시신마저 숨기려 했던 지금까지의 ‘사라짐’이 위협이고 탄압이었다면, 여기에서의 ‘사라짐’은 두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남는 쪽을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이들을 향해 이어져온 권력의 압제와 폭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희망을 갖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 도주, 혹은 살아남기는 그 자체로 혁명이 된다.

6.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소설『혁명』에서 그려진 1968년의 두 도시, 멕시코시티와 파리에서의 학생 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계사에서 덜 알려진 사건에 훨씬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는 글쓰기에서 우리는 르 클레지오의 작가적 사명을 엿볼 수 있었다. 국가와 개인, 침략자와 원주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서 ‘혁명’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이 작품을 출간한 뒤, 작가는 “반향이 있기를, 반응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²⁷⁾. 그가 기대했던 반향이란 무엇일까? 멕시코 사태에 관해서라면 아마 물음을 함께 던지는 것이 아닐까? 옥타비오 파스, 엘레나 포니아토우스카를 비롯해 틀라텔롤코 학살에 관심을 놓지 않은 대부분의 작가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묻고 있는 것은 “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는 것이다. 자신의 책에서 파스는 당시 학생들의 요구는 ‘개혁’이었지 ‘혁명’이 아니었으며 어떤 면에서도 정권을 위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논증했다²⁸⁾. 포니아토우스카는 우리가 끝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추지 않는다²⁹⁾. 여전히 깨어진 유리조각처럼 흩어져있는 이 사건을 알게 되고, 기억하고, 왜 그랬는

27) J.-M.G. Le Clézio, «Les révoltes de Le Clézio», *op. cit.*

28) Octavio Paz, 같은 책, p. 232.

29) Elena Poniatowska, 같은 책, p. 207.

지를 묻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 소설이 독자들의 내면에 일으키고자 했던 ‘혁명’의 바람일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뤘고, 지난 3년 간 전대미문의 ‘정치 혁명’을 실현해낸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 소설의 다양한 인물들을 거울삼아 혁명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짊어 한때 품었던, 혹은 지금에도 여전히 품고 있는 ‘혁명의 꿈’을 삶 속에서 어떻게 지속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도 좋겠다.

참고문헌

1. 르 클레지오 저서 및 인터뷰

LE CLEZIO, J.-M.G., *Révolutions*, Paris, Gallimard, 2003.

LE CLEZIO, J.-M.G.. 《Les révolutions de Le Clézio》, Jérôme Garcin과의 인터뷰, *Le Nouvel Observateur*, 2003년 1월 30일.

2. 그 외 참고문헌

FUENTES, Carlos. *The years with Laura Díaz*, Translated by Alfred Mac Adam, New York, A Harvest Book, 1999.

PAYARD, Bibia, *Mai 68*, Paris, coll. « Que sais-je ? », PUF, 2018.

PAZ, Octavio. 《Olympics and Tlatelolco》, *The Labyrinth of solitude and other writings*, New York, Groove Press, 1994.

PONIATOWSKA, Elena. *Massacre in Mexico*, Translated by Helen R. Lan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5.

SALLES, Marina. *Le Clézio. Notre contemporain*, Rennes, PUR, 2006.

잉그리트 길혀흘타이, 『68혁명, 세계를 뒤흔든 상상력』, 정대성 역, 창비, 2009.

조지 카치아피카스, 『신좌파의 상상력, 세계적 차원에서 본 1968』, 이재원, 이종태 공역, 이후, 1999.

제2분과 : 68혁명과 문화·예술

- 68혁명과 만화 / 한상정
- 2000년대 프랑스영화에서 68혁명을 기억하는 관점 / 이선우
- 68혁명과 음악 / 장인종

68혁명과 만화

한상정 (인천대학교)

1. 들어가며

베트남 전쟁 반대에서부터 시작한 전 지구적인 저항운동¹⁾이었던 68혁명은, 프랑스에서는 특히 ‘기존의 권위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고무한 이른바 거대한 문화혁명²⁾’으로 평가된다.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 만화계가 1960년대를 ‘진정한 문화적 혁명(une véritable révolution culturelle)³⁾’의 시대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아이들이나 보는 놀이거리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가치중립적인 표현형식이며, 또한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가능성이 탐색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60년 만화라는 표현형식의 탄생 이후 아이들의 전유물로써, 다양한 동시대적, 사회적 주제, 형식적 탐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관습, 따르고자 하지 않는 이들에겐 일종의 억압적 기제로써의 관습이 혁파되는 에너지가 넘친 시기라는 의미일 것이다. 68혁명이 광범하고 포괄적인 사회적 흐름이었다면, 만화계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공존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정이다.

그렇다면, 1960년대의 만화계의 변화는 어떤 것이었고, 시대적 흐름과 어떻게 일치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의 재현형식으로써 만화는 68혁명을 다양한 방식과 시선으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작품들을 언급하기는 어렵겠지만, 특정한 유형들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2차 문헌들의 과도한 활용은 향후 수정하려고 한다.

2. 1960년대 만화계의 변화

2-1. 《필로트(Pilote)》를 중심으로 본 작품들의 변화

프랑스에서도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만화는 아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1966년 9월 19일 《익스프레스(L'Express)》지(誌)는 표지를 <아스테릭스(Astérix)>로 내면서 ‘아스테릭스 현상’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주된 내용은 이 작품의 놀라운 대중성, 그리고 성인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만화책을 읽는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1966년경이 되어야 성인들이 만화를 읽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창피해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인들도

1) 잉글리트 길허틀타이, 정대성 옮김, 『68혁명, 세계를 뒤흔든 상상력 : 1968 시간여행』, 창비, 2015.

2) 류은영, <68혁명과 현대 프랑스 문학장>, 《외국문학연구》 제27호, 2007, p. 103.

3) Tierry groensteen, *la bande dessinée son histoire et ses maîtres*, Flammarion. 2009, p. 101.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작품들의 지속적인 출간을 통해 성인독자층의 유입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결과적으로 독자층의 확대가 정착되고, 이 독자들을 위한 성인만화가 출간되는 순환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인가? 성인만화의 정착은, 아동이라는 독자군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을 성인들도 읽으면서 그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한다는 차원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성인들‘도’가 아니라 성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로, 한결음 더 나아가, 특정 독자군을 상정하고 창작한다는 자체에서 벗어난 작품군도 창작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만화에 대한 차별적 시선, 즉 ‘아이들이나 보는 거지’라는 접근법에서 벗어나서 가치중립적으로,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맥락이 확장되는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아스테rix 현상 만으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기는 어렵다. <아스테릭스>가 연재되고 있던 만화잡지 《필로트》가 창간된 것은 1959년이다. 하지만, 이 잡지가 다른 기사들보다 만화를 주로 연재하게 되었던 시기는 1963년 조르쥬 다르고(Georges Dargaud)가 르네 고시니(René Goscinny)와 장-미셸 샤를리에(Jean-Michel Charlier)에게 편집장을 맡기면서부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8년 까지만 해도 여전히 이 잡지의 부제는 ‘아스테릭스 와 오벨릭스의 잡지(Le journal d’Astérix et d’Obélix)’였고, 몇 가지 아주 개성적인 작품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아동만화잡지에 실리던 관습적인 작품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교양함양과 놀이를 지향하는 성격’⁴⁾도 혼용되어 있어 《필로트》가 가지는 진보성을 보여주었던 시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만화로의 확장은 다른 잡지들이나 단행본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일례로 1960년 월간 풍자잡지 《하라-키리(Hara-Kiri)》의 창간을 들 수 있다. 부제는 ‘어리석고 심술궂은 잡지(journal bête et méchant)로, 풍자의 신랄함으로 1961년에 발간 중단, 1966년에는 9개 월간의 발매중지 되었다. 이 잡지에서 당시의 젊은 작가였던 카뷔(Cabu), 레이저(Reiser), 제제(Gébé), 롤랑 토포르(Roland Topor), 볼랑스키(Wolinski)가 작품을 연재했고, 이들의 상당수가 잡지가 발매중지 된 이후 《필로트》에 합류하게 된다. 1962년부터 <V 잡지(V Magazine)>⁵⁾에 장 클로드 포레스트(Jean-Claude Forest)가 <바바렐라(Barbarella, 1962년)>를, 자크 롭(Jacques Lob)과 조르쥬 피카르드(Georges Pichard)의 <흰 주현절(Blanche Épiphanie, 1967년)>같은 만화를 연재했다. 모두 검열 때문에 원고를 수정해야 했다. 1964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슈슈(Chouchou)》라는 만화잡지도 있고, 1965년부터 《바이앙(Vaillant)》에 발표했던 니키타 망드리카(Nikita Mandryka)의 <마스크 오이(Le Concombre masqué)> 와 1966년에 발표했던 필립 드루이에(Philippe Druillet)의 단행본 <심연의 미스테리(Le Mystère des abîmes)>에 등장했던 주인공 로운 슬로안(Lone Sloane)은 각기 71년, 70년에 《필로트》에 합류하여 이 잡지의 대표적인 작품이 된다. 이 잡지들에 실린 작품이나 작가들은 기본의 아동용 만화와는 결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었다.

68년 5월 30일(No.449)부터 6월 20일(No.450) 사이, 68혁명의 여파로 종이유통의 어려움 때문에 《필로트》는 3주간 휴간해야 했다. 이 사이, 5월 21일에 열린 작가들의 모임에서 이들은 잡지 원고의 일부를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발언하는 코너(pages d’actualité)’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8월 1일(No.456) 프레드(Fred)와 제베(Gébé)가 시작했고, 보통은 두 작가가

4) Thierry Groensteen, <pilote : 68, le changement dans la continuité>, <http://neuviemeart.citebd.org/spip.php?article1180>

5) 이 잡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Benoît Preteseille, <Eric losfeld, 1964-1968 : l’émergence d’une autre bande dessinée>, <http://neuviemeart.citebd.org/spip.php?article1207>

함께 이 코너를 채웠으며, 몇 주 지나면 다른 작가들이 물려받았다. 이 공간을 통해 진짜 《필로트》의 정신이라고 할 만한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특정한 관습적 형식에 억매이지 않고, 작가들이 마음대로 카툰이건, 스토리가 있건, 사진을 삽입하건,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만들어졌다. 다양한 연출적 시도 및 실험과 더불어 이른바 68혁명에서 주창되었던 환경주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등의 사유들이 분출되기 시작⁶⁾했다. 이어 이 잡지의 성격에 가장 걸맞는 대표적인 작가로 꼽히는 4인방, 망드리카, 드루이에, 브레테세(Claire Bretécher), 알렉시스(Alexis)가 합류하면서 이 잡지가 스스로 내세우는 정체성이 담긴 슬로건‘사유하기 위해 즐기는(Le Journal qui s'amuse à réfléchir)⁷⁾’이 만들어졌다. 결국 《필로트》는 이제 아동들의 손에서보다, 대학생들의 손에 더 많이 잡히는 잡지가 된 것이다. 이러한 《필로트》의 황금기는 1968년부터 1974년, 고시니가 이 잡지를 떠나는 시점까지로 보고 있다. 그로엔스틴은, 《필로트》가 만화계의 가장 혁명적인 잡지가 된 이유는, 69혁명의 분위기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고시니의 열려있는 정신 덕분이었다고 주장⁸⁾한다. 물론, 편집장으로써 자기와 성향이 다른 다양한 작가들을 잡지에 연재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그렇다고 이 잡지에 작품을 연재하는 작가들의 관심과 역량이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만화를 혁신하는 주된 움직임은 다른 잡지들 《샤를리 망쉬엘(Charlie mensuel, 1969)》，《에코 데 사반느(L'Écho des savanes, 1972)》로 넘어가게 된다.

2-2. 만화 관계자, 2차 생산자들의 형성

68혁명이 기존의 관습에 대한 거부와, 거부에 대한 다른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다면, 이러한 변화는 만화 자체가 아니라, 만화와 관련된 2차적 생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몇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을 언급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라-키리》가 출간금지를 당했을 때, 인문학자 및 문화예술가들이 이의 해제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60년대만 하더라도 여전히 1949년에 제정된 ‘청(소)년 출간물에 대한 법률(loi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설사 표현의 자유와 상충된다는 점에서는 한 걸음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상의 모호성은 비판받을 만 하다. 하위 조문에서 그 대상이 아동(Enfance), 청소년(adolescence), 청년(jeunesse)를 오갔기 때문에, 검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J2(6-12살)와 J3(13-21살) 대상의 모든 작품들이라고 추정⁹⁾하고, 표현을 조심해야만 했다. 프랑스 나이 기준이므로,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살씩 더해야 한다고 보면, 이 제한범위가 과도하게 넓다고 볼 수 있다. 여하간 이 법에 따라 출간물감시위원회는 1961년에도 《하라-키리》의 발간을 금지했었고, 1966년 이 잡지의 판매부수가 20만부를 넘어서자 출간을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당시 유명한 인문학자 및 예술가들이 1966년 7월 15일, 《르 몽드》는 많은 이들이 내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탄원서에 사인했다는 소식을 내보냈고, 한참 뒤인 9개월 만에 《하라-키리》가 해금되었을 때 이 편지 내용이 공개되었다. 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 아라공, 사르트르, 알랭 드네, 에드가 모랭 등의 이름을 발견할 수¹⁰⁾ 있다.

6) Tierry groensteen, 2009, *op.cit.*, p. 101.

7) 1970년 10월 15일(571호)부터 슬로건이 바뀌었음.

8) Thierry Groensteen, <pilote : 68, le changement dans la continuité>, *op.cit.*

9) Laurent Gerbier, <Entre petits et grands : les incertitudes de l'adresse à la jeunesse dans <pilote> (1959-1966)>, <http://neuviemeart.citebd.org/spip.php?article1199>

10) Christophe Chavdia, <Il était une fois hara-kiri, « journal bête et méchant », et ses interdictions>, <http://neuviemeart.citebd.org/spip.php?article1207>

두 번째로는 만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점¹¹⁾을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 만화에 대한 담론이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이고, 이때는 특정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에 대해서 다루는 에피소드나 수필, 인상비평 정도에 불과했다. 1962년에 <만화 클럽(Club des Bandes Dessinees : CBD)>이 결성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시스 라카생(Francis Lacassin), 영화감독인 알랭 르네(Alain Resnais), 그리고 역사학자인 피에르 쿠퍼리(Pierre Couperie)가 대표적이다. 멤버는 아니었으나 함께 동조했던 이들로 이에 깊게 동조를 표시한 이들로, 잘 알려진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페데리코 펠리니(Federico Fellini)가 있다. 이들이 ‘베데필(bedephilie)’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이 너무 옛날 만화에만 쏠려 있었고, 만화를 문학의 하위 형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이유로 이 클럽은 ‘시각적 표현문학 연구센터(Centre d’Etude des Litteratures d’Expression Graphique : CELEG)’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1964년 이 모임에서 나온 일부가 ‘그려진 문학 연구회(Societe Civile d’Etude et de Recherche des Litteratures Dessinees : SOCERLID)’를 만들게된다. 6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대학내에서도 만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시작된다.

세 번째로, 1967년 파리 장식미술관에서 최초로 ‘만화와 서사적 형상화(Bande dessinée et figuration narrative)’라는 주제로 만화전시가 열린다. 4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열린 이 전시회는 개최 1주일 만에 약 50만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았고, 동시에 개최되고 있었던 <피카소 전>과 맞먹는 기록이었다¹²⁾고 한다. 사실상, 이 전시를 기획한 그룹이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SOCERLID임을 알고보면, 만화에 대한 연구가 만화와 독자와의 만남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산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최초로 공공미술관에서 열렸던 이 만화전시를 필두로, 서서히 만화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2차적인 활동들이 개화할 준비를 했던 시기가 1960년대이기도 하다. 1974년에 제 1회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의 개최 이면에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존재했다.

1960년대에 만화형식은 오랜 사회문화적 비난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문학적 합법화 과정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비평과 연구, 전시, 축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2차 생산자들을 산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을 탄생시켜 낸 것이다.

3. 작품 속 68혁명 재현 양태

의외로, 68혁명 이후 그 즈음에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작품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얼마 전에 일어난 거대한 사건을 동시적으로 서사의 주요한 부분으로 삽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68혁명이 만화작품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었는가를 구분하려면 크게 네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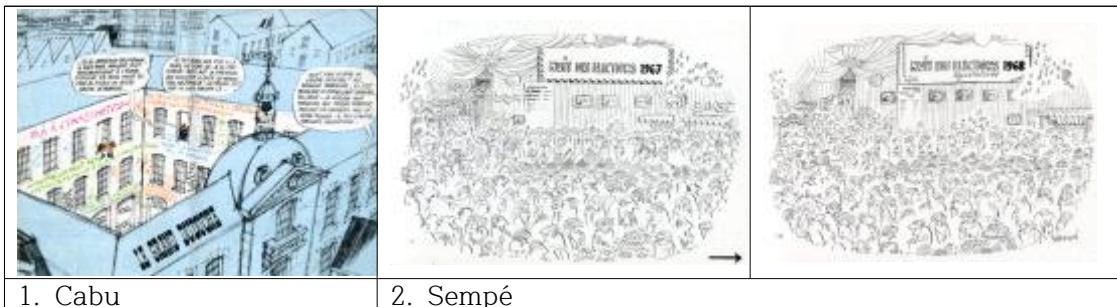
첫 번째로, 68혁명의 부분적, 형식적 재현물들이다. 그로엔스틴은 자신이 아는 한 《필로트》

11) Jean-Philippe Martin, <La théorie du 0 %. Petite étude critique de la critique en bande dessinée>, Critix 1호, 온라인에 게시되어있음.
<https://journals.openedition.org/comicalites/827>

12) 한상정, <만화전시의 출발과 그 의미>, http://www.komacon.kr/dmk/manhwazine/zine_view.asp?cateNum=414_11&Tag=&seq=1266&no wPage=3&srh_fld=&srh_txt=

에서 직접 이 사건을 다룬 경우는 68년 6월 451호에 실린 카뮈의 <그랑 뒤크세(Grand Duduche)> 밖에 없다¹³⁾고 한다(도판 1 참조). 68혁명에 대한 그 어떠한 설명이나 묘사 없이, 단지 주인공이 보이는 학교건물의 벽에 익숙한 68혁명의 구호들을 적어둔 것이다 : « Oui à l'imagination », « Défense d'interdire ». 이미 작품 자체가 기존 사회의 각종 억압에 대해 비판해왔던 것에 비해, 이 정도의 묘사는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라고 본다.

두 번째로, 작품의 소재나 장르는 68혁명과 전혀 무관하지만, 68혁명의 정신이 내포된 작품 군들을 분류할 수 있다. 즉, 전혀 68혁명을 작품 속에 등장시키지 않지만, 68혁명의 다양한 이데올로기, 인종 및 소수민족 차별, 성차별에 대한 저항, 성의 해방, 전쟁과 핵 반대, 평화운동, 환경·생태주의, 페미니즘 등 다양한 자유들이 등장인물의 발화들 속에 등장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이미 68혁명 이전에도 작품들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68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발견할 수 있다. 필립 비들리에(Philippe Videlier)¹⁴⁾는 특히 피에르 크리스탕(Pierre Christin)이 시나리오를 쓴 작품들 속, 특히 1972년 1월 13일 《필로트》에서 발표한 <오늘의 전설 : 루에르 그의 루머들(Une légende d'aujourd'hui : Rumeurs sur le Rouergue)>에서부터 68혁명이 주창했던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68년 이후의 《필로트》, 《샤를리 망쉬엘》, 《에코 데 사반느》 등의 잡지에 실린 많은 작품들이 68혁명의 사상들을 전달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68혁명을 허구적 스토리의 극적인 요소로써 활용하는 것이다. 즉, 68혁명이 주제는 아니지만, 스토리의 일정 부분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으로건 픽션 내에서 소화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스토리 속에 68혁명이 처음 등장하는 작품은 25년 가량이 흐른 1993년에 처음 등장¹⁵⁾하는데, 매튜 스크리치(Matthew Screech)은 68혁명을 직접적이건, 간접적으론 대부분의 작품들이 사실상은 신화적 판타지에 가까우며 이 현상은 이미 1993년의 이 작품부터 발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68혁명의 재현이 신화화되고 있다는 점은 캡드비에이으(Capdevieille)와 레이(Rey)¹⁶⁾, 그리고 시리넬리(Sirinelli)¹⁷⁾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이 의미는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을 정확히 다루지 않고, 특히나 '학생들의'

13) Thierry Groensteen, <pilote : 68, le changement dans la continuité>, *op. cit.*

14) <le souffle de mai 68 dans l'œuvre de pierre christin>,

<http://neuviemeart.citebd.org/spip.php?article1196>

15) Bodard et Yann, *Célestin Speculoos, tome 2 : Mai 68*, Glenat, 1993.

16) Capdevieille, Jacques et Henri Rey, dir. *Dictionnaire de Mai 68*. Larousse, 2008, p.18.
Matthew Screech, <le mythe de mai 68 et la bande dessinée>,

<http://neuviemeart.citebd.org/spip.php?article1205> 에서 재인용.

17) Sirinelli, Jean-François. Mai 68. *L'événement Janus*, Fayard, 2008, p. 271. Matthew Screech 윗글에서 재인용

항쟁과 도덕의 해방'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68혁명 40주년인 2008년에 이르면 신화적 판타지가 거의 완성된다고 분석한다. 2008년 이전까지의 두 작품¹⁸⁾도 이미 68혁명을 신화적 판타지의 입장에 가깝다고 본다. 그 어떤 장르이건(코미디건, 스릴러물이건) 불구하고 이 작품들에서 68혁명은 언제나 '예외적인 순간으로, 모든 규범들이 멈추고, 모든 것이 가능한 순간'으로 다뤄지고 있다.

네 번째로는 68혁명을 설명하는 작품들이다. 스크리치는 앞서 68혁명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신화적 판타지를 재현하고 있으며, 몇 작품만 이러한 신화에 회의적이라고 했다. 두 가지의 경향으로 본다면, 오히려 최초의 작품들에서는 전혀 신화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초기의 작품들은 상페(Sempé)와 브레테세이다. 1968년, 상페가 68혁명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예리한 비판을 하고 있다¹⁹⁾(도판 2), 1978년 브레테세는 아버지가 68혁명에 참가했다는 말을 믿지 않는 딸의 모습²⁰⁾을 보여준다. 10년이 지난 후, 68혁명은 마치 그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68혁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작품들은 대부분 신화화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신화적 입장에 회의적인 작품들은 오히려 솔직으로 적은 편²¹⁾인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띠는 작품은 2010년에 퓨트리 폴리스(Futuropolis)에서 발간한 에르베 탕커렐(Hervé Tanquerelle)과 얀 브느와(Yann Benoît)의 <공동체(La Communauté)>이다. 이 작품은 저자들이 직접 당시 68혁명에 참여했던 젊은 이상주의자들, 그리고 이후 자급자족을 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살아왔다가 결국 해체해야 했던 그룹의 인터뷰를 통해 이 역사적 사건과 삶의 관계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몇 작품을 제외한 대부분은 68혁명을 신화적 판타지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알렉산드르 프랑(Alexandre Franc)와 아르노 뷔로(Arnaud Bureau)의 <68년 5월 혁명(Mai 68. Histoire d'un printemps)>²²⁾(도판 3)을 들고 있다.

| | |
|---|--|
|  |  |
| 3. 68년 5월 혁명, 2008 | 4. Les Isolés, 2007 |

18) 다른 작품은 2004년의 것이다. Jean-Christophe Grangé et Philippe Adamov, *La Malédiction de Zener*, t.1 Glénat, 2004

베르탕드 티이에(Bertrand Tillier)²³⁾는 이 작품의 두 가지 장점을 지적한다. 우선 시나리오의 우수성인데, 주인공을 68혁명을 연구하는 역사학 박사과정으로 두고, 그가 옛날에 68혁명을 경험했다고 하는 다양한 ‘전형적인’ 구성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을 엮어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작화가가 이 작품을 위해 자신의 작화스타일을 변화시켰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분석에, 작화가의 이러한 스타일의 변화(도판 3과 4의 비교)는 인용이나, 모방, 특히 68혁명 당시의 포스터를 작품 내에 삽입하기 위해 포스터 이미지의 재현 스타일을 자신의 작화로 활용했다고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스크리치는 이러한 작화 스타일 역시 68혁명을 신화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단순화된 그림체는 ‘약화된 폭력, 무해한 환상’의 제공으로 여전히 68혁명을 ‘사회문화적 해방’으로 바라보게끔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작품들에서 68혁명은 ‘피터지고 혁명적인 수많은 불만들의 폭발이 아니라, 근대화로의 변형을 야기한 현상처럼 여겨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작품의 서문을 쓴 콘벤디트(Cohn-Bendit)를 작품 속에서 영웅처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도 놓치지 않는다.

4. 나가며

프랑스가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만화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1960년대의 이런 혁명적 전환 덕분이다.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만화작품 없이 타국만화의 수입으로 만화적 즐거움을 대체하고 있는 반면, 불어권의 만화는 전 세계 만화계에서 하나의 다양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60년대 그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무엇보다 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작품들과 작가들의 존재이다. 1949년의 출판검열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품들이 발간될 수 있었던 기저는 잡지였다는 것이 아닐까. 혼자서는 어려웠을지 모르나, 함께 연재했던 동료들, 열려있는 정신을 가진 편집장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는 발행인들이 검열에 걸리기에 충분한 작품들을 발표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덕분에, 만화는 아이들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대학생과 성인들이 읽기 시작했고, 이들이 작품들을 보호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한다. 50년이 지나는 동안, 68혁명의 현실성과 풍부성, 다양성과 모호성은 거세되고, 몇 가지 단순한 문장들로 성격을 규정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조금씩 잊혀지는 것이 당연한지 모른다. 어쩌면 그 지점을 다시금 풍성하게 살려내는 것에 연구나 재현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19) Jean-Jacques Sempé, *L'Information consommation*, Denoël, 1968.

20) Matthew Screech, *op.cit.*

21) 세 작품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Rossi, Christian et Mathieu Sapin. « L'Esprit de Mai ». *Pilote. 60 auteurs réinventent Mai 68*. Paris : Dargaud, 2008 : 138-141.

Dominique Grange et Jacques Tardi, 1968-2008. *N'effacez pas nos traces!*, Casterman, 2008. Hervé Tanquerelle, et Yann Benoît. *La Communauté*. Paris : Futuropolis, 2010.

22) Alexandre Franc et Arnaud Bureau, *Mai 68. Histoire d'un printemps*, Berg International, 2008.

23) Bertrand Tillier, <De l'affiche à la bande dessinée : à propos de l'album "mai 68, histoire d'un printemps">, neuviemeart.citebd.org/spip.php?article1208

2000년대 프랑스 영화에서 68혁명을 기억하는 관점들

이선우 (서울대학교)

1. 영화 속의 68혁명 : 공적 담론에서 사적 이야기로

‘68년 5월’도 벌써 50년 전의 일이 되었다. 그 사이, 68혁명의 바람이 가장 거세게 불었던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면서 68은 이제 지난 세기 역사의 한 페이지로 온전히 자리 잡았다. 주지하듯이, 68혁명은 어느 하나의 통일된 사상이나 이념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이 운동의 중심 세력들은 각기 다른 이념을 표방하는 다양한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폭넓게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68의 정신에 영향을 끼치거나 반대로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중요한 담론들은 분명히 존재했고¹⁾, 이는 정치, 사회, 문화, 예술을 경유해 일상의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68과 영화와의 관계, 정확히는, 영화에 드러난 68의 기억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발표에서는 바로 이 일상적이고 사적인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영화는 그 어떤 예술보다도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해낼 수 있는 장르이자, 동시에, 당시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거나 혹은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던 사적 기억에 대한 고백의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 영화는 일종의 “반(反)역사(contre-histoire)” 혹은 비공식 역사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영화는 기록문서들 – 그것은 흔히 공식 기관에 의해서 보존되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로부터 벗어나 있는 역사이다. 공식 역사의 대척점(對蹠點)에서 활동하면서 의식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영화는 역사의 한 주체가 된다.”²⁾

다소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정작 68 당시에는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류 영화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60년대의 프랑스 영화계는 여전히 누벨바그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던 시기였다. 누벨바그는 소위 아버지의 영화라 불리는 기준의 프랑스 영화에 반기를 든 젊은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새로운 영화를 추구했던 혁신적 움직임이었다. 더하여, 앙리 랑글루아 해임 사태에 대한 영화계의 거센 반발은 68의 직접적인 시발점 중에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누벨바그 감독들 중에 68을 테마로 삼은 경우는 드물었으며³⁾ 고다르의 <중국 여

1) 마르쿠제, 사르트르, 알튀세, 푸코 등은 68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철학자로 언급되며, 마오주의, 상황주의, 해체주의 등은 각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주요한 사상이었다.

2) 마르크 페로, 『역사와 영화』, 주경철 옮김, 서울 : 까치, 1999, p.11.

3) 누벨바그는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정치성이 배제된 낭만적 허무주의만을 드러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방황하는 불안정한 인물의 캐릭터를 통해, 다른 측면에서 생생한 질문들을 제기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68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 : 『Pensez le surgissement de l'événement』 : Entretien avec Alain Badiou, De Baecque (Antoine) et al., *cinéma 68*, Cahiers du cinéma, 2008, p.33-34.

인 *La Chinoise*(1967) 정도를 떠올릴 수 있을 뿐이다. 고다르는 <중국 여인> 이후에도 마오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1968년 ‘지가 베르토프 그룹’을 결성하여 한동안 마오주의 노선을 따라 작업하기도 했다.

오히려, 누벨바그 밖에 위치하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운동권 감독들이 다큐나 단편을 통해 68의 정신을 영화에 담고자 했다. 예를 들어, 로맹 구필의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또는 다큐멘터리적 스타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68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날까지도 연출해 오고 있다.⁴⁾ 그런데 당시에 68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영화들은 정치 사회적 이데올로기, 즉 특정한 이념을 따르는 방식으로 68의 정신을 드러내고자 했다.⁵⁾ 또한, 학생보다는 노동자의 투쟁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자신의 시대에 진지하게 임했던 동시대인으로서의 신념과 고민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이념적 투쟁은 68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한 지점임에는 틀림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68은 일상의 영역을 흔들고 있었다. 즉, “68년 5월 운동은 정치적이기에 앞서 문화적이었고, 새로운 정치체제보다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⁶⁾한 것이었다.

당시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적인 삶에의 영향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 그 시기에 치열하게 고민했거나 투쟁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야 하나 둘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가 되자, 당시 청춘의 시기를 보냈던 감독들은 연이어 68을 회고하는 작품들을 동시대에 소환했다. 본 발표에서 다룰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몽상가들>(2003), 필립 가렐의 <평범한 연인들>(2005), 그리고 올리비에 아사야스의 <5월 이후>(2012)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작품들은 단순히 실제로 존재했던 과거의 사건을 그려낸 역사 영화라는 점을 넘어, 감독들이 그 시대를 직, 간접적으로 체험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68혁명 때 10대 청소년, 혹은 20대의 청년이었던 이 세 감독들은 한참 시간이 흘러서야 자신의 청춘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공개한 것이다.

68은 프랑스 사회에 끼친 영향과 의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둘러싼 담론 중에는 신화화된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 언급될 영화들 속에서 68은 탈신화화, 탈낭만화되면서,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 새로운 가능성들을 펼쳐 보인 ‘사건 événement’⁷⁾으로 다루어진다. 감독들은 차분한 어조로 지난 세기의 신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다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들은 같은 시기를 겪었으나 자신들의 지난 모습을 되돌아보는 관점과 감정의 거리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가장 먼저 발표된 베르톨루치의 <몽상가들>은 외부인의 시선을 통해 프랑스의 68세대를 조롱하는 뉘앙스가 드러나는 작품이다. 역사, 정치,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던 이 노(老)감독은 이전 작품들과는 다르게 가볍고 경쾌한 스타일로 동일한 테마들을 연출한다. 68혁명의 선구자적 작품으로 평가받은 <혁명전야>의 감독이 그 시대에 대해 거리 두기를 통해 냉소적인 관점을 취

4) <서른 살에 죽다 Mourir à trente ans>(1982)를 시작으로 최근까지도 68을 테마로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는 로맹 구필의 작품들의 자전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여금미, 「자전적 글쓰기를 통한 역사 서술 : 로맹 구필의 영화와 68세대의 초상」, 『영상문화』, 27호, 2015, pp.139-159.’를 참고할 것.

5) 예를 들어, <중국 여인>에는 마오주의로 철저하게 정신을 무장한 대학생들이 등장한다. 알랭 바디우는 이 작품에 대해 “마오주의나 마오주의자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마오주의 구조의 동시대성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 De Baecque (Antoine) et al., *op. cit.*, p.30.

6) 이재원, 「프랑스의 “68년 5월” - 40주년 기념과 평가」, 『서양사론』, 100호, 2009, p.301.

7) “나에게 사건이란 비가시적이었던 것 또는 사유 불가능하기까지 했던 것의 가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사건은 그 자체로 현실의 창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가능성의 창조이고, 어떤 가능성을 열어젖힙니다. 사건은 알려지지 않았던 가능성이 실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 알랭 바디우, 파비앵 타르비, 『철학과 사건』, 서용준 옮김, 파주 : 오월의봄, 2015, p.25.

한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⁸⁾ 반면, <평범한 연인들>은 이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비관적이고 자조적이지만 동시에 연민을 담아 68세대의 초상을 그려낸다. 가렐 감독은 20살에 68년을 보낸 전형적인 68세대이다. 그는 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혁명의 순간들 Actua1>이라는 단편 다큐멘터리를 촬영하여 시위가 진행 중인 파리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기도 했으며 이는 <평범한 연인들>의 한 장면에 그대로 다시 재현되어 있다.⁹⁾ 마지막으로 발표된 <5월 이후>는 가장 자전적인 작품으로, 복합적인 관점에서 68 직후의 시기를 그려냄으로써 앞의 두 작품에 대한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다. 68혁명 당시에는 14살에 불과했던 아사야스 감독은 68의 열기가 한바탕 훑고 지나간 70년대 초반의 청소년들을 통해 68의 연속성과 그 결실에 대하여 돌아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감독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71년을 보내는 주인공 질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다.

이처럼 다양한 시선에 기반하고 있는 이 작품들은 공적인 거대 담론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이 처한 구체적 환경, 개인의 감정에 끼친 68의 영향에 집중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본 발표에서는 이 영화들을 관통하는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이상적 공동체에 대한 환상으로 드러나는 현실과의 불화, 둘째로는 새로운 세계의 문화에 대한 동경,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미(未)-성인으로서의 혼란스러운 정체성이다.

2. 유토피아적 공동체에 대한 환상

68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문화혁명’이다. 마오주의를 필두로 한 사회주의 사상들이 전면에 드러나는 동안, 일상의 영역에서는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 코드, 소위 반문화라 불리는 현상들이 유행했다. 일상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섹슈얼리티의 해방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 지점에서 68혁명의 직접적인 발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68의 도화선은 어찌 보면 매우 사소한 사건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낭테르 대학에서 여학생 기숙사에 남학생의 출입을 금지하는 엄격한 기숙사 규칙에 대해 학생들이 대대적인 반발을 일으켰고 이는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되어 결국에는 5월의 대규모 시위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즉, 68의 직접적인 동기는 정치도 경제도 아닌 일상 속 성 억압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리고 성 해방을 외치는 목소리는 오히려 68혁명의 열기가 사그라진 후에 더 본격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¹⁰⁾

이러한 분위기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움직임이 바로 히피 문화이다. 반전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히피 문화는 60년대 성의 개방성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 부르주아적 삶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대안 커뮤니

8) <평범한 연인들>에서 릴리가 갑자기 카메라를 보고 관객을 향해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혁명전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혁명전야>(1964)가 68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가렐 감독의 오마주를 확인할 수 있다.

9) 필립 아주리 외, 『필립 가렐, 찬란한 절망』, 니콜라스 엘리엇 외 옮김, 서울 : 현실문화, 2016.

10) 억압과 겸열에 저항하는 대표적인 움직임인 성 해방은 일상은 물론 영화 촬영과 제작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다. 당시 영화 작업과 관련하여 68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클로드 르루슈 감독은 성 해방의 물결이 몰아치게 되면서 드디어 섹스 장면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답한다. 이런 맥락에서 68혁명의 최대 수혜자는 아마도 예로 영화 제작자들일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덧붙인다. : De Baecque (Antoine) et al., *op. cit.*, p.97.

티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외양적으로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구축함과 동시에 히피 운동의 주요 행위 중 하나는 프리섹스와 LSD와 같은 환각제 복용이었다.¹¹⁾ 이러한 히피 문화는 이상적 공동체라는 테마를 통해 세 편의 영화 속에 다양한 양상으로 모방된다.

<5월 이후>에는 전형적인 히피 문화가 잘 묘사되어 있다. 질의 옛 애인인 로르는 남자친구와 함께 히피적인 스타일로 살아간다. 그러나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히피 본연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로르는 자신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마약에 중독되어 삶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채 방황한다. 마약은 당시 히피 문화의 한 요소로서 “신비적 황홀감을 맛봄으로써, 소극적으로는 고단한 현실에서 탈출하고, 동시에 의식의 확장을 통한 신비적 체험”¹²⁾을 위한 것이었다. 다른 인물들의 여행 도중 히피 공동체는 다시 한 번 등장하는데, 이곳에서는 성적 해방에 더해 오리엔탈리즘과 신비주의까지도 발견된다. 동양의 종교 무용에 심취한 미국 소녀와 사랑에 빠진 질의 친구 장-크리스토프는 미술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그녀와 함께 네팔로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그들의 여행은 카불에서 도중하차로 끝이 나며, 그의 여자 친구는 낙태 후 부모님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간다. 네팔까지 가겠다는 애초의 계획을 이루지 못한 채, 원래의 자리로 회귀하는 결말은 이들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공동체의 꿈이 현실과 타협될 수 없는 판타지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평범한 연인들>의 청년들은 부유한 상속자인 앙투안의 집에 모여 살면서 유사-히피 공동체를 구성한다. 제목만 보면 한 커플의 이야기일 것 같은 이 작품은 실제로는 68세대의 군상을 그려내는 작품으로, 흑백으로 촬영된 이미지는 다큐멘터리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¹³⁾ 인물들은 앙투안의 대저택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면서 동시에 거의 항상 아편에 취해 있다. 이는 무력한 현실을 잊기 위한 임시방편이자 어쩌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일 것이다. 성적 이미지 연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절제되어 있지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도 되는지 묻는 릴리와 흔쾌히 허락하는 프랑수아의 모습은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프리섹스 문화가 허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애인을 다른 남자에게 보내고 혼자 남겨져 괴로워하는 프랑수아의 모습을 통해 감독은 과연 젊은이들이 추구했던 자유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회의적 시선을 던진다. 또한, 프랑수아의 친구들이 책을 비롯한 자잘한 물건을 일상적으로 훔치는 행위는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가치관을 상실한 아노미적 상태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집단생활에 자신을 맡겨 버린 채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프랑수아와 달리 릴리는 경제적, 현실적 문제로 계속해서 고민하며 무의미한 공동체적 삶에 대해 회의를 품고 현실로의 탈출을 결심한다. 그녀는, 경제적 활동은 하지 않은 채 시만 쓰는 프랑수아를 사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하고 임신한 친구의 안정된 생활을 부러워한다. 이처럼 가렐은, 불안정하고 불확정적인 미래에 대한 젊은이들의 현실적인 불안감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¹⁴⁾ 무언가

11) 크리스티안 생-장-풀랭, 『히피와 반문화 : 60년대, 잃어버린 유토피아의 추억』, 성기완 옮김,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15.

12) 오제명 외, 『68. 세계를 바꾼 문화혁명 : 프랑스 · 독일을 중심으로』, 서울 : 길, 2006, p.215.

13) 필립 가렐은 최근까지도 흑백 촬영을 선호하는 몇 안 되는 감독 중 한 명이며, 실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시적인 스타일은 이 작품에서도 다시 한 번 드러난다. <평범한 연인들>은 선형적인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하되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제목은 이야기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전달한다.(les espérances de feu / les espoirs fusillés / les éclats d'inamertume / le sommeil des justes)

14) <평범한 연인들>에서 카메라는 긴 시간에 걸쳐 인물 하나하나의 얼굴을 포착하는 클로즈업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이들 모두가 그 시대의 주인공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

를 바꿔 보려고 했지만,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무력감만이 남은 상태에서 주인공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결국 흩어진다.¹⁵⁾

<몽상가들>에서는 프랑스인 이란성 쌍둥이 테오와 이자벨, 그리고 미국인 청년 매튜, 이렇게 세 인물이 모여 쌍둥이 부모님의 저택에 자신들만의 파라다이스를 구축한다. 고다르의 <중국 여인>에서 아파트가 마오주의 투사들을 위한 교실의 역할로 전환¹⁶⁾된 것과는 달리, 쌍둥이의 저택은 판타지 속에 안주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기능하면서 히피 공동체의 부르주아 버전을 보여준다. 세 젊은이들은 이 안락한 둑지 안에서 금기를 깨는 성적인 모험을 계속해서 시도한다. 내기에서 진 테오가 자신의 여동생과 친구가 보는 앞에서 수음을 한다거나, 테오 앞에서 이자벨과 매튜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들이다.

그러나 성에 대한 금기가 전혀 없는 듯 보였던 이자벨이 알고 보니 성관계 경험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 혼란스러운 장면이다. 이는 주인공들의 의식과 실재 사이의 간극을 폭로하면서, 근친상간의 뉘앙스를 풍기던 쌍둥이 남매가 서로에게 품고 있는 감정이 에로틱한 것이 아니라 유아적 애착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임을 증명한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성적 해방은 상상적 지향점에 불과하며 현실 속 인물들의 의식은 아직 어린 아이의 수준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 인물이 옷을 다 벗은 상태로 거실에 설치한 천막 안에 다 같이 잠들어 있는 후반부의 장면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웅크리고 있는 이미지를 환기시키며 도발적이거나 혁명적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다.(이미지1)

(1)



(2)



이들이 성적 놀이와 영화 지식의 향유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파리의 거리는 이미 68의 물결로 술렁이고 있었다. 깜깜한 영화관 스크린 위 이미지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던 이 시네필들의 머릿속에서 현실은 영화의 이미지로 대체되고, 영화(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다. 창 밖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현실에서 동떨어져 부모님의 저택에 쳐박힌 채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 아이들은 혁명가가 아니라 ‘몽상가’일 뿐이다. 거리에서 날아든 돌멩이가 집 창문을 깨고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이 되어서야 이들은 꿈에서 깨어 현실로 나선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명의 물결에 휩싸인 파리는 <몽상가들>에서 “자유연애의 발견과 영화광적 쾌락을 결합하는 소소한 성적 혁명의 배경”¹⁷⁾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세 편의 영화 모두에서, 68의 젊은이들은 자유와 저항을 외치면서 자신들만의 이상적 공동

다. 또한, 대사보다는 미세한 표정, 행동보다는 순간의 감정에 집중하며, 느슨한 템포로 일상의 단편들을 관찰하듯이 보여준다.

15) “암호 : 우리는 폭발한다/분열한다. (*Mot d'ordre : on éclate.*)”(프랑수아와 양투안의 마지막 대화中)

16) Habib (André), 『La rue est entrée dans la chambre!』 : Mai 68, la rue et l'intimité dans *The Dreamers* et *Les amants réguliers*, Cinémas, Vol.21, No.1, automne 2010, p.63.

17) *Ibid.*, p.60.

체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오히려 현실 감각을 잃고 자신들만의 세상에 침잠하고 있었다. 그들이 건설한 공동체는 적극적인 현실 저항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현실 도피의 보호막에 가까웠던 것이다.

3. 새로운 문화 이데올로기, 미국과 영국

‘상상력을 권좌로 (L’imagination au pouvoir)’는 68의 대표적인 슬로건 중 하나이다. 이 슬로건은 다양한 의미로 읽힐 수 있겠지만, 예술적인 측면에 적용한다면, 기존의 체제 속에서 예술로 인정받아 온 것들로부터 탈피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세대만의 혁신적인 문화를 만들 어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상력에 대한 긍정은 새로운 예술 형식의 도래와 그에 대한 열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세 편의 영화에는 당시 젊은이들이 심취했던 예술적, 문화적 유행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기성 문화의 전복을 외치던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것들은 프랑스 내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문화가 아니라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흡수한 문화라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지미 헨드릭스의 <Third stone from the Sun>을 배경으로 에펠탑을 훑으며 내려오는 <몽상가들>의 오프닝 시퀀스나 테오의 집에 붙어 있는 마릴린 먼로의 얼굴로 대체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림(이미지2)은 상징적인 예이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열광은 기존의 프랑스 문화의 전통에 있어서는 거부나 단절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외부에서 빌려온 것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한다. 각 영화에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미(英美)의 문화가 68세대에게 대체된 문화 이데올로기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띠는 영미권의 영향은 영화와 음악이다. 영화적 콘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몽상가들>은 양리 랑글루아 해임 사태에 반발하는 영화인들의 시위 장면으로 시작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50년대부터 프랑스 영화계는 ‘질의 영화 cinéma de qualité’라고 불리는 전통적 스타일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누벨바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젊은 감독들은 기존의 영화 문법 체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영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B급 영화 감독들에 열광했다. 미국 문화에 대한 동경은 영화계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것이다. 기존 권위에 대한 반항 정신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미국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화에 눈을 돌리게 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은 고다르의 <국외자들 Bande à part>의 루브르 질주 장면을 따라하면서 누벨바그에 대한 오마주도 잊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뮤얼 풀러, 니콜라스 레이, 하워드 혹스 등 30년대 미국 영화감독들을 향해 끊임없는 찬사를 바친다.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 지미 헨드릭스와 에릭 클랩튼을 두고 벌이는 테오와 매튜의 설전은 이들의 예술적 영감이 더 이상 프랑스에 갇혀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당시 젊은이들을 매혹시켰던 음악 또한 영국과 미국 출신 록 뮤지션들의 것이었다. <5월 이후>의 아사야스 감독은 6,70년대 영미 밴드들의 음악을 과도할 정도로 삽입함으로써 영화를 마치 한 장의 록 음반처럼 연출했다. 주인공의 성장을 지켜보는 동안 닉 드레이크 Nick Drake, 시드 베럿 Syd Barrett 등 당대 큰 인기를 얻었던 영국 뮤지션들의 음악이 관객의 귀를 계속 채운다.(이미지3) 록 음악의 삽입은 스타일 연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록은 형식의 독창성, 반체제적 사회 메시지를 기반으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젊은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동시에 한 사회와 생활양식에 대한 반항을 표현한다.¹⁸⁾ 또한, 앞서 언급한

18) 크리스티안 생-장-풀랭, 앞의 책, p.226.

히피 공동체의 성 해방, 마야 등의 환락 문화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영화 내내 들리는 록 음악은 주인공의 예술적 영감으로도 연결된다. 미술학도인 짚은 하위문화를 받아들여 전통적인 예술의 형식에서 벗어난 작업을 시도한다. 사이키델릭 록 밴드의 무대 배경에 자신의 스케치와 콜라주 등을 비추는 팝아트 콜라보 공연은 전통적인 미술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난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예술 향유의 좋은 예이다.¹⁹⁾(이미지4) 정치적 이념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며 진로를 모색해 나가는 짚은 세 편의 영화 주인공 중 68의 문화를 가장 건설적인 방식으로 흡수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3)



(4)



질의 정반대 지점에 <평범한 연인들>의 프랑수아가 위치한다. 더 이상 시를 읽지 않는 시대에 계속해서 시를 쓰는 프랑수아에게 시란 저항을 의미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삶의 원동력이다. 군대 징집을 거부한 후 열린 재판에서 프랑수아는 자신의 직업을 ‘예술가 artiste’로 소개하며, 그의 변호사는 이 짚은 시인의 문학적 재능을 어필하고 그의 섬세한 감수성이 군대에 적합하지 않음을 변론한다. 물론, 이러한 변론은 판사들에게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혁명의 열기가 사그라지고 다음해가 되어 공허함이 엄습할 때에도 그는 출간하지도 않을, 아무도 읽지 않을 시를 계속해서 쓴다. 가장 고전적이며 전통적인 예술 장르인 시를 주인공의 정체성으로 삼은 것은, 현실에 대한 극단적인 비타협을 의미한다. 혼자만의 시를 쓰며 새로운 시대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여자 친구마저 떠나보낸 프랑수아에게 남은 선택지는 자살이었다.

문화의 영역을 넘어,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의 안티테제, 또는 대안처럼 제시되기도 한다. <몽상가들>은 프랑스에 잠시 체류하려 온 미국인 학생을 영화의 화자로 등장시킴으로써 ‘미국인의 눈에 비친 68’이라는 흥미로운 관점을 상정한다. 즉, 내부자의 시선이 아니라 외부인의 관찰적 시선에 담긴 68세대와 당시 파리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미국인 매튜는 처음에는 쌍둥이 남매에게서 프랑스에 대한 낭만과 환상을 발견하고 매혹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동경했던 두 인물들이 사실은 유아적이고 미성숙하며 때로는 가식적인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음을 깨닫고 실망하게 된다. 몇몇 중요한 사건을 둘러싸고 매튜와 테오는 의견 충돌을 겪게 되는데, 베트남전에 징병된 미국 청년들을 비난하며 자신이라면 감옥을 선택했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테오와 현실적인 이해를 구하는 매튜, 매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치 중인 경찰을 향해 폭력 행위를 선행하는 테오의 마지막 행동은 제3자의 이성적 입장과 대비되는 프랑스 68세대의 무모함과 감상주의를 부각시킨다. 68세대의 이상화된 영웅주의를 꼬집기 위해 베르톨루치는 중립적이고 냉정한 기준이 필요했고, 미국인 청년에게 그 역할을 맡겼다.

<평범한 연인들>과 <5월 이후>에서 영미는 기회의 땅처럼 등장하여 현실의 삶에 직접적인

19) 68 전후로 등장한 정치적인 미술 창작 활동에 대해서는 ‘김지혜, 「프랑스 68혁명과 예술운동 – 예술의 대중화와 정치화」, 『마르크르주의 연구』, 제5권, 2호, 2008, pp.76-98.」를 참고할 것.

영향을 끼친다. 전자에서, 현실적인 고민 끝에 릴리는 프랑수아를 혼자 남겨두고 미국으로 떠난다. 영화는, “그는 그날 아침에 죽었다.”라는 릴리의 내레이션을 통해 프랑수아의 죽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끝난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 살아남은 자와 우울한 과거 속에 남겨진 자의 마지막은 이렇게나 다르다. <5월 이후>의 질은 폭넓은 경험과 자극을 얻기 위해 영국으로 떠난다. 투쟁 영화 일색의 프랑스에 질려 영국으로 떠나지만 상업 영화 현장에서 회의감을 느끼고는 그대로 걸어 나와 실험 영화 극장으로 향하는 주인공의 선택은, 현실적이며 동시에 타협적인 이 영화의 입장을 압축한다.

4. 아버지의 그림자

문화, 예술적 측면에서의 논의들에 이어, 68의 젊은이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과연 그들은/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났는가?’라는 화두일 것이다. 당시 젊음, 청춘의 이미지는 무엇보다도 기성세대와의 단절과 반항의 이미지로 구축되었다. 서로 다른 이념과 행동 강령으로 인해 갈등 관계에 있던 학생운동 집단들을 결집시키게 한 원동력은 기성 사회 질서의 전복이라는 기본 테제였다.²⁰⁾ 이전 세대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청년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는 ‘서른이 넘은 자는 아무도 믿지 마라. (Ne faites confiance à personne de plus de 30 ans.)’는 슬로건에서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질문에 대해 감독들은 각자 다른 대답을 내어 놓는다.

<몽상가들>에서 권위는 국가적, 사회적 차원보다는 가정 속에서의 실제 아버지로 드러난다. 테오와 이자벨은 전형적인 부르주아 집안에서 풍부한 문화적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자라났다. 지식인 아버지의 보수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신랄하게 비난하며 조롱하는 패기를 보이지만, 정작 이들은 아버지의 경제적 풍요로움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마음껏 누린다. 부모가 여행을 떠나면서 남기고 간 수표를 일찌감치 탕진해 버리고, 아버지의 고급 와인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는 이 젊은이들의 모습은 부모 잘 만난 금수저로 비칠 뿐이다. 후반부, 한데 모여 나체로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그들이 어질러 놓은 집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다시 수표를 남기고 조용히 집을 떠나는 부모의 대응은 관대한 체념으로 읽힘으로써 주인공들의 미성숙함을 더욱 강조한다. 아버지를 공격하고 비난하지만, 정작 그로부터 오는 안락함은 포기하지 못하는 스무 살의 주인공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을 스스로 약화시킨다.

<몽상가들>에서 테오 역으로 출연했던 루이 가렐이 또 다시 68의 젊은이를 연기하는 <평범한 연인들>²¹⁾에서의 아버지는 가시적으로는 국가 체제로 제시된다.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경찰들, 군대 징집을 위해 집에 들이닥치거나, 길에서 마구잡이로 불심검문을 하는 위압적인 태도의 경찰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주인공들은 거리로 나와 경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위 도중 삼색기를 불태워 버리는 등 아나키스트적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영화의 1부에서는 공권력에 맞서 투쟁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진지하게 묘사되는데,

20) 오제명 외, 앞의 책, p.153-154.

21) <몽상가들>과 <평범한 연인들>은 비슷한 시기에 작업 중이었으나 <몽상가들>이 먼저 촬영을 시작하게 되면서 루이 가렐은 베르톨루치의 영화에 먼저 참여한 뒤 아버지의 영화에서 다시 한 번 68세대의 역할을 맡게 된다. 루이 가렐은 데뷔작이라 할 수 있는 <구원의 키스 Les Baisers de secours>(1989)부터 시작하여 <질투 La Jalouse>(2013), <인 더 샌드우 오브 우먼 L'Ombre des femmes>(2015) 등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필립 가렐이 연출한 다수의 작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가렐 감독은 ‘투쟁하는 청년들 대(對) 공권력’의 구도에서 망설임 없이 전자의 진영으로 자신을 위치시킨다. 초반부, 20분 정도 이어지는 긴 시위 시퀀스에서 관객은 청년들의 뒷모습, 그리고 경찰의 정면만을 보게 된다. 즉, 감독은 카메라의 일관된 위치와 시선을 통해 자신은 공권력에 대항하는 청년들의 편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이미지5,6)

(5)



(6)



국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아버지는 이처럼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가정 내에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실질적 아버지는 언제나 부재한다. 이 영화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시위 장면 이후, 경찰에 쫓긴 프랑수아는 한 건물의 옥상까지 도망치고 그 곳에서 밤을 보낸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의 애인 집에 도움을 청하려 간 프랑수아는 그곳에 남겨져 있던 아버지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아버지의 흔적은 이것이 전부이다. 프랑수아의 가족 식사 자리에는 기력이 쇠한 인자한 할아버지와 자식을 두고 혼자 멀리 떠나기로 결심한 어머니²²⁾만이 함께한다. 프랑수아의 친구가 시위 다음날 집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의 어머니만이 아들을 맞이한다. 이처럼 인물들의 삶 속에서의 아버지는 애초부터 없었던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인물들의 대화와 행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기되면서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프랑수아의 친구들은 아버지를 ‘개자식 salaud’으로 정의하거나, 돈으로 등치시키면서,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조롱한다. 하지만 주인공들을 지탱해 주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양투안의 부유함, 정확히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다. 친구들에게 거처를 제공해 주었던 양투안이 모로코로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그의 집에 엎혀살던 친구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아버지에 대한 저항’을 외치던 인물들이 ‘아버지의 유산’에 기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이 없어지자 혼란과 무력감에 빠지는 모습은, 부르주아적 기성 사회에 반기를 들었다고 평가 받는 68세대의 미성숙한 면모를 노출한다.

아버지에 대해 유일하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릴리는, 이 지점에서 다른 징후를 보여준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프랑수아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의 짧은 시절에 대해 행복하게 이야기한다. 이후 릴리에게 미국에 같이 갈 것을 제안하는 부유한 중년 남성은 릴리가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자리를 대체한다. 반면, 보살펴 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버려진 프랑수아는 자살에 이른다. 극적으로 대비되는 이 결말은,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방황할

22) 할아버지와 엄마 역은 각각, 루이 가렐의 실제 할아버지이자 영화배우인 모리스 가렐 Maurice Garrel과 실제 엄마인 브리짓 시 Brigitte Sy가 맡았다. 스크린에 부재하는 아버지 필립 가렐이 실제로는 카메라 뒤에서 이들을 총지휘하며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지점이다.

때 깊의 방향을 제시해 줄 아버지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는 관점에 무게를 싣는다.

68세대와 아버지 세대를 대립항으로 설정한 두 영화와는 달리, <5월 이후>에서는 다른 집단에 주목한다. 이 작품의 이야기는 68의 열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71년부터 시작한다. 억압적 권위, 기성의 질서를 상징하는 드골은 1969년 이미 사임한 상태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질은 (앞의 두 영화와는 달리)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 영화에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아버지(들)’가 등장하는데, 고등학생인 질은 이들과 미묘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는 68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이 아니라, 같은 혁명적 노선을 추구하는 집단 내에서의 갈등이다. 다시 말하면, 68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혁명 선배 세대와 68을 지켜보다가 70년대 초반 이제 막 의식을 갖고 투쟁을 시작한 10대와의 갈등인 것이다. 이 새로운 세대 갈등의 정후는 영화 초반부터 드러난다. 질과 친구들이 인쇄한 풍자 선전물을 본 운동권 선배는 외설적인 그림을 사용한 것을 두고 “너희들은 우리 투쟁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Vous discrédez notre lutte.)”며 학생들을 질책한다.

보다 본격적인 대립은 투쟁 영화 집단을 만나서면부터이다. 68혁명 이후 각자의 이념에 따라 소규모 독립제작 집단을 조직하여, 정치적인 투쟁영화를 통해 68의 정신을 계승한 영화인들이 있었다.²³⁾ 이들에게는 민중의 투쟁 의식 고취가 영화의 유일한 목표였다.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몽 레이 Simon Leys의 저서 『주석 마오의 새로운 모습 Les Habits neufs du président Mao』을 읽는 질에게 영화 집단의 어른들은 제국주의적 시선에서 쓰인 책이라며 경고한다. 마오주의가 큰 영향을 끼치던 1971년 출간된 이 책은 실제로 당시 프랑스의 마오주의자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질은 이탈리아에서 선전 영화를 상영할 때 이들과 또 다시 의견 충돌을 겪는다. 진정 혁명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 의문 제기에 영화 집단의 구성원들은 스타일이나 미학보다 계몽이 우선이라고 답하며 전통적인 리얼리즘을 고집한다. 사적인 관계에서는 여자 친구에게 모든 집안일을 맡기고, 페미니스트 그룹을 레즈비언 모임이라며 농담거리로 삼는 장면 또한 68 선배 세대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부분이다.²⁴⁾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자식 세대와 아버지 세대로 나누는 단순화된 구분법에 의문을 표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그 시대의 젊은이들은 항상 기성 질서에 반항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혁명가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겠지만, 이들의 모습 역시 이후 세대의 눈에는 새로운 아버지이자 저항해야 할 권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5월 이후>는, 언제나 젊고 저항적인 세대는 존재하지 않음을,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싫어했던 기성세대를 닮아가게 됨을 꼬집는다. 이러한 딜레마는 “나의 젊음이 지나가는 것이 두려워. (J'ai peur de passer à côté de ma jeunesse.)”라는 질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23) 김지혜, 앞의 책, p.83.

24) 본문에서 언급된 장면, 그리고 <평범한 연인들>의 시위 시퀀스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비웃는 장면 정도를 제외하면 여성 문제는 작품들 속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세 편 모두 남성이 주인공이며 남성 감독에 의해 연출되었다는 점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68세대의 페미니스트 운동에 대해서는 <썸머타임: 아름다운 계절 La Belle Saison>(카트린 코르시니 Catherine Corsini, 2015)에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5. 맷음말

세 편의 영화를 통해, 신화화되었던 68세대의 방황의 기억들에 대한 내밀한 고백들을 살펴보았다. 개인주의의 승리라는 68의 의의에 걸맞게, 감독들은 사회 전체의 이념이나 방향보다는 사적 삶의 가치에 무게를 두고, 개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를 재발견하고자 한다. 영화의 결말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격변기의 짊음을 재현하는 관점과 기억의 양상은 작마다 모두 다르며, 68에 대한 은유와 상징 또한 영화마다 다르게 드러난다. 나르시시즘에 빠져 치기로 투쟁에 나서기도 하고(<몽상가들>), 아나키스트 투쟁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자 허무함과 무력감에 빠져 자기 파멸을 선택하거나(<평범한 연인들>), 과거를 자양분 삼아 현재의 삶에 적응해 나가기도 한다(<5월 이후>). 이처럼 청춘의 초상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뒤의 감독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도 하고, 또는 자신을 스크린 위에 드러내기도 한다.

완벽한 재현의 불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감독들이 긴 시간이 흐른 후 자기 반영적인 텍스트를 공개한 것은 그저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다. 이 작품들은 68혁명에 대한 환상을 벗겨냄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과거를 다시 바라보고자 하는 68세대 스스로의 성찰적 태도를 보여준다. 미화나 후회처럼 단순한 하나의 입장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면서 다양한 기억과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는 작업은 과거에 대한 솔직한 재평가로서의 의미가 크다. 그들은 68에 대한 향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과거의 나를 마주하고자 한다. 그리고 ‘저항을 외쳤던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웠던 걸까?’, ‘우리는 혁명에 성공했는가?’, ‘우리의 시대는 끝난 것인가?’ 등의 질문을 자신에게 그리고 관객에게 던진다.

“한 세대를 조명하면서 그로부터 시대의 교훈과 같은 어떤 영원성을 발견할 수 있다.”²⁵⁾는 필립 가렐의 인터뷰는 이 영화들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 될 것이다. 세 작품을 꿰뚫는 일관된 테마는 ‘청춘’이었다. 인물들의 이야기는 ‘청춘’에서 시작되고 ‘청춘’으로 귀결된다.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난날의 ‘청춘’들이 21세기의 청춘 배우들에게 68세대/‘나’의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고,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을 구축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들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로버트 스템, 『자기 반영의 영화와 문학 : 돈 키호테에서 장 룩 고다르까지』, 오세필, 구종상 옮김, 서울 : 한나래, 1998.
- 마르크 폐로, 『역사와 영화』, 주경철 옮김, 서울 : 까치, 1999.
- 알랭 바디우, 파비앵 타르비, 『철학과 사건』, 서용순 옮김, 파주 : 오월의봄, 2015.
- 오제명 외, 『68, 세계를 바꾼 문화혁명 : 프랑스 · 독일을 중심으로』, 서울 : 길, 2006.
- 조지 카치아피카스, 『신좌파의 상상력 : 세계적 차원에서 본 1968』, 이재원, 이종태 옮김, 서울 : 이후, 1999.
- 크리스티안 생-장-풀랭, 『히피와 반문화 : 60년대, 잃어버린 유토피아의 추억』, 성기완 옮김,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15.

25) 필립 아주리 외, 앞의 책, p.87.

- 타리크 알리, 수잔 왓킨스, 『1968 : 희망의 시절, 분노의 나날』, 안찬수, 강정석 옮김, 서울 : 삼인, 2001.
- 필립 아주리 외, 『필립 가렐, 찬란한 절망』, 니콜라스 엘리엇 외 옮김, 서울 : 현실문화, 2016.
- 김지혜, 「프랑스 68혁명과 예술운동 - 예술의 대중화와 정치화」, 『마르크르주의 연구』, 제5권, 2호, 2008, pp.76-98.
- 여금미, 「자전적 글쓰기를 통한 역사 서술 : 로맹 구필의 영화와 68세대의 초상」, 『영상문화』, 27호, 2015, pp.139-159.
- 이재원, 「프랑스의 “68년 5월” - 40주년 기념과 평가」, 『서양사론』, 100호, 2009, pp.287-309.
- 임문영, 「프랑스의 1968년 5월 혁명의 문화적 성격」, 『국제학논총』, 6호, 2002, pp.137-159.
- Alary (Eric), *Il y a 50 ans : mai 68 !*, Larousse, 2017.
- De Baecque (Antoine) et al., *cinéma 68*, Cahiers du cinéma, 2008.
- Godard (Jean-Luc), *Godard par Godard : Des années Mao aux années 80*, Flammarion, 2007.
- Habib (André), “《La rue est entrée dans la chambre!》 : Mai 68, la rue et l'intimité dans *The Dreamers* et *Les amants réguliers*”, *Cinémas*, Vol.21, No.1, automne 2010, pp.59-77.
- Le Blanc (Guillaume). “Mai 68 en philosophie. Vers la vie alternative”, *Cités*, Vol. 40, No.4, 2009, pp.97-115.
- Reid (Donald), “We have a situation here: coming after May 1968 with Olivier Assayas”, *South Central Review*, Vol.31, No.2, Summer 2014, pp.28-39.

68혁명과 음악

장인종(한국학중앙연구원)

1. 68혁명의 시대정신과 예술적 시도들

68혁명은 1968년 5월 프랑스의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정점으로 하여 1960년대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한 저항운동을 아우르는 말이다¹⁾. ‘혁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프랑스명이나 러시아혁명처럼 집단적인 저항운동을 통해 지배체제나 지배계급의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를 뜻하지만, 68혁명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기에 ‘실패한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지 역사 속에서 스러져간 실패일 뿐이라면 지금 이렇게 68혁명을 기릴 이유도 별로 없을 것이다. 68혁명은 단지 정치권력을 잡기 위한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 구석구석에서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소외시키는 억압과 권위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억압적인 작업장과 권위적인 학교 뿐 아니라 가부장적인 가족, 위선적인 말투와 행동 관행 등 생활 모든 영역에서의 억압과 권위적 관계를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의 관계로 바꾸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창조, 자발성, 삶!”,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삶을 즐기라！”, “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와 같은 당시의 슬로건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68혁명은 ‘문화혁명’이기도 했다. 정치적인 권력 획득은 실패했을지언정 68혁명의 문화적인 영향력은 지대했고 시대적 문화 지형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다. 실제로 ‘실패한 정치 혁명’이자 ‘성공한 문화 혁명’이었다.

68혁명이 문화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술 부문에 끼친 영향도 매우 포괄적이었다. 당대 예술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도들을 통해 68혁명의 시대적 정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다²⁾.

1) 68혁명이란 말은 단지 1968년을 전후한 저항운동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1968년의 시위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에서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구가하여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낡은 제도적 모순 속에서 학교나 작업장에서의 인간소외가 지속되면서 불만이 쌓여갔다. 미국이 수행한 베트남 전쟁 뿐 아니라 남미 전역에 걸쳐 민족해방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동구에서는 1968년 프라하의 봄으로 대표되듯이 소련 공산당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커져 갔다. 68혁명은 이러한 세계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직접적인 저항운동의 물결이 사그라든 시기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1968년 프랑스에서는 5월 시위 이후 몇 달 내에 곧 드골 장군이 복귀하였고 미국에서도 1968년 말 공화당 후보 닉슨이 당선되었다. 1968년의 프라하의 봄도 8월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끝났다. 이탈리아에서는 1968년에 이어 1969년 노동자들의 투쟁이 뜨거운 가을을 만들어내었으나 1970년대 초에는 투쟁이 침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투쟁은 사그러들었다 할지라도 조직들과 문화적 혁신은 197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보통 68혁명이라고 하면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정치적·문화적 저항운동을 폭넓게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Kutschke, 2013).

2) 물론 68혁명이 갑자기 발생하고 갑자기 사그라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술의 각 부문에서도 이미 50년대 말에서 60년대 동안 주류 양식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것이 68혁명의 영향으로 더욱 꽃을 피워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정치적 이념이 적극적으로 표현된 예술 작품들이 있다. 68혁명의 주도자들은 대개 사회주의자들이었다. 비록 소련을 추종하는 유럽 각국의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오히려 비교적 소극적이었고, 이른바 신좌파라고 불리는 젊은 사회주의 그룹들이 주역이기는 했지만, 이들도 분명히 반자본주의자들이었다. 또한 당시 베트남 전쟁과 맞물려 제국주의적 전쟁 반대와 반전 평화의 이념이 68혁명의 운동을 주도하였다. 예술가들은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반가부장주의의 이념을 자신의 작품 속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미술가들은 거리에서 포스터를 그리고 전시하였다.

또 68혁명은 평등과 소통을 중시한 운동이었다. 원래 예술 작품에서 작가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특히 근대 낭만주의를 거치면서 예술 작품이란 작가의 천재성 적어도 작가의 주관성의 소산이라는 생각이 굳어졌다. 68혁명기의 예술가들은 그러한 작가중심주의에 반대하여 여러 사람들 간의 평등한 협업을 통해 작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실험했으며, 나아가 작품을 감상하는 수용자가 단지 수동적인 감상자에 머무르지 않고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다. 이를테면 프랑스의 태양극단에서는 연극에서 작가와 연출가의 지시에 종속되는 것을 반대하고 회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모두가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동시에 연기자인 극단을 실험하였으며, 즉흥연기를 통해 관객들을 극에 참여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예술 분야의 반권위주의는 작가의 절대성에 도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예술 작가 뿐 아니라 예술 그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갔다. 각 예술 부문은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자체의 형식과 어법을 갖고 있다. 즉 이러저러한 그림이 잘 그런 회화, 이러저러한 음악이 좋은 음악 등의 전통적 기준을 갖고 있으며 그 기준에 의해 예술계의 권위자들이 작품을 평가하곤 한다. 사회 곳곳의 권위적 억압과 통제를 거부하고 자유와 자발성을 중시했던 68혁명의 정신을 세례받은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예술 형식이 아닌 새로운 상상력을 선보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반예술’을 선언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다른 분야의 예를 들었으나, 물론 음악에서도 이러한 ‘68혁명의 음악’이 존재했다. 여기에서 이 음악들을 살펴보겠다³⁾.

2. 정치적 음악

68시대의 음악가들은 당시의 사건들을 음악 속에 삽입하였고 그로써 정치적 이념을 표현하였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노노(Luigi Nono)가 있다. 노노는 이미 1950년대부터 이탈리아 공산당에 입당하고 이후 당 중앙위원회까지 지낸 공산주의자이자 저명한 아방가르드 작곡가이기도 했다. 68혁명 이전에도 2차대전 시기 레지스탕스 운동이나 강제수용소,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음악들을 발표했는데, 68혁명의 시대적 상황을 겪으면서 사회참여와 그를 표현한 작곡 활동을 더욱 활발히 했다. 그는 1968년을 전후하여 시위에 직접 참여했을 뿐 아니라 1967년과 1968년에 걸쳐 쿠바,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등 남미를 여행하며 피델 카스트로 등 남미의 투쟁가 등을 직접 만났다.

3) 68혁명의 음악이라고 하면 보통 락음악이나 사회비판적인 가사를 가진 포크송 등의 대중음악을 떠올리지만, 여기서는 이른바 고급예술(hight art)에 속하는 현대음악계를 다룬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쿠치케(Beate Kutschke,****)는 68혁명의 인식론을 가장 잘 계승한 것은 락이나 팝 음악보다 오히려 현대음악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경험들은 그의 작품에 반영되었다. 1967년 <숲은 젊고 생명이 넘치고 있다 A floresta jovem e cheja de vida>은 피델 카스트로, 학생 시위자들, 베트남 병사, 앙골라 게릴라,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작품이며, 1968년의 <음악 선언 1번 Musica-manifesto no.1>에는 파리 5월 학생 시위의 구호가 삽입되었다. 역시 1968년 초연된 <변증법적 대위법 Contrappunto dialettico alla mente>은 베트남 시장의 음향을 사용함으로써 68혁명의 가장 뜨거운 소재 중 하나였던 베트남 문제를 상기시키고 있고, 다음 해의 <하나의 유령이 세계를 떠돌고 있다 Ein Gespenst geht um die Welt>는 쿠바 혁명을 다룬 것이다. 1975년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지휘로 초연된 음악극 <사랑으로 가득찬 위대한 태양을 위하여 Al gran sole carico d'amore>은 1871년 파리꼬원과 1905년 페테르스부르그의 피의 일요일이라는 사회주의 운동의 중요한 사건들을 토대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독일의 작곡가 헨체(Hans Werner Henze) 역시 68혁명의 정치적 이념을 담은 음악 작품을 만들어냈다. 헨체는 노노와는 달리 젊은 시절부터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으며 음악적으로도 아방가르드보다는 전통적인 음악에 가까웠다. 그러나 1960년대 말 독일 68혁명의 대표적인 학생운동 지도자인 루디 두취케 등과 교류하면서 베트남전 반대 운동에 관여하고 혁명 쿠바를 여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68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음악에서도 정치색을 선명히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968년의 <메두사의 뗏목 Das Floss der Medusa>은 전 해 처형된 체 게바라에게 바치는 작품이었는데 초연 당시 청중 중에서 학생들이 헨체의 지휘대에 붉은 기를 걸었고 이에 대해 연주자들 중 일부가 연주를 보이콧하여 결국 초연이 무산되는 사태를 낳기도 했다. <도망간 노예 El Cimarrón>(1969)는 쿠바 노예의 회고담을, <감옥의 노래>는 호치민의 시를 텍스트로 한 음악극이며, <교향곡 6번>(1969)과 같은 기악곡에서도 테오도라키스(Mikis Theodorakis)의 <자유를 향한 노래 Song to Freedom>나 베트남 해방전선(NLF)의 투쟁가를 삽입하였다.

그 외에도 이후 많은 작곡가들이 정치적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들었다. 네덜란드의 안드리센(Louis Andriessen)은 <타니 호아 Thanh Hoa>(1972)와 <베트남에서의 사건 Dat gebeurt in Vietnam>(1973) 등 베트남전의 비극을 소재로 한 정치적 음악을 만들었으며, 미국의 제프스키(Fredric Rzewski)는 아티카 감옥 수감자들의 편지와 발언을 텍스트로 사용한 <커밍 투게더 Coming Together>(1972) 및 <아티카 Attica>(1972)⁴⁾에 이어 칠레 혁명가 요를 주제로 한 그의 대표적 작품 <“단결한 인민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에 의한 36개의 변주곡 Variations of “El Pueblo Unido Jamás Será Vencido”>(1975)을 작곡했다. 그외 롬바르디(Luca Lombardi)의 <교향곡 1번>(1975)이나 <증오의 문까지 떨어지다 Hasta que Caigan las Puertas del Odio>(1977), 후버(Nicolaus A. Huber)의 <정치レビュ Politrevue>(1976) 등도 68혁명의 정신에 영향을 받은 정치적 음악이라 할 수 있다.⁵⁾

노노와 헨체 등의 정치색을 직접 표현한 음악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1970년대 독일에서 ‘정치적 음악’ 논쟁으로 이어졌다. 음악학자인 달하우스(Carl Dahlhaus)나 크나이프(Tibor Kneif) 등이 정치적 이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이들의 음악을 비판하고 나섰던 것이

4) “제프스키는 이 곡이 텍스트들을 음악으로서 강조하여 그 의미를 고양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노노의 음악이 음악적 기법 때문에 텍스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이 곡은 미니멀리즘을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반복에 의해 텍스트를 내용을 강조하는 데에 성공한다”. 장인종, 「68혁명과 음악 - ‘정치적 음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석사학위 논문, 2003. 41쪽.

5) 장인종, 「68혁명을 통해 본 ‘음악과 정치’ : ‘참여’를 넘어선 음악의 정치화」, 『音. 樂. 學.』, 한국음악학회 2004. 190-191쪽.

다.

사실 정치적 음악은 이들이 지적한 대로 몇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음악은 예술 형식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 것으로 그 형식 자체 내에서 이념이나 사고를 선명하게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정치적 이념과 정치적 기능은 음악 외부에서 덧붙여지는 것에 불과하게 될 가능성성이 높다. 달하우스의 말대로 음악 중간에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그것은 음악 자체가 중단되고 정치적 구호를 ‘외삽’하는 것일 따름이다.

그리고 음악 자체의 형식과 정치적 전위성의 괴리 또한 존재한다. 좌파 정치가 대상으로 하는바 대중에게 음악이 쉽게 이해되려면 대중에게 익숙한 전통적 음악 어법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래서 이전 세대인 20세기 초 사회주의 음악가 아이슬러(Hanns Eisler)는 전통적인 음악 어법을 귀족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의 12음 기법이야말로 진보적인 음악의 혁명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가를 작곡할 때는 전통적인 행진곡이나 발라드 양식을 사용하였다. 음악에서의 신념과 정치적 기능이 상호모순되었던 예이다. 이와 반대로 노노는 전위적인 음악에 충실했는데, 그러다 보니 정치적 신념의 전달은 오히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텍스트를 지닌 노노의 작품 <중단된 노래 Il conto sospeso>(1956)나 <변증법적 대위법>(1968)에서는 음악적 효과를 위해 텍스트들이 분절되고 왜곡되어 원래 텍스트의 정치적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그렇지만 68혁명의 영향으로 정치성을 음악 속에 삽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정치적 이념을 음악으로 선전하려는 것 뿐 아니라 음악적 시도들도 풍부해졌다 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3. 평등과 소통의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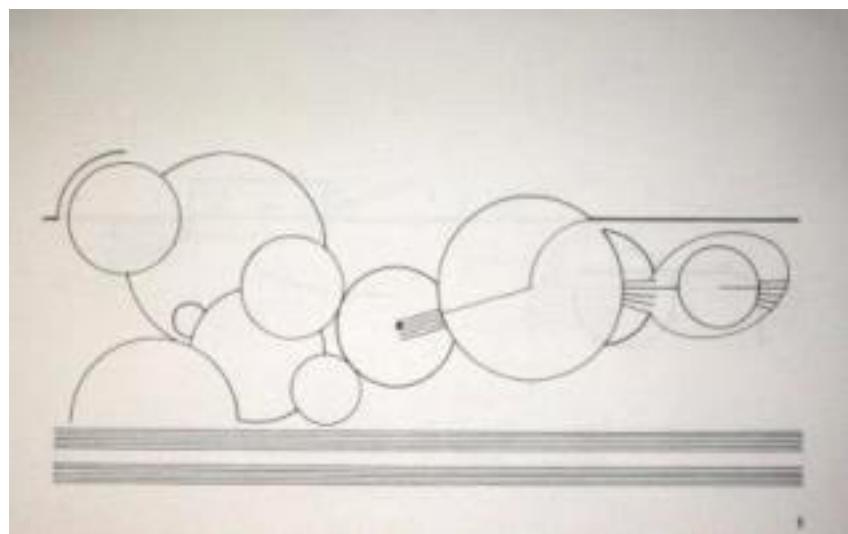
앞에서도 말했듯이 68혁명은 단지 정치권력에만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일상 속의 권위들이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권력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⁶⁾.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부모나 교사도 젊은이들이 저항하는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반항적인 젊은이들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년기의 개인적인 반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 근거를 갖고 체계적인 운동으로 조직화된 것을 뜻한다. 그것이 68혁명의 성격 중 일부분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는 1970년대 히피운동으로 계승되었다. 히피운동은 가부장적인 가족을 거부하고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했으며 자본주의적 경쟁과 위계를 거부하는 삶을 주창하면서 개인의 자율성과 자발적 개성을 중시하였다.

음악에서 가장 권위적인 존재라면 작곡가일 것이다. 물론 연주자들도 작품을 해석하면서 연주하지만 작곡가가 지시해 놓은 악보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비유하자면 아버지의 규율 내에서 행동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다. 68혁명의 정신은 음악계에서도 이러한 관습에서 벗어나서 평등한 소통과 협업을 추구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흐름들을 탄생시켰다.

한 가지 방법은 작곡가가 곡을 통제하지 않고 연주자의 해석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헨체의 <도망간 노예>에서도 이러한 기법이 사용되었다. 바리톤이 쿠바 노예의 회고담을 읊조리는 가운데 플루트와 기타 그리고 여러 가지 타악기들의 음향이 깔

6) 푸코(Michel Foucault)가 1975년 발간한 저서 <감시와 처벌>은 감옥, 학교, 병원, 군대 등의 근대적 제도들이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자본주의 사회에 유용한 방식으로 주조하는 미시적인 규율권력이 작동하는 장으로 보는데, 이런 연구는 68혁명의 실천을 정교하게 이론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는데, 특히 타악기 연주자들은 텍스트의 흐름에 따라 스스로 알아서 연주를 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제프스키의 <“단결한 인민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에 의한 36개의 변주곡 V>은 사실 ‘고전적’ 짜임새에 가까운 악곡이다. 하지만 연주자의 자율성을 중요시했던 제프스키는 주제와 변주 형식 악곡에서 이례적으로 마지막 변주(테마 II) 이전에 연주자가 자율적으로 카덴차를 연주하도록 하였다. 카듀(Cornelius Cardew)의 <논고 Treatise>(1963-67)와 중국 경전을 소재로 한 <대학(Great Learning)>(1968-71) 역시 이러한 맥락에 놓여있다. 이 곡들은 전통적인 기보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도형과 상징을 사용한 그래픽 기보로 작곡되었다. 연주자들은 이 그래픽들을 보면서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해석하고 결정해야 한다.



Cardew, <논고 Treatise>의 악보

이러한 방식은 즉흥연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카듀는 1965년 재즈 음악가들과 함께 ‘AMM Music’에 참여하여 즉흥연주를 실험하였다. 또 제프스키도 1966년 로마에서 ‘무지카 엘렉트로니카 비바(Musica Electronica Viva)’라는 즉흥연주 그룹을 조직하였다. 이런 즉흥연주들은 작곡과 연주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작곡은 단지 기본적인 뼈대만을 제공할 따름이고 실제 작품이 완성되는 것은 연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즉흥)연주를 통해서이다. 게다가 즉흥연주는 ‘소통’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했다. 즉흥연주에서는 연주자들끼리의 소통이 중요할 뿐 아니라 연주자와 청중 사이의 소통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친다. 청중의 반응과 분위기에 따라 연주가 즉흥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프스키는 공연자들이 음악을 제공하고 청중은 음악 연주를 수용할 따름인 전통적인 콘서트 방식을 매우 비판하였다.

나아가 슈톡하우젠은 ‘즉흥음악’을 넘어서 1960년대 이후에는 그가 ‘직관음악’이라고 명명한 일련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기존의 즉흥음악조차 미리 준비된 재료와 연습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개인적 창조 능력이 담보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그의 직관음악은 모든 음악적 통제의 방해를 차단하고 언어적 지시에만 따름으로써 ‘직관력’으로부터 음악을 산출하려는 의도를 갖는다.⁷⁾

7) Stockhausen, Karlheinz, 강순미 옮김, 『슈톡하우젠 그의 음악세계(Stockhausen on music :

한편 68혁명에 의해 고조된 평등의 정신에 따라 작곡-연주자들의 협업과 공동창작 조직도 성행하였다. 즉 흥연주 그룹은 대부분 상호소통에 의한 공동창작으로 곡을 만들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공동창작 조직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카듀가 1969년 결성한 ‘스크래치 오케스트라(Scratch Orchestra)’일 것이다. 스크래치 오케스트라는 전문가와 아마추어, 연주가와 작곡가, 심지어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도 받아들였으며 모든 회원들은 동등한 지위를 지녔다. 공연의 조직가는 돌아가면서 맡았다. 심지어 첫 공연의 조직가는 18세의 학생이었다. 평등한 음악 공동체를 지향한 스크래치 오케스트라는 일치되고 통일적인 행동보다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사실 내부 분파도 많았으며 통일된 이념에 기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예를 들어 68혁명 세대의 젊은이들이 동양사상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처럼 카듀의 <대학>은 동양의 유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유교가 권위적이기 때문에 스크래치 오케스트라의 정신에 걸맞지 않다는 내부 반발도 있었다. 정치적 이념에서도 구좌파적 사회주의, 마오주의, 히피즘 등 회원들은 다양한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도 다양한 스터디 모임이나 프로젝트 모임들이 존재했고 회원들이 어디든 참여하는 것은 자유였다. 이처럼 평등한 지위 속에서 다양한 성향을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작품을 만들어내었던바 68혁명 세대가 추구했던 생활혁명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⁸⁾

4. 탈주의 음악

68혁명이 학생운동에서 시작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화한 학문적 규범에 대한 저항도 이 시대의 한 성격을 이룬다. 푸코는 1969년 출간한 책 <지식의 고고학>에서 특정한 시대 특정한 분야에서 지식과 인식을 규정하는 규범이 어떻게 권력과 연관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주제는 이후 ‘미시권력’의 문제들로 발전하였다. 즉 정치 영역 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특정한 규범을 강제함으로써 권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68혁명이야말로 이러한 미시권력에 저항한 운동이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 저항을 ‘탈주(fuite)’라는 말로 표현한다.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는 푸코의 말처럼, 지배의 영토에서 끊임없이 탈주하려는 충동이 있다는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지배적인 권력이 확립되는 과정을 ‘영토화(territorialization)’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탈주하여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는 과정을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라는 말로 명명하였다. 물론 권력은 탈주가 개척해낸 신천지에 손을 뻗어 다시금 규범으로서의 지배를 확립하는 재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도 가능하다.

68혁명을 전후한 음악계의 모습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 음악계의 주류는 총렬주의(total serialism) 음악이었다. 총렬주의 음악은 20세기 초부터 지속되어 온 아방가르드 정신이 절정에 달한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는 탈권력적 성격으로 시작한 담론이 어떻게 물신화된 권력이 되어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쇤베르크의 음렬음악은 오히려 기존 조성음악의 질서를 깨뜨리는 전복적 실천의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1960년대까지 계속 발전하면서 음고, 음가, 음색, 강세, 템포에까지 음렬음악의 논리가 적용되어 예전의 조성음악

lectures and interviews.)』, edited by Robin Maconie,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109쪽.
8) Anderson, Virginia, 「1968' and the experimental revolutionin Britain」, 「Music and Protest in 1968」, 181-182쪽.

못지 않게 엄격한 통제를 따라야 하는 일종의 규칙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총렬음악은 당시 음악계의 지배적 규범으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고전 조성음악에서 ‘탈주’한 음렬음악이 이제는 지배적 권력으로 화하였다. 음렬음악에 호의적이었던 아도르노가 나중에는 12음기법이 이데올로기화되었다고 비판한 것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이 있다.

68혁명을 전후하여 이 ‘음악적 권력’에 저항하고 ‘탈주’하는 흐름들이 생겨났다. 안드리센은 현대음악의 주류인 음렬음악에 정통했지만 <아나크로니 I, Anachronie I>(1966)과 <아나크로니 II, Anachronie II>(1969)에서 의도적으로 바로크 양식의 오보에 협주곡을 흉내내며 시대에 뒤떨어진 어법을 차용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고전음악으로 돌아갔다는 뜻은 아니다. 현대음악에 고전음악적 양식을 차용하여 뒤틀음으로써 당시의 총렬음악이라는 지배적 공통관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루치카(Peter Ruzicka)는 ‘낯설게 하기’의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음악에서 물화된 감수성을 전복시키고자 한다. 예컨대, 그의 <템포의 과정에서. 26개의 악기와 첼로를 위한 재료들 In processo di tempo. Materialien für 26 Instrumentalisten und violoncell>(1971)에서 청중들은 갑작스러운 중단, 연극적 요소음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를 통해서 음악에 대한 지배적 감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비판적 사고를 생성시키려는 의도이다.

또한 카겔(Mauricio Kagel)의 음악은 풍자와 역설로 기존 음악의 권위와 아우라를 조롱하고 있다. 1969년 발표된 그의 <전류 아래서 Unter Strom>는 선풍기, 장난감 사이렌, 커피 분쇄기 같은 도구를 가지고 마치 종교적인 곡을 연주하듯 숭고하게 연주한다. 그 외에도 <시합 Match>(1964), <국립극장 Staatstheater>(1967-70) 등과 같은 작품을 통해 제도권 음악을 유머로써 비꼬고 있다. 카겔은 “문화만이 혁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음악에 정치적 내용을 담지 않으면서도 그의 음악을 저항 정치의 일환에 자리매김한다.

프랑스의 페라리(Luc Ferrari) 역시 기존 음악의 관습에서 탈주를 추구한 음악가이다. 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특히 거리와 일상생활의 ‘소음’을 녹음한 테이프를 사용하여 작품을 구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방가르드 음악에서 녹음한 테이프를 스튜디오에서 편집·조작하여 작품에 사용하는 방식은 이전에도 적지 않았지만, 페라리는 오히려 자신의 의도를 별로 개입시키지 않았다. 그의 대표작인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Presque Rien No.1>(1967-70)에는 제목 그대로 음악적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크로아티아의 한 어촌 마을의 해변에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들리는 소리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 작품의 전통적인 정의와 작곡가의 의도를 모두 부정했다는 점에서 차라리 ‘반(反)음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 작품은 프랑스의 68혁명 시기에 자본주의의 대안적 풍경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⁹⁾

앞서 말한 대로 다른 예술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음악계의 주류에서 탈주하려는 음악들은 68혁명 전에도 있었으나 68혁명의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더욱 풍요롭게 꽃을 피웠다. 그런 의미에서 68혁명은 현대음악에서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9) 이희경, 「음악, 정치, 매체 - 68혁명이 열어젖힌 현대음악의 새로운 지대」, 『낭만음악』 제20권 4호, 23-24쪽.

5. 맷으며

지금까지 68혁명 시기에 68혁명과 관련된 음악들에 대해 간략히 훑어보았다. 이 음악들이 68혁명과 맷는 관계는 매우 다양하면서 중층적이다. 정치적 이슈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양식들이 고안되기도 했고, 정치적 진보와 양식적 진보를 일치시키려고도 하였다. 한편으로 68혁명 시기의 정치적 이슈를 굳이 음악 내에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68혁명답다고 할 만한 음악적 시도가 쏟아져 나왔다. 기존의 권위, 통제, 권력에 대한 조소와 전복,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 모색이 여러 형태로 시도되었다. 그러고 보면 68혁명의 음악은 단순히 68혁명으로부터 영향이나 자극을 받아 탄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전세계에 전염처럼 번져간 혁명과 68혁명의 예술, 68혁명의 음악을 낳은 것은 아마도 그것들이 한 데 영켜 소통하며 만들어진, 하나의 (그러나 결코 하나는 아닌) 당대를 관통했던 시대 정신일 것이다.

참고문헌

- Kutschke, Beate & Norton, Barley, 『Music and Protest in 1968』,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 『Neue Linke / Neue Musik: Kulturtheorien und künstlerische Avantgarde in den 1960er und 70er Jahren』, Köln und Wimar: Böhlau, 2007.
- 이희경, 「음악, 정치, 매체 - 68혁명이 열어젖힌 현대음악의 새로운 지대」, 『낭만음악』 제20권 4호.
- 장인종, 「68혁명과 음악 - ‘정치적 음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 「68혁명을 통해 본 ‘음악과 정치’ : ‘참여’를 넘어선 음악의 정치화」, 『音. 樂. 學.』, 한국음악학학회 2004.

제3분과 : 68혁명과 정치·사회

- 68혁명을 위한 레퀴엠 /홍태영
- 68혁명의 점거 / 김승연
- 세네갈 68년 5월 항쟁과 프랑스 68혁명의 상관관계 연구 / 민진영

68혁명을 위한 레퀴엠

홍태영 (국방대학교)

"The shape of water"

2018년 5월에 개봉한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 셀리 호킨스 주연의 영화 “물의 형태(the shape of water)”는 우주 개발이 한창이던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사랑영화이다. 하지만 단순한 사랑영화에 그치지 않고 ‘경계인들’ 혹은 ‘주변인들’이 주요한 등장인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68혁명을 떠올리기 적절한 영화이다. 당시 사회의 주변이나 밑바닥에서 삶을 살아가는 말 못하는 여성, 흑인여성과 노동자, 동성애자,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지워도 갖지 못한 스파이들이 등장인물이며, 그 대척점엔 백인 중산층의 권위적인 남성 - 캐딜락과 화목한 가정의 가부장 - 이 존재한다.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연대와 갈등, 대립 그리고 사랑이 이 영화 속에서 그려진다. 68혁명이 분명 이러한 경계인 혹은 주변인들이 공적 공간에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68혁명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계몽의 보편적 주체, 즉 개인 혹은 노동자계급이라는 보편적 주체에 의해 억눌리거나 흡수될 수 밖에 없었던 다양한 소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영화의 제목이 말하는 것, ‘물의 형태’는 결국 그것을 담는 그릇에 의해 정해진다는 의미에 대해 우리는 68혁명이 갖는 의미와 관련하여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10년 주기로 68혁명을 소환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그 소환의 방식은 소환의 시기에 따라 다른 의미들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2018년의 68혁명 50주년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2018년 5월은 어떠한 방식으로 68혁명을 불러내고 있는 것인가? 당장 2018년 5월의 파리에서도 끊임없이 68년 5월 혁명 그리고 68정신을 호출하고 있다. 새로운 열망을 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마크 롱 대통령의 취임 1주년과 68혁명의 50주년이 오버랩되면서 마크 롱의 신자유주의적 대학개혁에 대해 68혁명을 다시 호출하였고 그에 따른 대중적 동원과 시위가 전개되었다. 대학생들의 시위는 50년 전의 대학개혁에 맞선 것과 유사하게 대학 문제가 시위의 중심에 섰고, 그 시위의 주체들 역시 주요하게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마크 롱의 대통령 당선은 프랑스에 있는 68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68혁명의 주요한 원인이자 결과 중의 하나가 ‘대표’의 위기와 그 결과로서 새로운 정치의 실험이었다는 사실이다. 그에 비추어본다면 공화당도 사회당도 아닌 새로운 정치적 실험으로서 마크 롱의 깜작스런 등장이 68과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확히 10년 전 2008년 5월의 파리에서는 당시 대통령 사르코지에 의해 68의 망령 쫓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시 사르코지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조롱, 교단에서 권위의 몰락, 공권력에 대한 무시 등의 관행이 68혁명의 망령의 결과라고 간주하고 1968년 5월의 정신과 도덕, 이념과 단절할 것을 요구하면서 68망령 쫓기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렇듯 68혁명은 대략 10년 단위로 초청되거나 상기되는 유령이다. 10년 단위로 68혁명을 불러내면서 현재의 열망을 투사(投射)하고 있는 것이다. 항상 그러하듯이 이제 68혁명 역시 역사가 된 것이다. 10년을 주기로 찾아오는 기념행사는 결국 그 시점의 계기에 의해 재해석되기를 요구받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68혁명의 신화 - 혹은 그 반대로 ‘망령’이 되듯이 - 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어쩌면 알프레드 코반(A. Cobban)이 1954년 런던대학이 프랑스사 담당교수로 취임하면서 행한 강연에서 “프랑스혁명은 무엇이었는가?”를 넘어서 “프랑스혁명은 있었는가?”를 묻고 있듯이, 우리는 68혁명은 무엇이었는가?를 넘어서 “68혁명은 있었는가?”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¹⁾ 분명 “상상력에 권력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등등의 구호는 분명의 계몽의 근대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었다. 푸코 스스로도 지적하였듯이, 68혁명은 근대에 대한 비판적 철학자였던 자신에 큰 영향을 미쳤고, 68의 많은 행위자들 역시 푸코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렇다면 68혁명의 사정(射程 - porté)은 어디까지 인가?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68혁명 자체의 논리에 맞지 않을 것이다. 68혁명은 자신의 지향점을 그리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흔히들 말하듯이 기성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거부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을 출발로 하였을 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완의 혁명으로서 68혁명’이라는 말 역시 어불성설이다. 예를 들어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사정(射程)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해석자들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들의 지향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제3공화국을 프랑스혁명의 포구로 간주하였던 프랑수와 퓨레(F. Furet)의 자유주의적 혁명 해석 혹은 로베스피에르에 정통성을 부여하면서 오랫동안 미완의 혁명을 강조하였던, 르페브르, 마티에즈 등등의 맑스주의적 혁명사가들의 해석 혹은 로베스피에르도 지롱드도 아닌 당통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제3공화국 최초의 혁명사가 올라르(Aulard) 등등은 결국 그들의 주장 혹은 도달하고자 하는 혁명의 종착점이 존재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68혁명은 그것이 비판하고자 했던 표적이 있고, 그로부터 출발점을 찾고자 했다는 것과 함께 그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68혁명의 완성을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는 것이며, 그것은 마치 흐르는 물을 용기에 가두어 그것의 형태를 고정하려는 것과 같다. 68혁명은 시작이 있을 뿐 그 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따라서 68혁명은 계속해서 10년을 주기로 끊임없이 초대되는 혼이 될 것이다. 혹자가 말하듯이 68혁명은 ‘혁명 속의 혁명’이었기에 그 자체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그 정신이 언제나 재활성화된다면, 결국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혁명을 통해서 68은 재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 된다(안효상, 2018). 분명 맞는 말이다. 하지만 차라리 우리는 68혁명을 이제 박물관에 넣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어차피 68혁명은 그것을 불러내는 시점의 용기(容器) 속에 담는 물과 같은 것이라면 굳이 68혁명을 통해서 그 그릇을 채울 필요가 있을까?

68혁명과 그 이후의 사태의 전개 혹은 혁명적 물결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리는 푸코가 말한 계보학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푸코는 원인과 결과 혹은 기원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을 강조한다. 푸코는 중압적이고 원리적인 단일한 원인으로 통일하려는 발생학에 대립하는 계보학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결정요소들에 입각해 특이성의 출현조건을 복원하려는 계보학의 중

1) 알프레드 코반은 취임강연(“The myth of the French Revolution”)을 통해 프랑스 혁명에 부여된 신화를 거부하고자 하였다. 즉 프랑스혁명은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부르조아 질서를 수립한 혁명이라는 신화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프랑스 혁명은 단일한 혁명이 아닌 일련의 혁명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러한 혁명에 대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사물에 대한 해석이 그러하듯 편파적일 수밖에 없으며, 신화 역시 그러한 편파적 해석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다.

요성을 강조한다(Foucault, 2016: 71). 푸코는 고고학적 탐구가 담론이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되는 과정과 그러한 담론의 지위와 담론적 사건 및 그 효과들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계보학은 그러한 담론적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인식과 실천, 합리성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 및 타자와 맺는 관계를 구성하는 바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구분짓고 있다(Foucault, 2016: 147-148). 흔히들 말하듯 전자가 담론에 집중한다면 후자는 담론을 둘러싼 권력관계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68혁명과 이후의 세계의 전개에 대해 고고학적 탐구 및 계보학을 통해 68혁명 담론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68혁명이 무엇이었는가를 묻기 위함이 아니라 68혁명이 그려온 궤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68혁명은 이후의 세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을 각인시켰는가를 보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68혁명은 어쩌면 스스로 존재하기 보다는 그것을 담는 용기(容器)를 통해서만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1968이후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시대

68혁명의 10주년을 기념할 무렵은 지스카르 데스탱이라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자유주의적 대통령의 당선이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던졌던 드브레의 말 - “미국인이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마오주의자로 믿을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 - 은 68혁명에 내재해 있던 자유지상주의적 경향에 대한 냉소였고, 더 나아가 68이 가져온 문화적 혁명이 프랑스 자본주의를 재탄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Debray, 1979). 드브레는 68의 혁명 속에서 등장하였던 삶의 질, 환경, 새로운 에너지와 사상 등이 “저항했던 그 체제에 의해 세심하게 이윤으로 전화”되었다는 점을 간파하였다. 68혁명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문제들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재편 속에서 흡수되었고, 그 때 제기된 다양한 욕망의 표현들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으로 정화되어 등장하였다(Boltanski et al., 1999: 150). 19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경영방식’은 자율성, 자발성, 유동성, 리좀적 능력, 다기능성, 새로움, 창조성 등등의 특징으로 요약되었고, 이 모든 것들은 68혁명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었다.²⁾ 이러한 새로운 경영방식은 반(反)위계질서, 자율성의 요구에 대한 적응이었고 결국은 생산성 향상과 이윤의 증대로 귀결되면서 1970년대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³⁾

1960년대는 2차 대전이후 지속된 번영의 시기였다. 하지만 이 번영 속에 1970년대부터 시작될 위기의 씨앗이 존재하였다. 아니 위기의 씨앗이라기보다는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포드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와 케인즈주의 및 사회적 국민국가로서 복지국가 시스템의 한계가 1970년

-
- 2) 서동진(2008)은 ‘쿨(cool)’ 담론이 1968년의 문화혁명과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혁명과 어떻게 양립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분명 1960년대 등장한 ‘쿨(cool)’은 산업사회의 생활방식으로서 규율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를 대신하여 소비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후기산업사회의 개인적 삶의 방식의 새로운 윤리로 등장한 것이다(Pountain et al., 2003: 22; 39). 문화적 의미로서 ‘쿨’은 그것이 등장하였던 1960년대만 하더라도 사회적 일탈과 반항의 표현이었지만, 1980년대 반항적 지위가 힘을 잃으면서 후기자본주의의 지배적 윤리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1960년대의 문화적 혁명과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혁명이 전혀 다른 이유에서 출발하였지만 일정한 지점에서 결합하여 동일한 사회적 동학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3) 서동진(2008)은 68혁명을 소실매개자로 평가하는 데, 그것은 68 전후의 자본주의 특성의 변화를 찾는다. 서동진은 68혁명 이후 ‘미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혼합, 흔히들 지식기반경제 혹은 문화경제라고 부르는 것의 등장에 주목하면서 68혁명은 이전의 자본주의과 구별되는 이러한 새로운 미적 경제의 등장의 소실매개자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결론에서 이러한 새로운 경제에 내재된 자본의 내적 적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통찰을 빠뜨리지 않는다.

대 초에 이르러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이윤율은 196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그와 더불어 노동운동은 특정노동조직 형태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Beaud, 2015: 377-378). 단순하고 단편적이며 반복적인 노동에 대한 반발이 그것이었고, 또한 ‘지옥같은 작업속도’에 대한 반발, 신경이 피로하고 소음이나 사고를 유발하는 일관작업대의 리듬에 대한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1970년대는 자본주의 전반의 변화가 시작된 시점이었고, 무엇보다도 세계경제질서를 유지하는데 패권을 행사하였던 미국의 뚜렷한 쇠퇴가 드러난 시점이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이 OECD 전체의 40%이하로 하락하였고, 생산성과 성장률의 하락과 그것을 유발시킨 부실경영, OPEC가 주도한 유가상승의 영향, 폭발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장기보다는 단기에, 재화나 서비스보다는 자산의 매매에 전념하는 금융에만 매달리는 미국의 변화 등이 그것들이다(Kindleberger, 2004: 284; 백창재, 2008: 62). 미국의 경제력 쇠퇴와 새로운 변환이 가져온 효과는 국제경제질서의 동요였고, 브레튼우드 체제의 붕괴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브레튼우드 체제가 금융의 국제적 이동을 억압함으로써 국민국가에게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제공했다면, 그 체제의 붕괴이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과 같은 세계적 관리기구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통해 금융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경제발전의 제도적 조건을 해체시켰다. 물론 거시경제관리라는 국가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지만, 뚜렷한 변화가 발생한다. 케인즈주의 시대에 국가의 역할은 산업적 성장과 고용을 목표로 하는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면, 이제 정책의 중심은 화폐정책으로 이동한다(박상현, 2012: 285-286). 정부의 역할은 기업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금융시장의 작동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러기 위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고 화폐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증권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미국정부는 정부지원 모기지인 ‘서브프라임’을 도입하여 대출금 상황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구입용 신용대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용을 매개로 한 착취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Bauman, 2014: 39).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산업예비군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고, 그것은 높은 실업률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였다(박상현, 2012: 297). 케인즈주의를 통한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국민경제의 틀은 이제 신자유주의 혹은 통화주의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조절과 산업예비군 즉 비정규직의 양산을 통한 자본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게 된다. 새로운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식적인 실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히려 월스트리트의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Bauman, 2010: 117).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특히 완전고용을 목표로 했던 케인즈주의적 재정정책으로부터 광범위한 산업예비군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화폐정책을 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속에서 노동자들의 이동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맞추어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적 변환을 겪게 된 다. 케인즈주의 시대 사회정책이 완전고용을 목표로 했다면,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정책은 금융적 팽창과 노동시장의 신축성이라는 목표를 보완하는 경향이 있다(박상현, 2012: 298-299).⁴⁾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사회적인 것’의 조절 즉 국가와 사회적 연대를 통한 사회문제의 해

4) 이 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의 복지국가 수준을 달성한 유럽과 그렇지 못한 미국은 분명 차별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의 호황과 함께 ‘보험의 원리’에 기초했던 연금제도에는 ‘투자의 원리’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구호의 원리’에 기초하였던 빈곤감축 프로그램은 신축적인 노동시장에서 빈민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 사회보험의 목적은 이제 투자자로서 시민의 개인적 축적과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이며, 그 급부의 수준은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의해 결정된다(박

결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오히려 ‘사회적인 것’의 존재에 대한 부정 다시 개인적인 것의 절대화가 이루어지고 사회문제는 개별화된다. ‘사회적인 것’에 대한 인식과 연대를 통한 해결은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인정이며, 공동체의 이름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이었으며, 사회적 국민국가 즉 복지국가의 형성이었다.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해결의 방식을 다시 개인으로 환원시키는 것이었다.⁵⁾ 빈곤은 개인의 결함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불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사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무관심해진다(Bauman, 2010: 130). 사회적 책임성이 아닌 개인의 책임성에 대한 강조를 통한 복지국가의 개혁이다. 노동력의 탈상품화지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개인들을 노동시장에 빠르게 편입/재편입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었다. 이른바 일하는 복지(workfare)가 그것이다.⁶⁾

신자유주의의 강세에 따른 사회적 국민국가의 해체는 그 동안 국민국가라는 공동체 형태를 통해 진행되어 왔던 다양한 통합과 연대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사회적 국민국가를 통해 해결되어 왔던 ‘사회적인 것’의 문제가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해결의 형태를 취하면서 시민권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으며, 그 위기는 곧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해체 혹은 그 정체성의 위기를 동반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계급투쟁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철저하게 개별화된 집단이기주의의 차원에서 이해된다. 전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운동의 쇠퇴, 비정규직의 양산,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프레카리아트의 등장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⁷⁾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을 통한 산업예비군의 확장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분할지배를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지속의 관점을 통해 자본주의 역사를 추적하였던 브로델은 자본주의를 ‘단순히 경제체제로만 상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를 강조하였다(Braudel, 1997: 857). 브로델은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회’를 구성하며, 따라서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활동은 물론 “사회적 건조물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지지대를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차원에서 1970년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그에 따른 자본주의의 새로운 축적 체제의 구성을 위한 변환의 시도는 사회의 새로운 구성과 변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의 이러한 새로운 구성과 변환을 추적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가져올 수 있다.⁸⁾

상현, 2012: 299-303). 유럽의 경우 복지국가의 개혁을 통해 ‘생산적 복지’ 내지는 ‘제3의길’ 등을 통해 기존의 방어적 복지와는 다른 형태의 복지, 즉 일하게 하는 복지, 즉 노동시장에 가능한 한 빨리 재투입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복지로의 전환이 발생하고 있다(김수행 외, 2008).

- 5) 자기계발에 대한 강조, 스펙과 열정에 대한 강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사회의 단면이다(서동진, 2009).
- 6) 68혁명에서 제기된 탈권위주의적 경향과 국가권력에 대한 거부 등 ‘개인’에 대한 강조와 복지국가의 이러한 방향의 개혁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은 분명 아이러니이다.
- 7) 노동자계급 혹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적인 것의 문제해결의 중심에 있었던 사회는 복지국가 시기의 안정적 사회이며, 또한 노동조합을 통한 사회협약이 가능했던 사회였다. 하지만 프레카리아트 사회란 그 시기를 넘어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노동유연성 즉 고용과 소득, 노동시장 등이 보장되지 않으며, 노동조합과 같은 대표조직을 통해서도 말할 수 없는 프레카리아트가 급속히 증가하는 사회이다(Standing, 2014; 이진경, 2011).
- 8) 푸코는 ‘통치성’의 의미를 우선, “인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정치경제학을 주된 지식의 형태로 삼으며, 안전장치를 주된 기술적 도구로 이용하는 지극히 복잡하지만 아주 특수한 형태의 권력을 행사해주는 제도, 절차, 분석, 고찰, 계측, 전술의 총체”라고 정의한다(M. Foucault 2011, 162-163). 푸코는 주권권력은 물론 규율권력과도 구별되는 권력의 새로운 양태를 포착하기 위해 안전(sécurité)이라는 테마에 집중한다. 규율적 기술과 구별되고 심지어 정반대라고도 할 수 있는 ‘삶을 조절하는 기술’은 “내적 위험에 대한 전체의 안전을 수립하려는 기술”이며, “육체들이 전체의 생물학적 과정

푸코는 근대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 정치철학에서 접근하는 주권 개념과 구별되는 ‘통치성’ 개념을 통해 근대 국가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⁹⁾ 18세기 이래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과 현재까지 지속이라는 시각에서 통치성의 변화들을 추적할 수 있다. 물론 18세기 중반 이후 19세기 말까지 (시장-경쟁적) 자유주의, 19세기 말 이후 새로운 자유주의 - 복지자유주의, 전후 독일의 질서자유주의, 20세기 말 이후 신자유주의 등의 변화를 통치성의 변화로 읽어내고 있지만, 푸코는 그것을 생명관리정치의 틀 속에서의 변화로 파악하고 있다. 삶을 관리하는 권력 즉 생명관리권력(bio-pouvoir)은 근대 특히 18세기 등장하는 자유주의적 권력에서 출발한다. 푸코는 국가와 인구 사이에 본질적으로 “안전의 협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본다(Foucault, 1977b: 385). 사회보장제도, 좋은 경찰감시망 등이 불확실성, 사고, 피해, 위험으로부터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는 일상의 삶이 어떤 예외적 사건에 의해 구멍이 나는 모든 경우에 개입한다. 주권은 영토의 경계 내에서 행사되고, 규율은 개인의 신체에 행사되며, 안전은 인구 전체에 행사된다(Foucault, 2011: 31). 또한 그에 따른 권력의 장치 역시 구별된다. 주권권력의 장치인 법이 금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규율권력의 규칙 메카니즘은 ‘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현실을 보충하면서 작동한다. 하지만 안전 장치는 금지도 명령도 하지 않지만, 사실상 금지와 명령의 도구를 활용하고, 일련의 분석과 특수한 배치를 통하여 현실의 요소들과 맞물려 작동한다(Foucault, 2011: 84-85). 물론 그렇다고 주권 권력과 규율 권력이 사라지고 안전장치를 통한 생명관리권력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물론 안전장치는 그 관계의 핵심에 존재한다. 푸코는 신자유주의에서 보이는 국가의 후퇴 역시 통치의 기술의 한 형태로 파악한다(Foucault, 2004; Lemke, 2001: 202). 즉 케인즈주의의 위기와 복지국가의 축소는 규제와 통제 권력의 상실이라기보다는 통치술의 재구조화, 즉 국가의 규제적 능력에서 책임있고 합리적 개인으로의 전이라는 의미에서 통치술의 변화일 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자유주의의 생명관리정치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기본적인 생명관리정치라는 틀 속에서 다양한 요인의 결합과 영향에 의해 시기에 따른 통치술의 변화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치성 개념을 통해 근대 국가의 특성을 접근할 경우 68혁명 이후 역시 새로운 변화를 읽을 수 있다.¹⁰⁾

1970년대 초반 이후 등장한 복지국가의 위기는 곧 ‘사회적 국민국가’의 위기, 즉 국민국가라는 틀을 통해 형성된 민족적 민주주의 및 국민경제의 위기이다. 따라서 그것들을 결합시켜 왔던 민족주의의 새로운 위상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의 민족 개념은 국민국가 시기 국가권력의 주권적 실체로서의 의미 혹은 시민들의 집합적 실체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노동력의 결집체이자 특정한 권리들의 집합체 등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다. 또한 바우만의 지적처럼 ‘민족국가는 지역적인 법과 질서의 경찰관리구역이며, 동시에 글로벌하게 생

안에서 대체되는 그런 기술”이다(Foucault, 1998: 287).

- 9) 68혁명이 구조주의에 대한 사르트르의 복수라는 표현은 ‘구조는 거리로 나가지 않는다’는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의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푸코는 실존주의는 유럽과 프랑스의 지식인에게 하나의 실존양식을 제공했지만 어떠한 실존주의 지식도 존재하지 못한 반면에, 구조주의는 언어학, 사회학, 역사학, 경제학 등의 이론적, 실천적 연구를 구체화하도록 하였다고 말한다. (Foucault 1994: 582). 68혁명의 사정(porté)과 관련하여 관계가 가장 두터운 학자는 푸코일 것이다.
- 10) 사카이 다카시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특징을 근대 국가의 특성과 관련하여 ‘통치의 탈국가화’라고 보기도 한다(사카이 다카시, 2011: 71). 통치의 탈국가화의 의미는 기존 사회적 국민국가라고 정의되는 복지국가에서 생명관리권력이 국가권력이라는 중심화되는 정치가 존재하면서 통치성이 구현되었으면, 이제 생명관리권력은 국가라고 하는 주권적 경계를 벗어나 그것들을 가로지르면서 작동하면서 새로운 작동방식과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하지만 통치성 개념이 주권권력이라는 개념과 구별되지만 그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산되는 위험과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지적 쓰레기통이자 쓰레기 제거와 재활용공장'으로 그 위상이 변질되었다(Bauman, 2014: 110). 주권자로서 시민들의 집합체이자 연대와 삶의 공동체로서 국민국가의 위상은 사라지고 치안(police)과 통치의 대상의 집합체로 전락한 것이다. 정치의 공간으로서 그리고 정치적 주체들의 행위의 공간으로서 국민국가의 의미는 사라진다. 명확히 사회적 국민국가 즉 복지국가는 이제 안보국가가 된다. 오늘날의 국가는 시장이 산출한 실존적 불확실성과 불안에 대한 개입을 중단 -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국가적 개입을 중단 - 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세우는 데 필요한 비경제적 유형의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찾으려 하면서, 특히 최근에 개인 안전을 그 대안으로서 찾은 것이다(Bauman, 2013: 84). 결국 정치(politics)는 사라지고 치안(police)만이 남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새롭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극우)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철저하게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된 그들은 통합불가능한 자들이며, 그들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에서의 경쟁의 전면화가 산출하는, 경쟁으로부터 배제된 자들이며, 나아가 전 지구화된 세계에 ‘잉여’로서 존재하는 이민노동자나 위험한 외국인”이다(사토 요시유키, 2014: 114). 극우민족주의는 이러한 배제와 포섭의 메카니즘을 작동시키는 중요한 포퓰리즘적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 외국인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이며 위험한 사람, 위험한 계급인 것이다. 민족주의자들이 주권권력의 강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예외상태의 상시화를 통한 권력의 권능의 강화이며, 지속적으로 호모사케르의 발명을 통하는 방식이다.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호모사케르는 주권권력이 법적, 정치적 질서 속에 포섭하면서 동시에 배제시키는 존재로서 설정된다(Agamben, 2008). 위험한 계급으로 간주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주권권력이 행하는 ‘안전의 정치’의 대상으로 확정된다. 예외상태/비상상황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계급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은 주권적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의 위협을 차단하고 나아가 개인의 삶을 관리하는 ‘생명관리권력(bio-pouvoir)’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였다(Foucault, 2004). 신자유주의는 시장으로부터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시장의 하위주체로 내세워 보다 잔인한 경쟁원리를 내재한 시장 질서를 인간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시키고 있는 것이다(김항, 2016: 210). 그러한 국가권력은 현대의 테러리즘의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치를 위해 새로운 위협들을 계속 찾아내고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위험한 계급은 바로 이주노동자인 것이다. 계급을 넘어서 계급의 바깥에 존재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한 계급, 즉 ‘최하층계급’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들에 대한 논의는 대중적 관심의 중심에 선다(Bauman, 2010: 133).¹¹⁾ 심지어 빈곤층은 경쟁이라는 전쟁에서 패배한 소비자 사회의 불량품이 아니라 사회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범죄자들과 복지수급자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희미해지고 쉽게 넘나들고 있다(Bauman, 2010: 152).

인민의 정치 혹은 계급(투쟁)의 정치?

푸코는 ‘안전’이라는 새로운 통치 이성의 대상인 ‘인구’라는 개념에 대비되어 ‘인민’이라는 개념

11) 최하층계급은 바우만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개념이다. 공동주택에 사는 빈민들, 불법이민자들, 비행청소년들, 직업없는 빈곤층들, 홈리스, 알콜 혹은 약물중독자들 등 이른바 사회에 무용한 존재들로 간주되지만, 그러한 무용성이 바로 그들의 사회적 쓸모이다. ‘악의 제국’이 붕괴되자 최하층계급은 사회적 논쟁과 대중적 관심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념에 주목하였다. 인민이란 “스스로 인구이기를 거부한 채 이 체계를 마비시키는 사람들”이다 (Foucault, 2011: 80). 관리의 대상으로서 인구가 존재한다면, 인민은 인구의 조절에 저항하고 인구를 최적의 수준에서 존재, 유지, 존속시키는 장치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라고 보면서 그 대립을 분명히 한다. 권리의 정치 혹은 저항을 통해 존재하는 인민은 근대정치가 상정했던 단일한 주권체로서 동질적인 집단으로 환원되지 않는 구조이다. 푸코는 전체주의 국가가 가져온 정치의 실종이 근대성의 내재된 특성 혹은 자유주의 통치성의 경향으로 보았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실종된 정치의 복원 혹은 “바깥의 정치(*politique du dehors*)”의 필요성이다.¹²⁾ 푸코가 근대 국가에 대해서 기존의 일반적인 국가권력에 대한 특권화에 반대하면서 권력의 다양한 관계들에 주목하였듯이, 그 저항의 방식 역시 그로부터 유추된다. 푸코는 해방 모델에 대해 탐탁해 하지 않는다.¹³⁾ 푸코는 국가권력이 권력의 다른 형태들로부터 유추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권력형태들에 근거하며, 국가권력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사회 속에서 기능하고 있는 다양한 권리관계들을 변화시켜야 하며,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을 소유한 개인들과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권리의 관계들이다(Foucault, 1978a: 533). 푸코는 “나를 위해 봉기하시오. 모든 인간의 종국적인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할 권리가 없지만, 그렇다고 “봉기하는 것이 무용하다. 항상 여전히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봉기하는 것, 그것은 사실이며, 그것을 통해 주체성(subjectivité) - 거대한 인간의 주체성이 아니라 아무나의 주체성 - 이 역사에 도입되는 것이며, 역사에 주체의 숨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Foucault, 1979: 793).

68혁명은 새로운 주체들의 형성이라는 계기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동의된 사실이다. 거대담론과 거대 주체에 의해 억압되었던 소수자들의 등장의 계기가 된 것이다. 근대의 이성적 주체에 대한 거부 혹은 비판은 물론 노동자계급이라는 역사적 보편적 주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푸코의 근대 권력에 대한 이해 속에서 주체의 문제가 갖는 난점, 즉 권력에 의한 주체의 생산의 문제설정이 가져오는 주체의 가능성의 문제 역시 발생하였다. ‘주체의 죽음 이후의 주체는?’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며, 또한 새로운 다양한 주체들의 등장을 목도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주체들에 대한 관념에서 경계해야 할 것으로서 주체의 선형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새로운 주체들의 출현의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2000년대 등장한 세계 곳곳에서의 인민의 정치, 즉 정치적 공간에 인민의 등장은 눈에 띠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민의 정치의 방향성은 매우 유동적이다. 때로 이 운동은 월(Wall)가 점령 시위나 스페인의 뾰데모스(Podemos)운동처럼 진보파의 반(反) 보수엘리트주의 지향성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티파티운동(Tea Party Movement)처럼 진보엘리트의 지배에 반대하는 보수파의 반엘리트주의 지향성으로 나타난다. 월가점령 운동은 진보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미국 백인 민중들의 일부는 월가와 주류 미디어 등에 반대하거나 이를 뒤흔드는 자신들의 영웅으로 트럼프를 선택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었다(안병진, 2017: 149). 2011년 5월 15일 마드리드의 뿐에르타 델 쿨(Puerta del Sol) 광장에서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여 연좌농성을 벌였던 ‘분노한 사람들(indignados)’의 운동은 전 세계적인 반(反)

12) ‘바깥의 정치’는 맘스주의 몰락 이후 나타난 다양한 철학적, 이론적 흐름들, 특히 랑시에르, 아감벤, 지젝, 네그리 등이 각자 나름대로의 해방의 정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제도정치의 바깥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사용하는 개념이다(Karsenti, 2005).

13) 1977년 인터뷰에서 해방모델에 대한 경시가 드러나고 이러한 경시는 이후에도 지속된다. 그는 “이런 형태의 담론(해방담론)은 사실상 통제와 권력의 훌륭한 도구이다.”라고 말하고 있다(Foucault, 1977c: 256).

금융자본, 반(反)긴축 시위의 출발점으로 그해 9월 월스트리트 점령(occupy)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리고 ‘5월 15일 운동’은 꾸준히 사회운동으로 성장하여 ‘반자본주의 좌파’ 등의 조직을 통해 새로운 정치운동으로 전환하였다. 이 포데모스 운동조직은 과거 유럽 녹색당이 정치적 소수를 대표하려 했던 점과 달리, 다수인 ‘아래의 인민’, ‘보편적 인민’을 대표하고자 하였다(금민, 2015: 282). 이들 운동 주력은 노조 조직률이 미비한 청년노동자층 그리고 대다수는 중산층 중에서 위기와 긴축정책으로 파탄을 맞본 사람들이었다. 분명 인민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까지 주권자의 귀환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른다. 아니 오히려 포퓰리즘 정치라는 말이 적합할 수 있다. 근대의 대표의 정치에 대한 거부, 직접적 권력의 행사를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2016년 한국의 경우도 대통령이라는 국민의 대표를 소환하고 새로운 대표자를 요구하면서 시민들은 그 스스로 주권자임을 주장하였다. 미국의 트럼프나 프랑스의 마크 롱이라는 인물들의 대통령 당선은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거부의 표현의 결과이자 포퓰리즘 정치의 결과이다. 기존의 대표 체계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정치의 실험이 보여졌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에 대해 좀 더 엄밀한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포퓰리즘의 강세는 근대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대표’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의 전개의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다. 홀(S. Hall)의 지적처럼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담론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으며, 또한 특정한 정당이나 세력의 독점물도 아니다(Hall, 2007: 282-283). 결국 그것은 특정한 이데올로기 투쟁의 산물로서 다양한 여건에 접합될 수 있으며, 다양한 담론들의 논리와 운동 및 실천 속에서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 마가렛 캐노번 역시 “포퓰리즘의 근원이 위기를 발생시킨 사회적 맥락에도 있지만, 민주주의의 본질 깊숙한 곳의 긴장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이 재발하는 이유를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Canovan, 1999).

더 나아가 포퓰리즘 확산의 보다 근본적인 출발은 근대정치 자체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정치의 전제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일화된 주체, 즉 근대 정치의 틀로서 존재했던 국민국가라는 정치형태와 민족/국민(nation)이라는 정치적 주체의 문제이다. 근대 초 정치적 주체로서 등장하기 시작한 ‘인민(people)’은 국민국가라는 틀을 통해 민족/국민이라는 형식으로 전환되었다. 인민은 경계지어진 공간을 넘어서 존재하며 시간에 제약되지 않는 공동체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반면에, 민족은 국민국가라는 근대 정치공동체의 틀을 통해 규정되는 정치적 집단이자 주체로서 가정된 구성물이다. 결국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접합과 동시에 탈구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국민국가 시기 민주주의는 민족/국민이라는 주체의 설정과 그것을 통한 민주주의 구성, 즉 국민주권 내지는 국민을 구성하는 시민권의 발달 등의 효과를 갖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신자유주의 발달에 따른 국민국가의 해체 적어도 그 경계의 불분명함은 민주주의적 주체로 주권적 인민이 민족이라는 틀을 벗어나 구성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포퓰리즘의 대상이 되는, 적어도 그들의 호명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경우 민주주의 아니 국민국가라는 틀을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주권적 인민의 틀을 민족이라는 구성체 내에 가두고자 한다.

극우민족주의는 이러한 긴장을 최대로 이용하면서 인민과 민족의 동일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인민을 동원하고 포퓰리즘 정치를 전개하고 있다(홍태영, 2017a). 포퓰리즘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극우민족주의 세력들은 이민자들을 새로운 적으로 만들어내면서 대중의 욕구를 일정한 방향으로 표출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포퓰리즘 정치의 흐름들 속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층의 확대재생산, 프레카리아트의 급성장 등에 따른 새로운 빈곤한 인민대중의 주체의 가능성과 그에 따라 이들의 욕망에 맞추어 새로운 정치,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거부를 통한 새로운 정치질서에 희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포퓰리즘의 정치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후자의 경향을 강화하면서 정치의 전면에 인민의 등장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주체들을 통한 ‘보편화’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그리고 ‘인민’이라는 보편적인 정치적 주체로서의 호명은 다른 한편으로 ‘민족적’ 경계를 벗어나 경계를 가로 지르는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즉 국민적 동일성(national identity)의 정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확장의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득세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극우민족주의의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가능성이다.

분명 포퓰리즘의 정치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갖는다. 그것이 인민적 민주주의 정치의 가능성, 즉 주권자로서 인민의 등장과 민주주의의 확장으로의 가능성과 또 다른 하나로서 흔히들 말하는 대중영합적 정치로의 가능성이다.¹⁴⁾ 후자로의 길이 아닌 인민적 민주주의로의 확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인 것’의 문제가 현재의 ‘사회적인 것’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적인 것’의 과제는 기존의 국민국가적 해결의 방식 - 사회적 국민국가라는 이름의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적인 것’의 해결 - 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홍태영, 2017b).

현재의 ‘사회적인 것’의 문제가 갖는 특성은 이른바 포스트모던이라는 과제와 맞물려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그 결합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이다. 68혁명이후 제시된 포스트모던의 문제는 흔히들 ‘차이’의 문제설정이며, 그것은 근대의 문제설정 - 주요하게는 맑스주의가 집중하였던 계급 정치의 문제설정 - 을 넘어서(?) 현재의 지배적인 문제설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젝이 지적하고 있듯이, 포스트모던의 과제로서 제시된 다양한 ‘차이’와 관련한 투쟁과 계급투쟁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폐미니스트, 반인종차별주의자, 반성차별주의자 등의 투쟁과 계급투쟁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전자의 목적이 적대를 차이로 변화시키는 것 - 다양한 성, 종교, 민족집단의 평화로운 공존 - 이라면, 후자의 목적은 차이를 계급적대로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이다(Zizek, 2012: 73). 지젝은 역설적으로 보수주의적 포퓰리즘이 오히려 적대의 논리의 확산을 통해 인민을 동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자유주의 좌파는 차이를 인정하고 적대를 공존으로 바꾸려는 논리에 따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대는 ‘차이’에 대한 인정의 욕구가 넘쳐나는 시대임이 분명하다. 68혁명은 그러한 차이가 공적인 공간에 등장하는데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인종 등등 오랫동안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들이 새로운 주체 형성의 계기로 전환되면서 근대의 문제설정을 새롭게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근대의 문제설정을 전환시킨다는 의미는 ‘차이’의 문제설정이 충분히 근대의 ‘계급투쟁’의 문제설정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문제설정을 확장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68년 이후 ‘차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많은 것들은 계급투쟁의 변형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차이’를 통해 전개될 수 있는 계급투쟁의 문제를 단지 말그대로 ‘차이’의 문제로만 환원함으로써 그것에 내재해 있는 계급적대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⁵⁾¹⁶⁾

14) 신자유주의와 극우민족주의의 결합의 산물인 대중영합적 포퓰리즘을 통해 등장하는 ‘인민’은 ‘혁명적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지젝은 이들은 헤겔적 의미의 ‘군중(rabble)’이라고 본다. 이들은 조직화된 사회적 영역 바깥에 존재하여 사회적 생산에 참여할 길을 막혀 있고 파괴적 폭력의 ‘비합리적’ 표출의 형태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Zizek, 2012: 107). 이들의 저항은 의미없는 폭력이다.

15) 1980년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속에서 등장한 공동체주의, 다문화주의 등의 정치적 경향 역시 차이에 대해 강조하면서 자유주의의 보편화 경향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다문화주의 및 공동체주의의 담론의 확대가 계급적대에 대한 문제의식의 약화를 가져온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기본적으로 다문화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적 전제를 공동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지젝은 최근 탈식민주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탈식민주의 연구는 탈식민주의 문제를 식민화된 소수자의 ‘서사의 권리’, 그들의 희생경험, ‘타자성’을 역압하는 권력기제 등 다문화주의적 문제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탈식민주의에서 말하는 착취의 뿌리가 우리의 ‘타자’에 대한 불관용이라고 배우게 되며 나아가 이러한 불관용이 ‘우리 자신 내부의 이방인’에 대한 우리의 불관용, 우리 내부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 가운데 우리를 역압했던 것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배우게 된다. 따라서 정치경제적 투쟁은 어느 새 내적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주체라는 사이비 정신분석학적 드라마로 바뀌고 만다”(Zizek, 2017: 25).

68혁명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설정 속에서 결국 계몽의 진보에 대한 관념은 그 의미를 상실하였고, 결국 모더니티에 대한 반성은 이정표 내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향점을 상실하는 효과를 낳았다. ‘진보’에 대한 회의는 ‘저항’이 취할 수 있는 의미부여에 인색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아니 오히려 저항 자체의 의미가 약화되어 버린 것이다. ‘사회적인 것’의 복합성 및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속에서 계급투쟁의 중심성 및 계급적대의 최종심적 성격이 상실되었다는 지적은 분명 타당할 수 있다(Balibar, 1990; 1992). 하지만 오히려 불평등과 배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계급투쟁, 계급없는 계급투쟁, 혹은 계급적대의 출현에 주목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자본의 활동 범위와 양태가 달라지고 그에 함께 계급투쟁의 초국적 성격 및 노동과 시민권의 배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계급적대가 출현하고 있다. 불평등과 배제, 차이의 차별을 통한 배제와 불평등이 최근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새로운 계급적대의 방식이다. 이러한 새로운 계급적대의 형성은 결국 계급투쟁의 새로운 방식이며, 대중운동 혹은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을 통해 진행되는 다양한 운동과 그것의 계급(투쟁)의 정치와의 절합(articulation)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지젝은 “사회전체를 관통하는 적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해 실패했다면 이 적대를 다른 차이로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계급투쟁은 유일한 준거이자 다른 모든 투쟁을 아우르는 의미의 수평선이 아니라 여타의 적대를 ‘등가의 사슬’로 연결함으로써 지극히 ‘모순적인’ 다양한 방식을 해명해주는 구조화 원칙이다 (Zizek, 2016: 73). 그러한 의미에서 대중운동을 통한 보편화의 가능성과 그것을 통한 인민대중 주체의 형성의 가능성 속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개별화와 종별화의 가능성 사이의 절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것이 개별 주체의 문제, 즉 결국은 억압과 지배/피지배의 문제이자 동시에 계급 적대의 문제가 결합되어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 주체화의 과정을 거치는 과제이다. 이러한 주체 형성의 과정은 동시에 인민대중의 형성이라는 보편화의 과정과 결합된다. 결국 대중운동없는 계급투쟁은 맹목이고, 계급투쟁 없는 대중운동은 공허하다(윤소영, 1995: 126).¹⁷⁾

이러한 계급정치에 대한 사유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고려해야 할 새로운 층위들이 존재한다.

16) 1990년대 한국사회의 파퓰러 폐미니즘이 대중성 내에서 폐미니즘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면서 폐미니즘의 양적 확장에는 성공했지만 질적 전환에 실패하면서 결국 시장의 논리에 포섭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비판 역시 유사한 맥락일 수 있다(손희정 2017, 93-98).

17) 사실 이러한 언명은 이미 알튀세르에 의해 제기된 “역사를 만드는 것은 대중이다.” 그리고 “계급투쟁이 역사의 동력이다.”라는 “존 루이스에 대한 답변” 속에서 언급한 명제로부터 유추될 수 있을 것이다(Althusser, 197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운동 및 포퓰리즘적 운동이 구성되는 혹은 구성하는 상황과 정세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정세 속에서 계급투쟁과 대중운동이 절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우선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적인 것’의 문제가 국민국가라는 틀을 벗어나 세계적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통해 국민국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노동과 자본이 넘나들면서 연대와 민주주의적 주체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있는 시점에 “계급과 인종의 변증법”이 작동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가장 ‘위험한 계급’으로 등장한 이들이 바로 이주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존의 계급정치의 선을 가로지르면서 세계화된 자본의 모순의 첨단에 존재하고 있으며, 기존의 계급적 타협 – 사회적 국민국가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진 노동자계급의 국민화 및 사회화 – 의 틀을 탈구시킬 수 있는 잠재된 계급이다. 또한 국민국가의 틀을 벗어나 계급적 구성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근대의 대중운동이나 포퓰리즘이 ‘국민/민족의 동일성’에 기반한 운동이 아니라 동일성의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주체화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국민이라는 동일화의 틀을 벗어남으로써 포퓰리즘 정치의 한계, 즉 대중영합적 정치로 흐르지 않고 인민적 민주주의의 확대의 구체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포퓰리즘이라는 대중운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계급정치와 절합된 대중정치의 구체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계급정치와 대중정치의 절합(articulation)의 지점들로서 생명관리권력에 대한 저항의 지점들이 작동할 수 있다.¹⁸⁾ 분명 푸코의 ‘권력의 미시물리학’에서 사유되기 곤란한 역사성의 범주 – 역사유물론 –와 계급적 특수함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Balibar, 2007: 365-366). 그러기에 저항을 통한 대중정치와 계급정치의 절합은 결국 정치적 상황과 정세 속에서 ‘사건’화하는 정치적 실천의 문제이자 동시에 철학적 사유의 문제이다. 저항의 지점들은 권력이 생명관리권력으로서 인간들의 삶이 문제시되듯이 삶으로부터 제기되는 것들이며, “능동적 주체성과 집합적 연대가 형성되는 ‘장소’라는 적극적 의미의 저항”이기도 하다(Balibar, 2012: 118). 권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주체는 “영원성의 형태인 인간이 아니라 특이성의 담지자이자 ‘가능성으로 가득찬’ 삶인 것이다(Deleuze, 1995: 139). 그 삶은 “삶의 가장 강도 있는 지점, 그들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은 정확히 삶이 권력과 충돌하고 권력과 투쟁하며 권력의 힘을 이용하거나 그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그 지점이다”(Foucault, 1977d: 16). 결국 삶의 구체적인 지점들에서 형성되는 저항의 지점들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가장 모순이 응축되는 지점들이며, 삶을 장악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 균열을 가져오는 지점들이다. 또한 그러한 저항을 통해 다양한 주체성들이 형성되며 또한 그들 사이의 연대를 통한 집합적 행동으로의 전환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환의 정치가 가능해 진다.

68혁명을 위한 레퀴엠

68혁명은 분명 현재의 투쟁과 운동과의 연결지점을 포착할 수 있는 수많은 지점들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혁명의 보고임에 틀림없다. 68혁명이 열어놓은 공간 속으로 수많은 새로운 운동의 주체들이 출현하였고, 그들은 그 공간을 새롭게 구조화하면서 다시 새로운 유토피아적 공간을 열고자 하였다. 그리고 68혁명이 열고자 했던 지평은 근대가 제시했던 해방의 지평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가능성들의 지평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롭게 전환된 자본주의의 모습은

18) 계급정치와 대중정치의 절합 혹은 맙스와 푸코의 절합이 이론적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결국의 저항과 운동이라는 정세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8혁명의 열기를 충분히 흡수하고자 하였고 그 전환된 자본주의의 구성 속에 68혁명의 열기는 물론 그것의 문제설정까지도 녹아들어 갔다. 그러한 의미에서 68혁명은 이후 시간 속에 흘어져 버려 녹아들어가 버린 탓에 68혁명의 실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1968년 5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라는 물병에 68혁명이라는 물을 담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현재를 통해서만 68혁명은 존재할 뿐이다.

1968년에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위한 혁명적 운동이 지속적으로 반복 - 그것이 동일한 반복이 아니더라도 - 되면서 지금의 21세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굳이 우리는 2018년이라는 시점에서 50주년이 되는 68혁명을 다시 불러낼(招魂) 필요는 없지 않을까? 차라리 68혁명에 대한 레퀴엠(Requiem - 鎮魂)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68혁명이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68혁명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68혁명이 거부하였고 그것이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것들로부터도 이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오히려 우리는 68혁명의 문제설정의 과소 혹은 과잉 ‘결정(?)’에 대해서도 사유해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근대적 기획에 대한 68혁명의 반란은 의미있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과소’ - 70년대 이후 새로운 자본주의 속에 포섭되면서 자신의 혁명적 열기를 상실하였다는 의미에서 - 혹은 ‘과잉’ - 모든 문제를 ‘차이’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그것들이 가진 착취와 억압 혹은 배제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 되면서 오히려 그 68혁명 스스로의 의미를 상실해버리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68‘혁명’을 불러내고 있지만, 그것이 현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8혁명에 대한 환상을 불러낼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68혁명의 문제의식을 넘어서 68혁명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자본주의적 구조와 질서가 가져오는 것들을 사유하고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틀이다. 68혁명의 문제제기로 그것들을 모두 포괄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68혁명의 혁명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미 우리는 68혁명이 만들어낸 세계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와 버렸다. 혹은 적어도 68혁명이 지향했던 세계가 끊임없이 상상력을 뛰어넘어 끝없는 개신을 통해 만들어져가는 세계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굳이 지금의 우리가 68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세계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되뇌일 필요는 없다. 혹은 68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명분 역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미 68혁명은 없고 현재에 의해 투영된 68혁명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68혁명의 커다란 장점이기도 한 것인데, 그만큼 68혁명이 그렸고, 그것이 그릴 수 있는 궤적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리듬적으로 확장되고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혁명적 움직임은 그만큼 다양한 주체들의 형성과 그들의 유토피아적 공간을 현재 그리고 미래에 투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68혁명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마치 신의 존재가 너무 커져 버려 세상의 악마저도 신의 의지가 되어버렸듯이, 68혁명의 사정(射程)이 너무 커져버려 마치 68년 이후의 모든 것 - 혁명성은 물론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까지도 - 이 68혁명의 효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2018년 68혁명의 50주년이지만 동시에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라는 우연적 시간이다. 그것이 단순히 우연적인 시간의 겹침만은 아니다. 68혁명은 가까운 숫자상의 시간이지만 이미 과거의 역사가 되었고, 마르크스는 먼 숫자이지만 아직도 현재적이다. 2018년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의 문제설정을 다시금 숙고해야 할 시간이다.

참고문헌

- 금민. 2015. 「포데모스, 좌파포퓰리즘의 가능성과 한계」, 『마르크스주의연구』. 12(4).
- 김항. 2016. 『종말론 사무소』.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박상현. 2012. 『신자유주의와 현대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서울: 백산서당.
- 백창재. 2008. 『미국패권연구』. 서울: 인간사랑.
- 사카이 다카시. 2011. 『통치성과 자유』. 서울: 그린비.
- 사토 요시유키. 2014. 『신자유주의와 권력』. 서울: 후마니타스.
- 서동진. 2008. 「자본주의의 심미화의 기획 혹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소실매개자로서의 68혁명」, 『문화과학』.
- . 2009. 『자유의 의지 자기 계발의 의지』. 서울: 돌베개.
- 안병진. 2017. 「배트맨에서 조커의 시대로 – 트럼프의 ‘질서이탈’ 시대에 대한 단상」, 『안과 밖』. 42.
- 안효상. 2018. 「1968혁명과 혁명의 새로운 정신」. 『시대』 58호.
- 윤소영. 1995. 『마르크스주의의 전화와 ‘인권의 정치’』. 서울: 문화과학사.
- 이진경. 2011. 『불온한 것들의 존재론』. 서울: 휴머니스트.
- 손희정. 2017. 『페미니즘 리부트』. 서울: 나무연필.
- 홍태영. 2008. 『국민국가의 정치학』. 서울: 후마니타스.
- . 2017a. 「국민국가의 민족주의에서 ‘민족’없는 민족주의로」, 『다문화사회연구』. 10(1).
- . 2017b. 「사회적인 것’의 부침과 민주주의의 동요」, 『아세아연구』. 60(2).
- Agamben, G. 2008. 『호모 사케르』. 박진우 역. 서울: 새물결.
- Althusser, L. 1973. *Réponse à John Lewis*. Paris: Mapsero.
- Balibar, E. 1990. “De la lutte des classes à la lutte sans classes?” in E. Balibar et I.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e. Les identité ambiguës*. Paris: La découverte.
- . 1992. “Exclusion ou lutte des classes?”, *Les frontiers de la démocratie*. Paris: La découverte.
- . 2007. 『대중들의 공포』. 최원/서관모 역. 서울: 도서출판b.
- . 2012. 『폭력과 시민다움』. 진태월 역. 서울: 난장.
- Bauman, Z. 2010. 『새로운 빈곤』. 이수영 역. 서울: 천지인.
- . 2013. 『부수적 피해』. 정일준 역. 서울: 민음사.
- . 2014. 『빌려온 시간을 살아가기』. 조형준 역. 서울: 새물결.
- Beaud, M. 2015. 『자본주의의 역사 1500-2010』. 김윤자 역. 서울: 뿌리와 이파리.
- Boltanski, Luc et Chiapello, 1999. *Le nouvel esprit du capitalisme*. Paris: Gallimard.
- Braudel, F. 1997.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I-2. 주경철 역. 서울: 까치.
- Canovan, M. 1999. “Trust the people!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olitical Studies* XLVII.
- Debray, D. 1979. “A Modest Contribution to the Rites and Ceremonies of the Tenth Anniversary”, *New Left Review*. No. 15. May-June.
- Foucault, M. 1978. “La société disciplinaire en crise”. *Dits et Ecrits*. III. Paris: Gallimard.
- . 1979. “Inutile de se soulever?” *Le Monde*, No 10661, 11-12 mai 1979,

- Dits et Ecrits*, III. Paris: Gallimard.
- 1994. "La philosophie structuraliste permet de diagnostiquer ce qu'est «aujourd'hui»"(entretien avec G. Fellous). *La Presse de Tunisie*, 12 avril 1967. *Dits et écrits* I. Paris: Gallimard. ----- 1998.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박정자 역. 서울: 동문선.
- 2004.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Cours de Collège de France. 1978-1979.* Paris: Gallimard. Seuil.
- 2008. *Le gouvernement de soi et des autres :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82-1983.* Paris: Gallimard .
- 2011.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역. 서울: 난장.
- 2016. 『비판이란 무엇인가』. 심세광 외 역. 서울: 동녘.
- Hall, S. 2007. 『대처리즘의 문화정치』. 임영호 역. 서울: 한나래.
- Karsenti, B. 2005. "La politique du dehors. Une lecture des cours de Foucault au Collège de France(1977-1979)", *Multitudes*, 22, Autumn.
- Kindleberger, C. P. 2004. 『경제강대국 흥망사 1500-1990』. 주경철 역. 까치.
- Lemke, Thomas, 2001. "'The birth of bio-politics': Michel Foucault's lecture at the Collège de France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Economy and Society*, Vol. 30, No. 2.
- Robins, D. et Pountain, D. 2003. 『세대를 가로지르는 반역의 정신 cool』. 이동연 역. 서울: 사람과책.
- Standing, G. 2014. 『프레카리아트-새로운 위험한 계급』. 김태호 역. 서울: 박종철출판사.
- Zizek, S. 2006. 『혁명이 가다온다』. 이서원 역. 서울: 길.
- 2012. 『멈춰라, 생각하라』. 주성우 역. 서울: 미래엔.
- 2016. 『새로운 계급투쟁』. 김희상 역. 서울: 자음과 모음.
- 2017. 『레닌의 유산: 진리로 나아갈 권리』. 정영목 옮김. 서울: 생각의힘.

운동의 결합의 현장 - 68년 5월 점거

김승연 (동국대학교)

서론

68운동에서 점거는 사회구조와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기한 68운동의 구호에 적합한 계기들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점거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했고, 이는 드골 정권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68혁명에서 점거는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는 어떤 위급한 상황의 고발인가, 아니면 어떤 공동체적 표현의 방식인가? 여기서 68혁명의 다양한 점거를 살피고, 점거운동이 갖는 집단행동의 역학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정권의 전복으로 치달은 프랑스의 68운동의 특수성을 재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모든 점거는 통상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집회(集會), 점거(占據) 그리고 퇴거(退去)이다. 점거와 같이 운동가들이 신체의 위험을 감수하는 집단행동은 분노, 공포, 연대, 두려움, 자랑스러움과 희열 같은 감정의 표현들을 수반한다. 이들은 걷고 뛰고 소리 지르며 웃고 분노하는 신체적 경험을 통해 분노, 저항, 그리고 연대의 코뮤니타스(communitas, Turner)를 만들어 낸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이라기보다 일련의 공유된 이념과 공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점거, 불법 행위, 대치, 연행 등과 같은 집단행동에서 운동가들은 자부심과 기쁨뿐 아니라 공포와 폭력도 경험하는데, 이러한 신체와 감정의 의례를 통해 운동가 개인은 운동 조직으로 통합되고 결집된 집단의 힘을 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다(김승연 2011).

본론1. 점거로 점철된 68

은행 유리창을 가격한 낭테르 대학생이 체포되자 낭테르 대학의 아나키스트 그룹과 트로츠키주의 그룹, 마오주의 그룹이 연대하는 계기가 되고, ‘3월 22일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잠잠하던 프랑스에 저항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낭테르의 저항은 소르본으로 이어지고, 프랑스는 앞선 다른 나라의 운동 속도를 앞질러, 다른 나라와 달리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위대한 병행’을 이뤄낸다(길허-홀타이 2005:126-127). 오직 프랑스에서 9백만 명의 참가자를 헤아리는 총파업이 불붙고 통치체제를 위기로 밀어넣었다.

낭테르대의 ‘분노파’나 파리의 ‘3월 22일 운동’ 모두 신좌파 지식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대학 개혁을 사회 모든 분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이에 고등학생과 청년 노동자도 합세한다. 학생 저항이 노동자층에 전달된 ‘결정적인 사건(부르디외의 표현)’은 5월 10일 라탱 지구에 바리케이드가 세워지고 점거가 시작된 시점이다. 이때의 바리케이드는

파리코뮌(1871)과 독일 점령 때 파리 해방(1944)의 바리케이드로부터 차용된 것이고 그런 기억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 결국 경찰과의 대치에서 여론과 미디어는 이들의 편이 되었다(ibid:133).

5월 13일 총파업 시위에 전국의 호응이 높은 상황에서 정권 퇴출의 요구가 등장했고, 소르본 재점거를 본딴 낭트 항공기공장 점거는 전국 공장 파업의 물결로 이어진다(ibid:137). CFDT는 파업의 구호를 ‘자주관리’로 내세우며 이를 개념화하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단결하는 데 기여한다(길허-홀타이 2005:139). ‘상상력에 권력을’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낭테르 학생들과 예술인들이 오데옹을 점거한다.

본론 2. 운동의 도가니, 점거

점거는 그 자체로 불법적이기 때문에 의례적 상징과 절차를 통해 과정과 참여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본 연구자는 점거의 이러한 의례적 성격에 입각하여, 68운동의 다양한 점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하나는 위기의 고발을 통해 문제 해결을 꾀하고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반란의례적(anti rituel) 점거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근본적인 새로운 공동체적 가치를 제기하는 반구조적(contre structurel) 점거이다.

68년 5월의 점거들 중에서 학생들이 주축이 된 학교와 거리, 극장 등의 점거는 반구조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이제까지 질서로 인정되던 방식과 구조를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와 참여를 강화하라는 요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점거 과정 자체에서 개인의 자유와 참여를 보장하는 성격을 강조한다. 여기서 점거위원회, 즉 comité de terrain이 부상했는데, 각 점거에서 자유와 자율, 안전을 담당하는 의결기구로 기능했다. 점거위원회는 이미 운동 세력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정당과 노동조합에 대항해서 점거자들만의 새로운 공동체가 기능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종종 노동조합과 점거위원회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에 반해 노동자들의 작업장 점거는 반란의례의 성격이 강하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투표로 시작되고 투표로 끝나는 형태를 취하는데, 점거 과정에서도 업무시설이나 작업장이 파괴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보초를 서고 관리한다. 작업장 점거는 다른 점거에 비해 목적과 요구 사항이 비교적 뚜렷한데, 68혁명의 경우 아무리 자유와 자율,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있다 해도 그것은 임금 인상이나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이루어졌다. 즉, 노동자들의 점거는 파업을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파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학생 점거와 함께 퍼져나간 노동자 점거는 학생과 노동자가 같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기에 충분했고, 각각의 일터에서 이루어진 협상과 별개로 68운동 전체를 형성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다른 사상과 요구로 나뉘어진 노동계도 점거의 공간에서 서로 섞이고 교류하였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접합에 호의적인 FO나 CFDT와 달리, CGT는 연합을 저지하기 위해 학생과의 접촉을 막고 사회위기가 극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길허-딜타이:141), 공동체적 이상으로 무장한 반구조적 일체성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정권의 전복과 정치 구조의 재편성을 초래했고, 신좌파의 이념이 구좌파의 그것을 종식시키며 좌파의 재편성 결과를 이끌어내었다.

결론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점거의 행동은 다양한 주체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지만, 이것을 이해집단이 고립되어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점거가 한 사회에서 갖는 고유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프랑스 68혁명 당시 학교점거, 공장점거, 상징적 공간의 점거를 각각의 이해집단이 따로 독립적으로 벌이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애초에 점거라는 집단행동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셈이다. 점거가 갖는 고발의 성격뿐 아니라 이를 주장하는 세력의 규합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점거는 대중과 여론에 거론되면 될수록 그 목적을 달성하며 점거라는 불법행위를 시도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점거는 외부 세력과의 연계와 연대를 그 중요한 방식, 나아가 목표로까지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점거는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이 두드러진다. 공장점거와 달리 학교점거, 나아가 거리점거는 참여의 가능성을 높이고 세력의 규합을 꾀함으로써 운동을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68운동의 힘은 바로 이 구체제에 반대함으로써 세력을 규합하는 점거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네갈 68년 5월 항쟁과 프랑스68혁명의 상관관계 연구

민진영(전남대학교)

1. 머리말

세네갈은 1960년 독립을 맞이한 이후 레오폴드 세다르 생고르(Leopold Sedar Senghor) 대통령 하에서 국가체제를 다져나가는데 있어서 1960년대 내내 평탄할 수가 없었다. 반외세와 식민주의 척결을 외치면서 생고르의 독재체제가 장기화될 국면에 놓였고, 생고르 권력은 다른 정치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독재체제를 강화해나갔다. 생고르 정권을 지지하지 않았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땅이나 프랑스로부터 추방당하거나 심지어 프랑스 정부의 감시 하에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곤란을 겪게 되는 이들도 상당하다.

68년 5월 다카르대학의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와 학생권익과 민주주의 정착을 요구하는 극렬한 시위를 벌이게 된다. 이 시위는 노동자들이 학생들에게 가세하여 다카르시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정부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에 빠진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세네갈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정확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68년 5월 다카르 반란, 68년 5월 세네갈 혁명, 세네갈 68 항쟁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사건을 반란, 혁명, 시위, 운동, 항쟁 중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 글에서는 세네갈 68년 5월 항쟁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2018년 50주년에 이른 이 사건에 대하여 최근에야 활발한 조사과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은 다카르의 민주주의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고,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체제가 잘 유지되는데 있어 다카르의 68년 5월의 사건은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68년 5월 다카르 항쟁은 프랑스의 68혁명과 그 시기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68 혁명이 파리, 프라하, 시카고 등의 세계적 문화혁명운동으로 커져갔던 것에서 유추해볼 때 다카르의 항쟁 역시 프랑스 68혁명의 한 부분이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네갈 68년 5월 항쟁과 프랑스 68혁명이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을까에 진지하게 연구조사해보지 않은 상태로 여러 의견들이 난무한 채 막연한 추측만으로 50여 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세네갈 68년 5월 항쟁과 프랑스 68혁명이 연관관계에 있는지, 있다면 어느 면에서 연관성이 있는지, 왜 지난 50여 년간 이 연관관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등장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68년 5월의 다카르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 사건에 대한 국제적 해석,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밝혀진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같은 사건에 대한 세네갈 내부의 해석과 세네갈 밖의 외부의 해석이 어떻게 다

1)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시위 참여자들과 시위반의 반대자들에 대한 다양한 증언들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조금씩 들춰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글들이 세네갈의 68년 5월 사건을 하나의 이름으로 명명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Gueye (2017), Bathily (1992), Lô (1987), Thioub (1992), Dramé et Lamarre (2009), Blum (2012), Ndiaye (2007). Guèye, Omar, «Mai 1968 au Sénégal», *Socio*, n°10, 2018, p.122.

른지 밝혀보는 것도 필요하다.

2. 세네갈 1968년 5월 항쟁의 경위

이 사건은 다카르 대학교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요구한 것에 기원한다. 60년대 후반에 들어서 다카르 대학교에서 대학입학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대폭 늘어나자 세네갈 정부는 이들 모두에게 장학금 지급할 길이 없어서 기존에 있던 장학금 제도를 대폭 줄이려는 <Fouchet 3 개혁>을 단행한다. 이 개혁은 대학생들의 납부금에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학생들은 납부금을 절반이나 2/3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시작했다. 1968년 5월 18일부터 시작된 시위는 계속 이어졌고, 경찰은 대학 캠퍼스 내부로 침입했다. 5월 27일 대학 캠퍼스가 세네갈의 공수부대에 의해 점령된 직후 이에 노동자들 또한 가세하게 되고, 800명의 노동자들이 시위로 체포되었다. 다카르 인근에 있던 마르셀 비제아르 (Marcel Bigeard) 장군의 프랑스 군대까지 동원되자, 시위는 더 극렬해져서 시위대는 몰로토프(Molotov)화염병까지 사용하였고, 결국 2,500명의 시위대들이 체포되었다. 5월 29일 대학 캠퍼스에서 살몬 쿠리(Salmon Khoury)가 경찰의 과격한 진압에 의해 죽게 되었고, 이 죽음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시위를 더 격렬하게 만들었다. 이 격렬한 시위는 29~31일까지 3일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셍고르 대통령은 다카르에서 대학을 폐쇄하고 전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968년 5월 30일에 생고르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치인의 전형적인 언술을 사용하여 세네갈의 독립을 훼손시킨 외세의 영향을 비난하고 다카르 학생들에게 단순히 프랑스 학생들을 모방한다고 비난했다. 라디오 방송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민여러분은 현재 학생들의 시위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심각한 것은 UDES(Union démocratique des étudiants sénégalais)의 참여자 수가 150 여명인지, 200 여명인지가 아닙니다. 심각한 것은 동조조합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소수가 국가교육의 전반적인 기능, 특히 세네갈대학과 몇몇 기관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확인되겠지만, 동조조합들의 요구들의 배후에는 외세 세력의 정치적 요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생겨난 어린 독립 국가인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독립국가가 아닌 한 우리는 살아갈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²⁾

이런 정치적 멘트는 68년의 세네갈의 현세에 잘 적중하였다. 생고르는 당시 세네갈의 외교 정책이었던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비동맹 정책을 내세워 외세를 모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노동자들의 시위를 비난했던 것이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의 시위에 가세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노동자들은 <기업과 노동의 세네갈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노동계는 68년 5월 이전부터 이미 반(anti)-프랑스 정서가 강했는데, 프랑스 기업들이 세네갈 노동계에 개입하고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거나 실업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다. 세네갈의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 노동자들은 기업주로부터 낮은 임금이나 실직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 기업주들은 유럽 근로자를 모집해오겠다는 위협으로 노동 조건을 더 열악하게 해버리기도 했

2) 1968년 5월 30일 라디오 방송, 6월 1일 DACAR MATIN 신문에 같은 내용이 실림 Bathily, Abdoulaye, *Mai 1968 à Dakar ou la révolte universitaire et la démocratie*, Harmattan-Senegal, Dakar, 2018. p. 53에서 재인용

다.³⁾

노동조합은 이 학생 세력들을 지지하면서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는 유일 독재 정당인 UPS(Union progressiste sénégalaise 세네갈진보연합)의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야당 세력으로 뭉치게 된다.

이를 우려한 세네갈진보연합은 과거 식민지배 국가인 프랑스에 의지하게 된다. 동시에 프랑스의 아프리카 문제해결사인 자크 포카르(Jacques Foccart)가 세네갈에 파견한 프랑스 내부장관 장 콜린(Jean Colin)은 세네갈 군대를 돋기 위해 프랑스 공군을 세네갈의 기지에 불러 모았다.

시위 참가자들은 세네갈의 학생 및 노동 조건에 관한 개혁을 했다. 학생과 노동자 시위대의 주요 비판 골자는 세네갈의 "신식민주주의" 및 "국가의 높은 생활 수준"이었다. 당시 다카르 대학교는 그때까지도 프랑스 18대학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대학 구조와 학생 프로그램이 프랑스식 모델을 따르고 있었고, 직원도 대부분 프랑스인이었다. 1968년 학생 수 또한 세네갈 학생 32 %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학생 38%인데 반해 프랑스 학생이 27%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독립 후 8 년 동안의 1967-1968 학년 동안, 다카르 대학교는 여전히 프랑스인이 학장이었으며 세네갈 및 아프리카 교수는 44명인데 반해 프랑스 교수들은 244명이었다.⁴⁾ 이 구조는 학생들이 대학의 "탈식민화"와 "아프리카화"에 대해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다.

시위기간 동안 종교계의 반응은 과히 역설적이었다. 가톨릭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고르 대통령은 이슬람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다카르의 시위를 잠재워주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슬람 지도자들은 국가원수의 요청인지라 시위대들에게 도시에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시위대들에게 해산을 권유하였다. 이슬람 종교계가 생고르를 지지한 것과는 모순되게도 시위대를 도운 것은 카톨릭 도미니크회 수도사들이었다. 다카르의 생 도미니크 교회는 다카르 대학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다. 군대가 캠퍼스를 진압했을 때 학생들은 교회에 피난처를 마련했다. 도미니크 교회의 수도사들은 대학에서 일어났던 시위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다. 상처 입은 시위대들에게 응급 처치를 한 것은 바로 그 수도사들이었다. 또한 사제들은 6월 2일 오순절 미사의 설교시간에 비무장상태의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정부를 비판하였다. 생고르는 이 상황을 불쾌하게 여기게 되어 사제들의 추방을 요구할 정도가 되었다.

1968년 5월 27일에 시작된 세네갈의 학생과 노동자의 시위는 겉으로는 6월 11일에 보름여만에 끝났지만, 고등학생들의 파업까지 포함하자면 거의 4개월 지속되었고, 학생과의 최종 협상은 9월 26일에 종료되었다. 노조에 대하여서는 전폭적이지는 않았지만, 임금인상부분에서 6 월에 협상을 끝냈다. 학생들의 대학 개혁 및 장학금 인상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고 교육 개혁은 9월에 협상을 마쳤다. 6월 초 그는 국방을 장악하고, 물론 야당 인사를 정계에 받아들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장관급 인사 개편을 실시했다. 그는 1968 년 9 월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여 독일 출판 협회의 명예로운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학생들과의 협상도 종료했다. 생고르는 자신의 통치체제에서 평화를 회복하지 않고서도 독일의 정치적, 문화적 엘리트 앞에 설 수는 없었던 것이다. 생고르는 프랑크푸르트로의 떠나기기 전에 세네갈 위기

3) Bathily, Abdoulaye, *Mai 1968 à Dakar ou la révolte universitaire et la démocratie*, Harmattan-Senegal, Dakar, 2018.
p. 61.

4) Bailleul, André, 1984, « L'université de Dakar : institutions et fonctionnement (1950-1984) », Université de Dakar, thèse de doctorat d'État de droit. Guèye, Omar, « Mai 1968 au Sénégal », Socio, n°10, 2018에서 재인용

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했기 때문에 협상을 급속적인 타결을 이뤄냈다. 이 협상에는 추후에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이 되고 싶어 했던 생고르의 야망 또한 극적인 협상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3. 자생설과 외부원인설의 상반된 해석

세네갈 68년 5월 항쟁은 프랑스의 68혁명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고, 두 사건 모두 학생들이 봉기하여 노동자들과 결합하고, 시위는 사회전반을 흔드는 큰 문제로 확산되었다. 세네갈 68년 5월 항쟁 사건을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 과거 식민지배 국가인 프랑스와 거의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프랑스 68혁명이라는 사건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을까? 활동가들, 세네갈의 역사가들, 그리고 그들의 반란에 대한 후속 설명들은 프랑스와의 관계 속에 그 진위가 왜곡되었다. 과거 식민지배자들과 새롭게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해해야만 한다.

다카르의 반란은 파리보다 몇 주 뒤 1968년 5월 27일에 시작해서 6월 11일 파리보다 훨씬 더 빨리 갑작스럽게 끝났다. 세네갈의 68년 5월은 파리의 68년 5월의 축소 버전인 것처럼 보이며 만에 끝났고, 파리와 비슷하게 유감스런 결말로 끝맺는다. 그 결말이란 바로 한 시위자가 죽고 20여명이 부상당했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임금 인상이 이뤄지긴 하였지만, 그 또한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가장 아쉬운 점은 이 항쟁 이후 세네갈에서 생고르 정권은 더욱 견고해지고 잔존하던 중도좌파가 “전체 해체”되었다는 점이다.

다카르의 쉐이크 안타 디옵(Cheikh Anta Diop)대학⁵⁾ 역사학과 교수인 오마르 게이에(Omar Gueye)는 2018년 5월 프랑스 rfi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세네갈 68년 5월 항쟁이 프랑스 68혁명 사이에는 분명히 유사점이 있었지만 다카르가 프랑스를 모델로 삼고 68혁명을 본받았다는 것은 다카르의 혁명을 단순화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1968년) 5월 30일 생고르 대통령은 다카르의 학생들이 “백인들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비난하면서 학생들의 시위를 무력화하려 했고 그 전날 일어났던 끔찍한 억압을 정당화했다. 연설에서 생고르는 자신의 나라를 뒤흔든 위기 상황에서 시위대가 ‘외세’의 손을 빌렸다고 비난했던 것이다. 두 운동에 대한 나의 오랜 연구를 통해 나는 두 운동이 구분된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비록 양측 모두 학생들이 선봉에 서서 프랑스의 드골과 세네갈의 생고르라는 오래된 정권들에 대해 저항을 했었다는 점은 유사하다. 하지만, 프랑스의 젊은 혁명가들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어했던 반면, 세네갈의 혁명가들은 신식민주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을 전개했다.⁶⁾

오마르 게이에 교수의 자생설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점들을 몇가지 찾아보자. 먼저 세

5) 68년 5월 세네갈 항쟁이 있었던 다카르 대학은 그 이름이 현재 쉐이크 안타 디옵(Cheikh Anta Diop)대학이다. 68년 당시에는 다카르 대학은 프랑스 18대학이라고 불렸다가 후에 생고르 대학이라고 불리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네갈 국민은 세네갈의 정신적 영웅은 시인이자 대통령이었으며 네그리튀드의 주창자였던 생고르보다는 민주적 정치 이념을 현실정치보다는 저서와 후진양성에 힘쓴 쉐이크 안타 디옵(Cheikh Anta Diop)을 선택했다.

6) Tirthankar Chanda “La révolte des étudiants au Sénégal en mai 1968: questions à Omar Gueye”, 2018년 5월 4일자 rfi방송 인터뷰. 출처 : <http://www.rfi.fr/hebdo/20180504-revolte-etudiants-senegal-mai-1968-questions-omar-gueye-syndicats-bourses-france> 검색일 2018. 10.9

네갈내부 상황을 정치, 경제, 역사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68 혁명이 프랑스 외에도 세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러면 세네갈 시위대가 세계적 흐름에 함께 동조한 것인지 외세에 의존한 것인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3.1 독립이후 세네갈 정치사와 자생설

먼저 세네갈 68년 5월 항쟁이 내부원인에 의한 자생적이었다는 것에 힘을 실어줄 근거는 세네갈의 독립 이후의 역사에 있다. 세네갈의 68년 5월 항쟁의 기원을 1968년 5월 27일 다카르에서의 최종 봉기보다도 더 이른 시기로 설정할 수도 있다. 마마두 디아(Mamadou Dia) 총리에 의한 1962년 쿠데타가 실패하고, 1963년 선거 기간 동안 최대 50명의 학생 시위대를 총격한 사건, 이후 1964년부터 역설적이게도 쟁고르 대통령에게로의 권력 집중이 더욱 강화되었다.⁷⁾ 이때부터 쟁고르는 세네갈이라는 국가 이름 아래 모든 사회 계급을 결집시키고 프랑스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좌파 조직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견제했다. 그의 네그리튀드(Négritude) 정신은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세네갈 68년 5월 항쟁은 프랑스 68혁명과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이미 60년대초부터 세네갈 내부의 정치상황에 기원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68년 5월에 쟁고르는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학생들이 외세에 의존한다고 비난하였지만, 역으로 외세에 의존한 것은 바로 쟁고르였다. 쟁고르는 시위 진압에 있어서 다카르 외곽에 있던 프랑스의 비제아르 장군을 다카르 시내로 불러들였고, 프랑스 내부장관 장 콜린이 프랑스 공군을 세네갈 기지에 파견해 준 데 대해 안심하였다.

외세의 힘에 의지한다는 억지스런 견제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노동자들은 프랑스의 좌파와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 때문에 쟁고르의 주장을 억지라고 일축해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쟁고르의 프랑스에 대한 의존이 명약관화함에도 학생조직과 노조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쟁고르의 술책을 받아들이면서 교섭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쟁고르 대통령은 국가 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피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1969년에 쟁고르는 일당체제를 강화하고, 민중들의 정치권에 대한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 젊은 지식인들을 민주주의 체제로 몰아넣는 이른바 "새로운 사회"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쟁고르는 독립한 세네갈을 위해 새로 도약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많은 좌파 지식인들을 정부로 끌어들였다. 특히, 이 새로운 사회는 유럽과의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의 "세네갈화(Sénégalisation)"라는 이슈를 부각시켰다.

또한 쟁고르는 세네갈 68년 5월 항쟁 사건을 세네갈의 역사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이런 역사적 배제는 매우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뤄졌다. 이 사건을 역사에 남기는 것은 쟁고르가 대통령직을 유지했던 1980년까지는 엄두를 낼 수도 없었을 것이다. 2018년 현재 50년이 흐른 시점에야 최초의 관련도서들이 출판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3.2 세계적 흐름 속에서 프랑스와 세네갈의 1968

해외에서는 세네갈 사태를 모르지 않았다. 이미 68년 파리에는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혁명과 관련된 포스터들이 걸렸었다. 예를 들어 "식민지배자들의 투표함을 부셔버립시

7) 이런 상황은 드골장군의 1958년 국민 투표와 제5공화국 출범 당시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다(Brisons les urnes colonialistes)", "프랑스 이주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Travailleurs français immigré unis)"와 같은 슬로건들을 기초로 한 포스터들이었다.⁸⁾ 이 포스터들은 프랑스의 혁명운동가들이 걸었던 포스터들이다. 하지만 프랑스정부는 세네갈의 봉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세네갈정부 또한 프랑스 68년의 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를 은폐하였다. 두 정부 모두 시위가 확대되거나 세계화되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드골과 생고르는 세네갈과 프랑스의 소요사태를 감추고자 하였다.

당시에 68년의 학생과 노동자의 시위는 전세계에 만연했던 공산당과 사회주의 이념과도 관련이 있다. 드골 정권보다 생고르 정권은 덜 견고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생고르는 세네갈 내부에 공산당과 사회주의가 자리잡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인접한 기네-코나크리(Guinée-Conakry)에서 자행되었던 지식인에 대한 마오이스트 문화혁명 혐의에 대해 생고르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또한 생고르는 사회 계급의 문제를 국가 내부의 문제로 보지 않았는데, 이것은 마르크스를 "반민족주의자"로 간주하는 "아프리카 사회주의"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고르의 관점은 전제적 독재 정치에 적합했지만 대신에 그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눈이 멀게 되었다. 앙드레 고르(André Gorz)는 1967년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으면 프랑스에서 사회정치적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었는데, 이를 드골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생고르 정부는 프랑스기업우대와 세네갈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희생을 통해 프랑스기업을 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세네갈 민중이 맹렬하게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네갈 68년 5월 항쟁의 자생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네갈 내부에서만은 아니다. 1966년 가나에서 식민통치체제를 반대하고 있던 쿠메 은크루마(Kwame Nkrumah)정권이 군부 쿠테타에 의해 무너졌을 때, 다카르 학생들은 쿠테타의 배후세력인 영국과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쿠테타를 방조하는 생고르 정권을 "반동적이고 봉건적인 신식 민주의 통치체제"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68년 5월 이전에도 세네갈의 학생들은 신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국제적 정세에 있어서 프랑스 68혁명과 세네갈 68년 5월 항쟁은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67년 내내 세네갈의 학생 연합은 고등 교육 개혁과 노동조합 인정을 외쳐왔고, 마침내 1968년 5월에는 결국 식품 가격을 낮추고 세네갈 사회지도층과 생고르의 정당인 UPS와의 유착을 종식하라고 시위를 일으켰다. 생고르와 네그리튀드에 대한 이 도전은 1968년 5월 프랑스에서는 드골정권에 대한 도전과 유사했다. 젊은이들의 투쟁이라는 단면만을 보자면, 세네갈과 프랑스의 학생운동은 각각 네그리튀드와 드골주의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세네갈과 프랑스의 학생들은 말 그대로 자유를 외쳤던 것이고,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식민주의 척결, 인종차별 금지, 나치즘 반대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요구했던 것이다. 세네갈과 프랑스의 68년 혁명운동은 두 국가 모두 지도자의 신념과 역사관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세네갈 5월 항쟁의 실제 시위참여자였던 마마두 완(Mamadou Wane)은 2008년 항쟁 40주년 기념 행사 발표에서 프랑스 68혁명에 영향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에 따르면, 세네갈 시위대들은 프랑스 68혁명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그들의 주된 시위 주제인 이 "반(anti)-신식민주의투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일어난 시위대들처럼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8) Stafford, Andy. "Senegal: May 1968, Africa's Revolt." In Philipp Gassert and Martin Klimke (eds.), 1968: Memories and Legacies of a Global Revolt, Washington, DC, German Historical Institute. 2009. pp. 129.

했다. 다카르의 시위대의 분쟁 구호는 프랑스 68혁명의 구호들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이 세계적 68혁명의 흐름에 지역적 특수성, 즉 복장, 음악, 지역의 영웅 이름을 높이기, 그리고 신식민지주의에 맞선 투쟁과 같은 내용을 가미했던 것이다. 이런 취지를 보면 그들은 68혁명이라는 세계적 혁명운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세네갈 시위에서는 정부가 신식민지주의에 빠져 형식상의 독립상태일 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식민상태임을 비판했다. 더 동시에 베트남 전쟁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대해 반대하였다. 또한 시위대들은 냉전의 맥락에서, 그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특히 혁명 이데올로기, 마르크스주의 및 사회주의 등이 그 중 일부였다. 확실히 그들의 시위사건은 68혁명의 세계화의 일부였다.⁹⁾

세네갈 68년 5월 혁명에서는 아프리카의 문화적 가치를 고취하여 서구문화에 대한 반(contre)-문화운동에도 동조한다. 서양 문화와 예술을 배척하고 자국 문화에 대한 재발견을 위한 기폭 장치가 되었다. 브리짓 바르도, 조니 기타와 같은 서양 스타에 대한 숭배는 제3세계의 새로운 영웅, 즉 쿠바 혁명(체 게바라), 중국문화혁명(모택동), 베트남 혁명(호치민), 마틴 루터 킹, 블랙 팬더와 블랙 파워, 콰메 은크루마, 프란츠 파농과 같은 영웅들에 대한 숭배로 바뀌었다. 밥 딜런, 지미 핸드릭스와 롤링 스톤즈가 세계를 독특한 춤으로 대유행을 만들어낸 반면, 다카르 학생들은 아프리카 음악에 대한 취향을 발굴했다. 기네 코나크리에서는 호로야(Horoya)와 봄베야(Bembeya) 재즈 음악이 연주되었다. 아프리카 의상에서도 아프리카의 뿌리로의 회귀가 이뤄졌다. 아프리카 독립당PAI과 PRA-Sénégal 정당에서는 아프리카 전통의상을 입거나, 혁명 드레스나 체게바라식 재킷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면에서 세네갈의 68년 5월 혁명은 단순한 지역 저항 운동을 넘어서서 그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사회 운동의 궤도에 같이 서 있었던 것이다.

3.3 네그리튀드에서 제3세계 담론으로

1966년 다카르에서는 흑인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흑인 예술 축제(Festival d'arts nègres)’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미국, 프랑스, 영국의 지원을 받지만 중국, 쿠바, 비동맹 운동, 즉 미소 냉전 시대 이래 지속되어온 제3세계 국가들의 연대·협력 운동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세네갈 정권의 친서방 정책의 결과였고, 세네갈에서 좌파 정치권의 생고르 정권에로의 흡수를 의미한다. 공산주의나 야당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 축제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 축제가 이렇듯 기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은 세네갈에서의 생고르 대통령의 변절과 그의 정치이념이자 아프리카 흑인운동을 불러일으켰던 네그리튀드(Négritude) 운동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다.

네그리튀드 정신이 생고르 정권 유지에 별 역할을 하지 못하자, 생고르는 프랑스의 신식민지 주의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유럽에 반대하는 “제3세계”라는 수사학을 사용하여 새로운 세네갈로 혁신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다카르 시위의 기원을 자생적인 것으로 일축하면서, 학생과 노동자 대중이 주장한 경제적 독립- 폐쇄경제일 수밖에 없겠지만-에 대한 68년 5월의 이슈는 역으로 세네갈의 통치자 생고르의 정치수단이 되었다. 이 운동은 생고르의 신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을 잘 이어주었다. 아프리카에서 계속된 프랑스의 신식민지 정책을 수사학적으로만 비난

9) Communication de Mamadou Wane dit Mao au Goethe Institute de Dakar, le 29 mai 2008, lors de la célébration du quarantenaire de Mai 68. Il était l'un des dirigeants du mouvement syndical élève à Dakar en 1968.

함으로써 좌파정치인을 통합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생고르의 "반제국주의" 혹은 "제3세계" 수사학은 세네갈 지배 계급으로부터 비판을 빚나가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

생고르는 정권유지가 힘들어질까 우려하고 프랑스 68의 도움을 받아 세네갈 내부의 좌파 세력이 커져버릴까 우려하였다. 그러다보니 프랑스 68세력들과의 연결을 끊어내어야 했고,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세네갈 좌파들을 포섭하여 생고르 정부에서 일할 수 있게끔 자리를 내줌으로서 세네갈 좌파를 분열시키고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생고르는 이때에 "유럽에 반대하는 제3세계"에 대한 수사학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제3세계라는 이념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고, 생고르가 처한 정치적 불안을 전복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이었다.

4. 흑인 운동가들의 활약상과 생고르의 견제

4.1 오마르 디옵 (Omar Diop)의 정치적 추방과 의문의 죽음

세네갈의 학생봉기가 프랑스와의 관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반증으로서 세네갈의 전설인 오마르 디옵(Omar Diop, 일명 Diop Blodin)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오마르 블론딘 디옵 (Omar Blondin Diop)은 1946년 니제르(Niger) 출신이며, 파리의 리세 루이 르그랑 고등학교에서 공부했으며 쌤 클라우드 (Saint-Cloud)의 ENS에서 학업했다. 이 시기에 그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적 성향이 갖추어지게 된다. 그리고 파리에서 그는 장피에르 레오(Jean-Pierre Léaud)와 안느 비아젠스키(Anne Wiazemsky)와 함께 1967년 영화 <중국여인(La Chinoise)>에서 출연하게 되면서 영화감독 장 룩 고다르(Jean-Luc Godard)를 만났다.

그는 학생 공동체에 가입하고 알랭 크리빈(Alain Krivine)과 함께 68년 5월 행사에 참여하고, 동기인 다니엘 콘-벤디(Daniel Cohn-Bendit)와 학교에서 퇴학당한다. 1968~1969년 사건으로 인해 포카르(Foccart)가 추방명령을 내려 세네갈로 돌아온 디옵은 1971년 1월 15일 프랑스 풍피두 대통령(Georges Pompidou)이 다카르의 프랑스문화센터(Centre Culturel Français)를 방문했을 때 몰로토프 화염병(Molotov)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1972년 3월 23일 그는 외국 공작원으로 "테러"와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고 세네갈 특별 재판소는 "국가 안보를 해손한" 혐의로 3년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몇 달 후 1973년 5월 11일 그는 감옥에서 목 졸려 죽은 채로 발견된다. 많은 세네갈 인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 의심을 품으며 분노하고 세네갈은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다카르의 질서가 진정될 때까지 개입하게 된다. 파리의 마오이스트그룹인 "프로레타리아 좌파(Gauche Proletarienne)"와 파리의 "아프리카 혁명(Révolution Afrique)"그룹에서 그를 끝까지 지지했다. 디옵이라는 인물의 정치적 추방과 의문의 죽음은 프랑스와 세네갈에서 혁명이 충분히 공유되었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압둘라예 바틸리(Abdoulaye Bathily)와 야당의 선전

생고르는 세네갈에서 자신의 정당인 UPS 외에 정당을 불법화했다. 당시 세네갈에는 급진정당인 PRA(Partie de regroupement de Sénégal)과 PAI((Parti africain de

l'indépendance)가 있었지만, 정부의 정당 불법화조치에 의해 해체되었다. PRA의 지도자들은 1963년 선거 당시 체포되었지만 1965년 이후 생고르 정부에 결합하였다. PAI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범아프리카주의와 민족주의가 혼합되어 있는 정당이다. 압둘라예 바틸리(Abdoulaye Bathily)는 PAI대표이자, 세네갈의 68년 5월 동안 학생운동가로 활동했던 인물로서, 세네갈에서 일어난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록하여『다카르에서의 68년 5월 혹은 대학의 항쟁과 민주주의(Mai 68 à Dakar, ou la révolte universitaire et la démocratie)』(2018)¹⁰)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한다.

바틸리는 그들을 더 많은 학생의 권리를 얻고 생고르 정부를 민주주의로 개혁하려는 계획으로 보았다. 바틸리는 프랑스 유학파가 아니었고, 프랑스와 세네갈을 연결하려는 모든 시도들에 반대하였다. 바틸리는 항쟁을 내부의 것으로 간주했으며 프랑스로 확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4.3 장-피에르 은디아예(Jean-Pierre Ndiaye)와 내부원인설

세네갈의 급진적 성향의 저널리스트인 장-피에르 은디아예(Jean-Pierre Ndiaye)는 세네갈 다카르의 항쟁은 파리의 68보다 먼저 일어났고, 파리의 68을 모방한 것이 아니며, 파리의 68과는 관계가 없다고 단정지었다.

은디아예에 따르면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세네갈도 노동계층들이 중간관리층들에 의해 철저히 관리받았기에 계급적 증오를 결코 잊지 않았다.¹¹⁾ 노동계층들에게 내재된 계급적 증오는 프랑스와 세네갈 학생들이 공통으로 마주치게 된 상황이며, 세네갈에서 1968년 혁명의 불씨가 되었던 시대상황이다. 파리에서도 그러했지만, 세네갈 당국은 매우 당황하였다. 세네갈 정치권력은 파리 정치상황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반란에서 프랑스에서 시위가 급속적으로 확대된 것은 세네갈 당국을 매우 놀라게 했다. 생고르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68년 5월에 드골이 통제력을 잃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세네갈에서 학생들이 반란을 시작하자마자 더 단호하게 반응했던 것이다.

다카르 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외세의 개입을 의식하면서 생고르는 세네갈에서 미국인과 중국인을 신속히 추방하였다. 그럼으로써 1968년 5-6월에 다카르 항쟁의 외부 영향설에 대한 소문들을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9년 5-6월에 운동이 재개되고 프랑스가 주요 방송에서 다카르의 움직임에 대해 재방송을 내보내지 않았을 때 생고르는 더 이상 프랑스에 의존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은디아예는 프랑스가 세네갈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은 세네갈 항쟁이 내부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데에 더 깊이를 높다.¹²⁾

10) 이 저서는 1992년 1판이 출간되었지만 그 내용을 대폭 보충하여 세네갈 68년 5월 항쟁의 50주년을 기념하여 2018년 재출판되었다.

11)은디아예에 따르면 세네갈이 과거 식민 지배자들의 경제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가장 높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다카르 항쟁이 프랑스에서 영향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인들의 경제구조를 다카르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경제구조상에서는 다카르 내부에도 당연한 계급적 증오가 쌓인다는 것이다. 은디아예는 똑같이 프랑스의 경제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세네갈에서의 학생반란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더욱 잘 증명해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세네갈 내부에서 그 밖의 다른 내재적인 변화가 진행되어 왔음에 틀림없다고도 평가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세네갈은 (과거 식민지배국가와의 경제의존도가 높다는) 원인과 결과의 단순한 개념보다는 프랑스의 내부상황과는 무관하게 평행선을 긋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출처 Ndiaye, Jean-Pierre(1934-....), *La Jeunesse africaine face à l'imperialisme*, Paris : F. Maspero, 1971.

12) 프랑스는 생고르에게 노동자 개혁을 제안하고 과격파들을 분열시키라는 작전을 제시하였지만, 동시에 생고르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신식민주의적 착취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생고르는 분명히 이 제시를 받아들이지 않았

바틸리와 은디야예의 견해는 내부원인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바틸리의 견해를 은디아예의 견해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은디아예는 다카르의 1968년 5월에 대해서 작성한 글에서는 이 항쟁이 정권과 학생들간의 직접적인 대립이라고 표현했다.¹³⁾ 그러나 그는 다카르에서 학생들과 연대하여 사건을 일으킨 이들은 노동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바틸리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연대가 항쟁의 파장력을 높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4.4 세쿠 트라오레(Sékou Traoré) 와 FEANF

세쿠 트라오레(Sékou Traoré)는 기네 출신으로서 프랑스에서 학업을 하면서 아프리카 학생운동에 전념하여 이에 대한 세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그는 FEANF의 사무총장으로 일하였고, U.I.E.(Union Internationale des Étudiants)의 협력자였다. 수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콩고의 브라자빌에서 Marien Ngouabi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였다.

트라오레와 FEANF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자면, 그는 아프리카의 해방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 여러 신문에 연설과 기사를 통해 전달했다. 이 글들이 모여서 1973년 『FEANF(재불 흑인학생 연맹)』라는 이름의 책이 출판되는데, 책의 첫 페이지는 1966년에 카메룬 변방에서 사망한 FEANF의 부대 오상데 아파나(Osendé Afana)를 추모하는 글로 시작되고 있어서 이 책의 저항적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방을 위한 프랑스의 아프리카 학생들의 활동은 아프리카 본토의 투쟁만큼 왕성했다. 그와 반대로 1912년 북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학생연합이 창립되었고, 뒤이어 1927년에 영어권 아프리카 흑인 학생 연합이, 같은 해 서아프리카 학생연합 WASU(West African Students' Union) 뒤이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50년에 FEANF가 결성되어 식민주의와 독립에 대해 강렬한 투쟁을 진행했다. 1953년 초 FEANF는 독립의 문제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투쟁에 참여했다. 프랑스 연방(Union française)과 프랑스-아프리카 공동체와 프랑스-아프리카 개혁 공동체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표방하였다. 그러면서 FEANF 회원들은 투쟁이 쉬운 것이 아니며 때로는 협박과 억압을 이겨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뼈 속 깊이 알게 되었다. FEANF는 프랑스 파리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을 때, 아프리카에서는 세네갈 다카르에는 자매 조직인 서아프리카 학생조직이 형성되어 투쟁을 진행하였다. FEANF가 서아프리카 더 작게는 다카르에 자매조직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서아프리카 학생조직은 아프리카에서는 아무런 정치적 토양이 없었던 분위기에서 자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UPA(Universitaire populaire africaine, 아프리카민중연합)을 창립하였고, 첫 번째 과업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다.

1960년에 독립을 얻게 되고, 트라오레는 신식민지주의 투쟁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발견하게 되었다. 저자는 학생 운동을 약화시켰던 프랑스 제국에서 일어난 발칸화(balkanisation)를 유감스럽게 생각했고, 아프리카가 결집하기 위해 막시즘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심어지길 원했다.

그러나 발칸화의 흐름에 따라 아프리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투쟁을 전개했던 많은 지도자들은 국가별 혹은 민족별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은 콩고-레오폴드빌(Congo-Leopoldville) 사건에 극대화되어 나타났고, ‘민중 교육은 학생운동에서 담당’, ‘신생

고 한다.

13) Ndiaye, Jean-Pierre(1934-....), *La Jeunesse africaine face à l'impérialisme*, Paris : F. Maspero, 1971.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야당 활동 금지' 등과 같은 과격한 슬로건들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이런 과격성이 직접적인 반응으로 출현된 예로, 우리는 1971년 콩고 킨샤사에서 29명의 학생들이 학살당한 것, 세네갈에서 1968년에 900여명이 연행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투쟁은 신식민주의 체제의 전복에 값비싼 결과(예 1972년 마다가스카르)를 남겼다. 식민주의 투쟁에서 학생 운동의 비중높은 역할을 수행했던 이후, 트라오레는 친제국주의 단체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공동체 기구에서의 학생 운동, MEOCAM)의 등장 하자 몹시 실망하였다. 아프리카로 돌아온 FEANF의 대원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간 이후의 활동 상황, 아프리카의 발칸제국화, FEANF에서 정신적이고 물리적으로 영웅이었던 인물로서 범아프리카 학생운동의 탄생에 기여하였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나타난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출현 등에 기여했던 응크루마 (Nkrumah)의 실각에 대해서도 몹시 실망하였다.

트라오레의 『FEANF(재불흑인학생연맹)』의 처음 두 섹션은 식민지와 식민지 시대의 아프리카 학생들의 투쟁을 다룬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트라오레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 기간 동안 학생들의 역할을 다룬다. 그것은 혁명 운동 기간동안 학생들을 부르주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무너뜨린다.¹⁴⁾ 그 다음으로는 아프리카의 노동자-농민-학생 동맹을 분석한다. 이 동맹을 통해 학생들은 부르주아화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학생들을 재교육함으로써 이 동맹의 결속력이 강해졌다. 이 섹션의 마지막에서 저자는 사회주의의 수립을 위한 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공산주의 학생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공산주의 학생들아 신식민주주의의 이면에 숨겨진 형태인 아프리카 사회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아프리카 가이드와 활동 프로그램으로 끝나고 있다.

투쟁활동가 트라오레는 마르크스주의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FEANF(재불흑인학생연맹)』은 이 주제에 관한 최초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의미있다. 트라오레는 아프리카 학생들이 현대 흑인 아프리카발전에 새로운 빛과 같은 역할을 하였음을 잘 보여준 것이다.

5. 맷음말

지금까지 세네갈 1968년 5월 항쟁의 경과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분석해보았다. 더불어 이 학생운동의 주요인물들을 통해 그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68년 5월 다카르 항쟁은 프랑스68혁명과 무관하다는 역사적 해석을 받아왔다. 하지만 다카르항쟁에 대한 세네갈 정부의 대처가 프랑스의 정치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프랑스 68혁명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세네갈 대통령 생고르는 드골대통령의 68혁명 해결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이를 모델로 하여 다카르 항쟁을 진압하였다는 점을 보아도 세네갈 항쟁은 프랑스의 68 혁명에 영향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외세의 손을 빌렸다는 생고르의 표현은 옳지 않을 뿐이다. 외세의 손을 빌려 세네갈의 항쟁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 혁명인 프랑스 68혁명과 그 행보에 가세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세네갈 68년 5월 항쟁에서 학생과 노동자들은 프랑스 68혁명의 세계적 확산의 발맞춤으로서 자유과 권리 확대를 외치는 것에는 기본적이었다. 다만 이들은 세네갈의 당시 상황에 대한 비판, 즉 신식민주의 통치체제에 대한 비판과 프랑스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에 대한 비판을

14) 이 해석은 1968년 5월에서 시작한다.- 프랑스의 68을 부르주아적 혁명이었으나 아프리카 학생운동은 반부르주아적이라고 논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부르주아적이라고 하기에는 아프리카에서 학생들의 위상은 상당이 고급인텔리겐차로 보인다.

좀 더 우선시하였다.

다카르항쟁을 주도했던 주요인물들을 살펴보아도 세네갈 68년 5월 항쟁과 프랑스 68혁명의 연관성은 충분히 증명해볼 수 있다. 프랑스로부터 추방당한 흑인지식인들로 일부 구성되어 있었다거나, 오마르 디옵의 정치적 추방과 의문의 사망, 압둘라예 바틸리의 혐란했던 야당 정치 생활, 은디아예의 자생설에 대한 지속적인 주장, 세쿠 트라오레의 친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 당적 성향에 대한 생고르의 견제 등의 역사를 살펴보면 억압과 배제에 의한 생고르 정부의 친 드골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Dieng, Amady Aly, *Les premiers pas de la Fédération des étudiants d'Afrique noire en France (FEANF), (1950-1955) : (de l'Union française à Bandoung)*, L'Harmattan, Paris, 2003.
- Dramé, Patrick & Lamarre, Jean, *1968 des sociétés en crise une perspective globale*, PUF, 2009.
- Bathily, Abdoulaye, *Mai 1968 à Dakar ou la révolte universitaire et la démocratie*, Harmattan-Senegal, Dakar, 2018.
- Bathily, Abdoulaye, *Mai 1968 à Dakar ou la révolte universitaire et la démocratie*, Chaka, Paris, 1992.
- Bianchini, Pascal. 2002. « Le mouvement étudiant sénégalais: Un essai d'interprétation. » In *La société sénégalaise entre le local et le global*, ed. Momar Coumba Diop, 359-396. Paris: Karthala.
- Blum, Françoise, « Sénégal 1968 : révolte et grève générale »,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n°59-2, 2012, p.144~177.
- Chanda, Tirthankar “La révolte des étudiants au Sénégal en mai 1968: questions à Omar Gueye”, 2018년 5월 4일자 rfi방송 인터뷰. 출처 : <http://www.rfi.fr/hebdo/20180504-revolte-etudiants-senegal-mai-1968-questions-omar-gueye-syndicats-bourses-france> 검색일 2018. 10.9
- Blum, Françoise, Guidi, Pierre ; Rillon, Ophélie, *Etudiants africains en mouvements : contribution à une histoire des années 1968*, Histoire contemporaine 16, Publication de la Sorbonne, 2016.
- Guèye, Omar, *Mai 1968 au Sénégal : Senghor face aux étudiants et au mouvement syndical*, Paris, Karthala, 2017.
- Guèye, Omar, « Mai 1968 au Sénégal », *Socio*, n°10, 2018, p.121-136.
- Heike Becker and David Seddon, Africa's 1968: Protests and Uprisings Across the Continent, ROAPE, [En ligne], 2018-02 | 2018, mis en ligne le 15 mars 2018, consulté le 08 août 2018. URL :<http://roape.net/2018/05/31/africas-1968-protests-and-uprisings-across-the-continent/>
- Hongla Hamos. “Traore (Sekou) : Responsabilités historiques des étudiants

- africains". In: *Revue française d'histoire d'outre-mer*, tome 63, n°231, 2e trimestre 1976. pp. 347-348.
- Lô, Magatte, *Sénégal : syndicalisme et participation reponsable*, Paris, L'Harmattan, 1987.
- Ndiaye, Jean-Pierre (1934-....), *La Jeunesse africaine face à l'impérialisme*, Paris, F. Maspero, 1971.
- Ndiaye, Moustapha Ndéné, *68 Neige sur Dakar*, Dakar, Éditions Fama, 2007.
- Romuald Fonkoua, « « Prises » et « reprises de paroles ». Michel de Certeau au miroir des « écrivains subalternes » », Les Dossiers du Grihl [En ligne], 2018-02 | 2018, mis en ligne le 15 mars 2018, consulté le 08 août 2018. URL : <http://journals.openedition.org/dossiersgrihl/6922> ; DOI : 10.4000/dossiersgrihl.6922
- Stafford, Andy. "Senegal: May 1968, Africa's Revolt." In Philipp Gassert and Martin Klimke (eds.), *1968: Memories and Legacies of a Global Revolt*, Washington, DC, German Historical Institute. 2009. pp. 129-35.
- Traoré, Sékou, *Fédération des Étudiants d'Afrique Noire en France*, L'Harmattan, Mémoires Africaines, Paris, 1985.
- Traoré, Sékou, *Les intellectuels africains face au marxisme*, L'Harmattan, Paris, 1983.
- Traoré, Sékou, *Responsabilités historiques des étudiants africains*, Editions Anthropos, Paris, 1973.
- Taafe, Peter, 'Why 1968 Still Matters', Socialism Today, n°218, May 2018.
- Zelig, Leo, *Revolt and Protest: Student Politics and Activism in Sub-Saharan Africa*, London, I.B. Tauris, 2007.
- 한양환, 『흑아프리카론 (후기신식민주의)』, 문화의 힘, 2016.

